

스페인

정보수정일자: 2012. 12. 20

작성처: 마드리드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정치사회동향 / 5
- 한국과의 주요이슈 / 8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 9
- 주요 산업 동향 / 13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18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21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24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27
 - 대한수입규제동향 / 30
 - 관세제도 / 32
 - 주요인증제도 / 35
 - 지적재산권 / 44
 - 통관운송 / 47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51
- 외국기업 투자동향 / 55
- 우리기업 투자동향 / 57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59
- 진출형태별 절차 / 61
- 투자입지여건 / 69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 74
- 조세제도 / 79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81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 82
- 물가정보 / 86
- 바이어발굴 / 87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91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95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96
- 이주정착 가이드 / 97
- 출장가이드 / 108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130
- 유관기관 웹사이트 / 132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스페인 王國 (el Reino de España: Kingdom of Spain)
위 치	이베리아 반도, 지중해 발레아레스 제도, 아프리카 서북쪽 카나리아 제도, 북아프리카의 세우타, 멜리야 지역
면 적	505,370km ² , 경작지 37% (2011 CIA World Factbook) 한반도의 2.3배, 남한 면적의 5배
기 후	○ 지중해안: 지중해성 기후, 내륙: 대륙성 기후 ○ 여름: 내륙은 고온건조, 북부해안지방 높은 강우량 ○ 겨울: 낮은 일조량, 우기
수 도	마드리드(Madrid)
인 구	46,196,278 명 (스페인 통계청, 2012년 1월 1일)
주요도시 (인구수 기준)	Madrid(639만), Barcelona(536만), Valencia(251만), Alicante(191만) Sevilla(189만) 등 (스페인 통계청, 2012년 1월 1일)
민 족	이베리아
언 어	○ 공식어: 스페인어(castellano) ○ 4개 자치주 언어(까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발렌시아) 공용
종 교	국민의 94% 이상 로마 가톨릭 신자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후안 카를로스 1세 (D. Juan Carlos I)
집 권 당	국민당(PP)
총 리	마리아노 라호이 브레이(Mariano Rajoy Brey)
입 법 부	양원제(상원 266석, 하원 350석)
정 당	국민당(PP) 및 사회노동당(PSOE)이 정국 주도 이외 좌익연합(IU), 까탈루냐 연합당(CiU), 바스크당(PNV) 등 활동

자료: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 정부

나. 경제 지표

GDP(명목)	1 조 734 억 유로 ('11 년, 스페인 통계청)
실질경제성장률	0.7% ('11 년 전년대비, 스페인 통계청) 0.3%('11 년 4 분기 전년 동기대비, 스페인 통계청)
1인당 GDP	23,236유로(약 30,896 달러) ('11년 잠정)
실 업 률	25.02% ('12년 3분기, 스페인 통계청)
물가상승률	2011년 평균: 3.1% (스페인 통계청) 2012.10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3.5%(스페인 통계청)
화폐단위	유로(Euro)
환 율	1유로 = 1,433.65원('12년 10월 평균환율,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외 채	1조 7,987억 유로('12.6월말기준, 스페인중앙은행, '12년 11월기준 최신자료)
외환보유고	394억 9,200만 유로('12.10월말기준, 스페인중앙은행, '12년 11월기준 최신자료)

산업 구조	농·어업(2.4%), 제조업(15.5%), 건설(10.5%), 숙박/운송/도소매(22.6%), 공공행정/보건/교육(16.5%), 금융/보험(3.8%), 정보통신(3.5%) 등 (‘11년 GDP 기준, 스페인 통계청)
교역 규모	○ 2010년 - 수입 2,375억 유로 - 수출 1,857억 유로 - 무역수지(적자) 518억 유로 ○ 2011년 - 수입 2,390 억 유로 - 수출 1,960 억 유로 - 무역수지(적자) 430 억 유로
교역 품	○ 수출: 자동차, 산업용기계, 농수산물,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 수입: 연료 및 원자재, 자동차, 자동차 부품, 산업용기계, 전자/전기기기 등

자료: 한국의환은행,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 중앙은행, CIA WORLDFACTBOOK, IMF

다. 한-서 관계

체결 협정	○ 사증 면제 협정(1972) ○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1975) ○ 공업소유권 협정('75) 문화협력협정(1977) ○ 항공협정(1989) ○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1994) ○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2000) ○ 한-EU FTA 잠정발효 (2011.7)
양국관계 주요일지	○ 1950. 3 외교 관계 수립 ○ 1970. 4 주 스페인 상주대사관 개설 ○ 1973.10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 ○ 1973.12 주 라스팔마스 영사관 개설(1999.4 폐쇄, 대사관 분관 설치) ○ 1987.12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개설(1993.6 폐쇄) ○ 2007.02 노무현 대통령 스페인 공식 방문 ○ 2007.06 한-스페인 정책 협의회 ○ 2007.07 외교통상부 제1차관 스페인 방문 ○ 2008.01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스페인방문(1차 문명간연대 국제 포럼) ○ 2008.10 북경개최 ASEM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과 Zapatero 총리 개별회담 ○ 2008.11 김형오 국회의장 스페인 공식 방문 ○ 2010.09 Alfredo Bonet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대외통상 차관 및 기업사절단 방한 ○ 2010. 11 Zapatero 총리 G20 정상회담 참여 ○ 2011. 8 한국 국회 대표단 스페인 공식 방문 ○ 2012. 3 Rajoy 총리 핵안보 정상회담 방한 참가

교역 규모	○ 2010년 - 우리나라의 수출: 18억 5천8백만 달러 - 우리나라의 수입: 9억 5천5백만 달러 - 무역흑자: 9억 3백만 달러 ○ 2011년 - 우리나라의 수출: 18억 5천7백만 달러 - 우리나라의 수입: 11억 6천2백만 달러 - 무역흑자: 6억 9천5백만 달러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 - 승용차, 무선전화기, 타이어, 반도체, 합성수지, 열연강판 ○ 우리나라 수입 - 금속광물, 의약품, 가축육류 자동차부품, 농수산물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투자 - 1980년~2012년 2Q: 129건, 9억 6천만 달러 (한국수출입은행, 법인/투자신고 기준) ○ 스페인의 대 한국 투자 - 1980년~2012년 3Q: 157건, 9억 8천만 달러(지식경제부, 투자신고 기준)
교민	○ 교민수: 4,080명(IBERIA 반도 내 2,883명, Las Palmas 1,197명, '11년) - 주요도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라스팔마스(까나리아 제도)

자료: 스페인 정부, 스페인 통계청, 무역협회, 한국외교통상부, 한국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치동향

스페인은 의원내각제가 결합된 입헌군주제 국가로 양원제 국회를 갖추고 있으며, 입법부가 있어 분권체제를 갖추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며, 임기는 4년이다.

유럽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스페인의 오랜 집권당이었던 사회당(PSOE)이 경기침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2년 3월로 예정되었던 총선을 2011년 11월로 앞당겨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당(PP)이 선거에서 압승하여 Mariano Rajoy 국민당 당수가 새로운 스페인 총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이후 각종 긴축과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실망도 커져가고 있으나, 야당인 사회당(PSOE)도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어 스페인 정치권은 전반적인 정치불신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

라호이 신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1000억 유로 규모의 긴급구제 신청 직후인 7월 중순 2012-2014년 기간중 총 650억 유로를 절감하기 위해 부가세 인상(기본세율 18%→21%), 실업수당 장기수령자에 대한 지급비율 축소, 공무원 연말 상여금 미지급(연봉 7% 감소효과) 등의 정책이 포함된 추가긴축안을 발표하여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으나, 정부는 국제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밝혔으며, EU 회원국들로부터 스페인이 경제회복을 위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이 경제위기국에 대한 조건부 단기국채 무제한 매입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스페인이 10월중 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ECB의 계획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진정되면서 11월말 현재까지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연내 구제금융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수그러든 것은 아니다. 2013년 초 다시 한 번 대규모의 국채만기 도래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ECB의 개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국채금리가 하락한 것이므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경우, 국채금리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2년 재정적자 목표상한선(GDP의 -6.3%)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채금리 급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기관이 스페인이 재정적자 목표달성을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공존한다.

경제위기와 함께 최근 스페인 정치권을 달궜던 이슈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움직임이다. 스페인의 주요 도시인 바르셀로나가 속해있는 카탈루냐 지역은 ‘카탈란’이라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스페인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카탈루냐인’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1600년대부터 크고 작은 독립 움직임이 있어왔으며,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당시에는 공화파의 거점으로 마드리드와 대항, 내전에서 프랑코의 왕당파가 승리한 후 많은 탄압을 받아 스페인에 속해 있으면서도 스페인과 거리감을 갖고 있다. 또한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분배받아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강하다. 경제위기로 인해 지방정부가 누적된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자 중앙정부에 대해 재정 자치권을 요구했으며, 중앙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아르투로 마스 주지사는 11.25(일)에 조기 지방선거를 실시하며 분리독립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조기총선 결과 집권당인 CiU는 다수당의 위치는 보존하였으나 의석수가 당초대비 12석이 감소(62석→50석)하여 단독으로 과반 확보에 실패, 분리독립 움직임의 동력을 잃게 되었다. CiU 이외에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군소 정당들의 의석을 합할 경우 과반 이상을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분리독립 성향 이외에는 정치적 성향이 달라 협력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한 편, 그러나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EU가 회원국의 일부 지역이 일방적인 분리독립하는 경우 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고, 스페인 법상 분리주의 운동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중앙정부 이외에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카탈루냐의 분리주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독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지방색이 강한 자치주 정부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도 스페인의 정치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 대외 관계

스페인은 70년대 중반 민주화 도입 이후, 그 동안 편향돼 있던 외교정책을 재정비 하는데 주력했다. 1955년 UN 가입 이후 줄곧 국제사회로서의 행보를 줄곧 이어나가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 각각 1982년, 1986년 가입함으로써 서방세계와의 외교 기반을 다졌다. 특히, 스페인은 그간 EU 차원의 개발지원금에 힘입어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EU 내 정책사항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친 EU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재정위기 등 경기침체로 EU 내에서 스페인의 입지가 약화되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스페인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남미 지역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현대까지 정치 및 경제 협력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90년대 초 해외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스페인은 중남미 지역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스페인 기업 Repsol이 57%의 지분을 갖고 있는 YPF(아르헨티나 최대 정유사)사를 국유화하기로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가 긴장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Repsol의 지분 51%를 강제로 몰수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Repsol 경영진을 YPF에 출입금지 시키는 등 기습적이고 강경한 국유화 조치를 취하였다. EU, 미국 등은 아르헨티나의 이러한 조치를 비난하기는 하면서도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Repsol에 대한 보상 등 사태 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Repsol과의 분쟁이 부상하면서 아르헨티나가 G20 회원국인 반면, 유로존 경제규모 5위인 스페인이 G20 회원국이 아니라는 사실(2008년부터 옵저버 국가로 참가중)이 부각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것은 2004년 알카에다의 아토차 기차역 폭탄 테러사건 이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이라크 파병을 철수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냉랭해졌기 때문이라는 정치적 분석이 지배적이다.

스페인은 또한 스페인 남단의 영국령 지브롤터의 영유권 문제로 영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브롤터 인근 스페인 어선의 조업을 두고 지브롤터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스페인 당국이 보복조치로 지브롤터로의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자국 어선이 경계수역을 넘어 나포되거나 벌금을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경찰이 어선들을 호위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스페인의 소피아 왕비는 지브롤터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관계를 고려해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60주년 행사 참석을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외교부는 영국 에드워드 왕세자 부부가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기념으로 지브롤터를 방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영국대사를 소환하여 항의하였다.

다. 사회동향

1) 주택 대출금 연체자에 대한 강제퇴거 제한조치 시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의 주택 대출금 연체가 심화되어 은행권의 주택압류 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직으로 인해 주택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어지면서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었으며, 최근 강제 퇴거자 3명이 자살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자 중 일정 소득수준, 부양가족 수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2년간 주택압류를 유예하는 칙령을 채택하였으며, 강제퇴거로 주거지를 잃은 국민에게 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2) 고실업 지속, 학업-취업도 하지 않는 “Ni-Ni”족 증가

2012년 상반기 기준 스페인의 실업률은 약25%로 청년실업은 50%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기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실업률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학업은 물론 구직활동까지 포기하여 소위 “놓고 있는” 젊은세대를 뜻하는 Ni-Ni 족이라는 신조어(Ni estudia Ni trabaja)까지 등장하고 있다.

3) 이민정책

스페인은 유럽국가 중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로 매년 지리적 및 문화적으로 가까운 중남미와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이 최고점에 올랐던 2007년의 경우 연간 이민자 유입인구가 92만 명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이민자 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46만 명 유입에 그쳤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이민자 유입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스페인 사회는 전반적으로 이민인구 확대가 노동인력 보충, 소비시장 확대, 저출산 보완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데다가, 아프리카 불법 이민자 증가에 따른 치안 불안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이민에 대한 평이 일부 왜곡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경제위기 여파로 그간 건설 및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던 이민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해 정부의 실업수당 지출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

스페인은 불법 이민자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면 무상의료 혜택 등 스페인 국민들과 동일한 혜택, 또는 차상위 계급으로서 오히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법이민자들의 천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의료복지제도를 개정하면서 2012년 8월 말부터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게만 의료혜택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실업률 상승으로 고민을 안고 있는 정부는 향후에도 외국인의 자국내 취업이민이나 불법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경제위기로 수출여건 위축, 한국에 대한 관심은 증대

한국은 스페인과의 교역에서 매년 큰 폭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스페인 민간수요가 감소하며 2008년과 2009년 대 스페인 수출이 각각 -18.7%, -45.6% 하락한 바 있다.

2010년 이후 스페인 경기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들어서며 대 스페인 수출 규모도 다소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최대 규모를 달성한 '07년에 비해 절반수준밖에 미치지 못했으며, 2011년도 유럽재정위기가 재점화되면서 수출이 다시 감소, 2012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수출 여건도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스페인의 관심이 뜨겁다. 비슷한 인구와 경제규모를 갖춘 우리나라가 90년대 말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과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등 저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스페인 기업인들과 정책연구가들이 한국을 높이 평가하며, 배우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내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해외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기업과 경쟁관계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면서, 상호 협력을 통해 경쟁을 피하고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나. 상호 투자분야 다변화 및 관심 증대

스페인은 그간 중남미와 인근 유럽 지역에 집중했던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 아시아권으로 진출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제약, 유통, 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페인 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빠른 성장을 거듭하는 극동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추세이다.

최근 스페인의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기업 Abengoa 그룹의 자회사인 Befesa 는 한국 철강분진처리 사업 진출을 위하여 국내기업에 투자하였다. 동사는 철강분진 회사를 시작으로 바이오매스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진출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스페인 주요 그룹사인 동사의 한국 투자계획이 현지 언론에 공표되면서 현지 주요 기업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의 대 스페인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투자는 도소매업 관련 국내기업들의 법인 및 지점설립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이뤄지는 투자는 창고운수업(한진해운 TTIA 터미널 운영), 건설업(GS 건설 스페인 수처리업체 INIMA 사 인수) 등 투자분야가 다변화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최근 SK 루브리컨트가 현지 최대 정유사인 Repsol 과 공동으로 윤활유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스페인의 투자유치 진흥기관인 Invest In Spain 은 우리나라를 스페인의 12대 투자유치 중점 대상국에 포함하였다.

다. 미미한 수준이지만 한류에 대한 관심 증가

스페인의 한류는 프랑스, 중남미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K-POP, 한국영화 등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원의 한국어 강좌, 전통악기 강좌 등의 수강생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개관

스페인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성장률 (%)	4.0	3.6	0.9	-3.6	-0.1	0.7
평균 실업률(Av)	8.5	7.8	11.3	18.0	20.3	21.7
물가 상승률(%)	3.5	2.8	4.1	-0.3	1.8	3.1
산업생산 증감률	3.7	2.4	-7.1	-16.2	1.4	-1.8
환율(USD/유로, end of period)	0.76	0.68	0.72	0.70	0.75	0.75
수출(억유로)	1,704	1,850	1,892	1,582	1,858	2,144
수입(억유로)	2,626	2,850	2,838	2,084	2,381	2,608
무역수지(억유로)	-922	-1000	-941	-501	-523	-463
1인당 GDP(불, PPP)	28,455	30,566	31,258	30,322	30,896	30,622
이자율(%)*	2.855	4.030	4.733	3.025	1.251	1.504
GDP 대비 정부재정적자(%)	2.0	1.9	-4.1	-11.4	-9.3	-8.9
GDP 대비 정부부채(%)	39.6	36.2	39.7	55.2	63.5	67.5

주: * Euribor 12개월물 연초기준

자료: Eurostat,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중앙은행, IMF

스페인은 1986년 EU 가입 이후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펴오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통합 경제정책을 따르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07년까지 건설붐, 해외이민자 대거유입 등을 통한 내수 증대를 바탕으로 EU지역 평균 성장률(1.6%)의 2배에 해당하는 3.0%대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해 왔다. 특히, 유로화 도입 이후 장기 저금리 상황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기 심리확산과 건설경기 활성화의 연쇄 작용으로 2000~2007년 주택가격이 매년 약 20% 상승하는 과열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들어 세계적인 금융위기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외무역 적자 심화, R&D 투자 저조, 이자율 상승과 같은 악재가 겹치며 국가경제 성장률이 2009년 2010년 각각 -3.6%, -0.1% 하락하였다. 2011년부터 경기가 다소 안정되며 국가경제성장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회복 속도가 저조해 당초 정부 예상목표인 1.3% 성장의 절반 수준인 0.7%에 머물렀다.

타 EU국가보다 고질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스페인은, EU가입 후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실업률을 한자리 대로 낮추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건설산업 불황, 산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2008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며 2011년 말에는 22%까지 치솟아, 정부의 세입감소 및 실업수당 지출 부담 가중을 야기하고 있다.

90년대 스페인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높은 물가는 2000년 이후 매년 3~4%대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2008년~2009년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기도 하였다. 민간소비 감소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유가 및 산업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2011년 말 기준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였으며, 2012년 10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3.5% 상승을 기록 중으로, 경제위기 및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인근 EU국에 비해 산업기반이 다소 취약한 스페인은 공산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매년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000년도 들어 거듭된 경제성장으로 통상규모가 꾸준히 확대된 스페인은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수출입 시장규모가 약 20% 감소한 바 있으나, 2010년 경기가 다소 안정되며 수출과 수입이 각각 16%, 15% 증가하였다. 2011년 상반기에도 수출입이 모두 호조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정부의 긴축정책 실시와 실업률 증가, 경기침체로 산업 및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2012년 3분기말 기준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약 1.6% 감소한 1,906억 유로, 수출은 3.7% 증가한 1,640억 유로를 기록중이다.

스페인 국가재정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5~2007년간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위기 발생 이후한 과도한 경제회생 지원금 투입, 실업수당 지출 가중 등으로 인해 2009년 재정적자율이 GDP 중 -11.1%까지 치솟아 EU 최대허용 기준인 -3%를 크게 초과하였다. 또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권의 부실이 증가하는 등 악재가 겹쳐 스페인 정부는 결국 2012년 6월 25일 결국 유로존에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이르렀다. 2012년 6월 10년만기 국채금리가 7%를 넘어서는 등 1995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주가도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스페인 정부의 추가 긴축안 등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IMF, EC 등의 긍정적인 평가와 유럽중앙은행의 위기국 단기국채 무제한 매입을 허용하는 전면적 통화정책 실시계획 발표(9월) 이후 정부의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며, 국채금리가 진정되고 최근 4개월 연속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발표 직후에는 스페인 정부가 대규모 국채만기가 도래하는 10월말 이전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12월 중순 현재까지 스페인 정부는 지원요청에 대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하겠으나, 현재는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하여 적어도 2012년 내에는 국채매입 요청과 같은 사실상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국채금리 안정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유럽중앙은행의 개입가능성으로 인한 투자가들의 불안심리 진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다시 국채금리가 상승하여, 결국 구제금융 신청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주요 국제 신용등급 평가기관 3개사는 2012년 들어서만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2회 이상에 걸쳐 하향조정하였다.

최근 스페인 신용등급 조정 현황

	Moody's		S&P		Fitch	
2010 년	Aaa→Aa1	('10.9.30)	AA+→AA	('10.4.28)	AAA→AA+	('10.5.28)
2011 년	Aa1→Aa2	('11.3.10)	AA→AA-	('11.10.14)	AA+→AA-	('11.10.8)
	Aa2→A1	('11.10.18)				
2012 년	A1→A3	('12.2.13)	AA-→A	('12.1.13)	AA-→A	('12.1.27)
	A3→Baa3	('12.6.13)	A→BBB+ BBB+→BBB-	('12.4.26) ('12.10.11)	A→BBB	('12.6.7)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를 무역관에서 정기적으로 요약

스페인 정부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GDP의 -4.5%)을 위해 2012년 초부터 사회보장 지원금 감축, 공무원 임금 동결,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긴축재정 및 세율 인상을 시행하는 한편, 각종 개혁(금융 구조조정, 노동, 연금)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극심한 민간소비 부진, 고실업률, 지방정부의 높은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회복 속도가 더디며, 증시(IBEX35) 또한 각종 내외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요소가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

한 편, 스페인은 당초 2012년 재정적자폭을 GDP의 4.4%로 감축, 201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EU 상한선인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2012년 2월 공개된 2011년 재정적자규모가 GDP의 8.5% 수준으로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자 2012년 재정적자 목표 4.4% 달성이 불가능함을 선언하고 재정적자 목표를 5.8% 수준으로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EU 집행부와 의 사전 상의 없는 일방적인 조정계획 발표는 스페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 속에 EU 집행위와 2012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5.3%로 최종 수정하였다. 그러나, 금년 5월 지방정부의 결산 수정결과 2011년 재정적자가 발표치인 8.5%에서 8.9%로 수정되면서 다시 한 번 시장의 불신을 얻었다.

스페인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정부의 이자 상환부담까지 높아져 시장에서는 스페인이 2013년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2012년 5.3%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관련, EU는 스페인이 모범적인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5.3%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재정적자 감축 목표와 시한을 완화하였다. 변경된 스페인의 재정적자 목표는 2012년 GDP의 6.3%(당초 대비 1%p 완화), 2013년 4.5%(당초 대비 1.5%p 완화), 2014년 2.8%(당초 3% 달성시기 1년 유예)이다.

나. 경제 성장현황 및 전망

유럽연합 가입 이후 2007년까지 연 3% 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왔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 및 민간소비 하락, 산업생산 부진으로 인해 2009년, 2010년 각각 -3.6%, -0.1%의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경제재건을 위해 2010년 초 이후 고강도 긴축재정 및 금융/노동/연금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2010년 하반기 이후 경제가 다소 안정되는 듯해 보였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 들어 높은 실업률과 민간소비 정체, 금융권 부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그 결과 2011년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1.3%에 미치지 못하고 0.7% 성장에 머물렀으며 2012년 예상 성장률은 마이너스 1.3~1.7%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정부는 꾸준한 개혁정책의 성과, 수출산업 호전 등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노동 시장

스페인 실업률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건설업계 및 관광산업의 호조로 2007년까지 10%대 미만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와 경기침체 등으로 실업률이 2012년 3분기 기준 25.02%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정부의 막대한 실업수당 지출을 초래해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침체된 기업 생산활동으로 스페인 평균임금은 물가보다 낮게 상승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반면, 임금은 0.9% 증가에 그쳤다.

한 편, 스페인내 노동 분쟁(파업)은 2009년 1,001회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984회, 2011년 777회, 2012년 8월 기준 496회). 이는 경기침체기 초기에 기업파산, 정리해고 등으로 파업 결행회수가 증가하던 것과 달리 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파업의 효용성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고 파업참여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근로자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는 경기부진과 고용위축을 2010년 6월, 2011년 8월, 2012년 2월 등 수차례에 걸쳐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정규직/청년인력 채용을 장려하는 노동법 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계속 증가하고 신규고용 창출은 미미하여 사상 최악의 실업률로 고민에 빠져있다.

라. 물가 현황

2000~2007년간 2~3%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던 소비물가는 2008년에 유가상승 및 곡류 가격 폭등으로 4.1%로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침체로 물가도 크게 하락하기 시작해 2009년에는 전년대비 -0.3% 감소하였다. 2010년 들어 소비물가가 1.8% 상승하였으며, 2011년에는 극심한 소비침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치불안으로 인한 유가상승으로 전년대비 3.1%의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2012년 11월 기준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2.9% 상승하였다.

산업물가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생산활동 감소로 2008~2009년간 연간 상승률이 각각 0.4%에 불과했으나, 이후 산업자재 수요 상승 및 고유가로 인해 2010년에는 5.3%, 2011년에는 5.2% 증가하였다. 2012년 10월 기준 산업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3.5% 상승하여 소비자 물가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재, 내구재, 자본재, 중간재 등의 산업물가 상승률은 0.6~2.9%로 소비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움직인 반면, 에너지 분야의 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8.1%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구조 개관

스페인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 반면, 제조업이나 건설, 농수산업의 기여도는 낮아지는 추세이다.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2008년까지는 농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빠른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2009년 이후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며 대부분의 산업 성장이 크게 후퇴하였다. 2012년 상반기 기준 스페인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하였으며, 특히 금융업(-10.0%)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는 부동산 버블이 깨지면서 부동산 연계 부실대출이 저축은행들의 부실자산으로 전락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주요산업별 GDP 비중

(단위: %)

부문/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수산업	2.7	2.4	2.5	2.3	2.3	2.4	2.4
에너지	2.6	2.6	2.6	2.9	3.0	3.0	3.2
제조업	13.7	13.3	12.9	12.7	11.6	11.8	12.3
건설업	12.1	12.6	12.4	12.5	12.1	10.9	10.5
서비스	58.2	58.1	59.4	61.3	63.9	63.4	63.4

자료: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청

주요 산업별 성장률

(단위: %)

부문/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수산업	-5.1	-6.2	10.9	-3.1	-2.9	4.8	1.9
에너지	12.2	5.7	10.9	11.7	0.6	-0.2	9.6
제조업	4.5	5.4	3.9	1.6	-12.3	2.3	6.7
건설업	15.2	12.5	5.5	3.5	-6.7	-9.3	-1.5
서비스	7.1	8.3	9.1	6.7	0.4	-0.5	2.2

자료: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청

주요 산업지역은 전반적으로 스페인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수도 마드리드는 행정 중심, 제 2도시 바르셀로나는 자동차, 전자, 섬유, 화학, 의류, 제약, 북부 바스크 지방은 공작 기계, 공구류, 철강, 금속 가공, 제3도시 발렌시아는 가구, 조명기기, 홈 텍스타일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과거 스페인 산업의 경쟁력은 서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기계 등의 분야에서 유럽 주요 선진국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였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공장 동유럽 등 해외 이전, 시장 내 중저가 중국산 대량 유입 등으로 인해 스페인 산업생산 활동이 강력한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 및 업계는 R&D를 더욱 장려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유로 가입 이후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산업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통신, 건설 및 엔지니어링, 항공, 재생에너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담수처리 등과 같은 산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건설 엔지니어링 등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해외진출도 활발하여 최근 스페인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나. 주요 산업 소개

1) 자동차 산업

스페인에는 르노, 푸조, 포드 등 다국적 완성차 메이커의 공장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연간 생산량 235만 대로, 630만 대를 생산한 독일에 이어 유럽 2위('11년 기준) 자동차 생산국이며, 이는 세계 9위에 해당한다. 생산 차종은 주로 중 소형 승용차와 특장차, 버스 등으로 생산분의 약 80%가 수출된다. 또한, Tier 1, 2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도 발달되어 있으며, 스페인 토종기업 보다는 해외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지 완성차 공장 및 Tier 1, 2의 구매 결정권은 대부분 미국 및 유럽 본사에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주요 자동차제조사의 생산공장이 점차 동구권으로 옮겨져 가고 있어 체코 등 동구권 국가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반면, 스페인은 내수침체 및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의 경기위축으로 2012년 생산목표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스페인 자동차 제조업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기준 스페인의 차량 등록대수가 전년대비 급락(승용 -7.3%, 산업용 -24.2%, 버스 -26.9%, 상용 -24.4%)하여 경기침체의 여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Nissan 자동차가 2013년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1억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IVECO사도 5억유로 신규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자동차 제조업계의 투자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경기침체와 최악의 실업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스페인 경제에 다소의 위안을 주고 있다.

2) 농축산, 수산, 가공 식품 산업

전통적인 농업국인 스페인은 유럽국가 중 GDP 대비 농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넓은 국토와 높은 일조량을 바탕으로 양질의 감귤류, 포도, 올리브 등과 같은 농수산물에 대량 생산하고 있다. 또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근해 어업 및 양식업이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를 중심으로 원양어업도 발달되어 있다.

풍부한 자국 농산물, 수산물을 기반으로 주류, 제과제빵, 축산, 음료, 수산물 등 식음료 가공 산업이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 왔으며, 유럽 1위 관광대국으로서 호텔 및 요식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 밖에 외식을 즐기는 국민성이 식음료 산업을 발전하게 한 요인으로 손꼽힌다. 스페인 식음료 산업 생산규모는 2010년 기준 813억 유로로, GDP의 7.7%를 차지한다. (2012.6월 기준 최신자료) 산업 내 활동기업 수는 총 29,334개사로 2010년 30,261개사 대비 약 3% 감소하였다.

3) 신재생에너지 산업

스페인은 전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풍력 및 태양광 분야에서 2010년 누적 발전용량 기준 각각 세계 4위(2만 676MW), 2위(3,784MW)에 등극되어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기반이 탄탄해 Iberdrola Renovables(풍력단지 건설), Gamesa(풍력터빈제조), Abengoa(태양열단지 건설) 등과 같은 세계 유수 기업이 산재해 있다.

이로 인해 2011년 스페인 내 총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5%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스페인 내에서 소비된 전력 중 13.2%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020년까지 EU목표(총 전력소비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발전)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2년 들어 정부가 재정적자 해결 등을 위한 긴축조치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동 산업분야의 위축이 예상된다. 2012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최근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전력업계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를 결정하는 등 지원축소와 세금부담 증가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운영부담 증가와 신규 투자 위축이 예상된다. 또한 2011년부터 논의되어 온 재생에너지 법령 제정과 관련해 정부 부처간 조율이 늦어지면서 제도 확정이 2013년 이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많은 기업들이 법령이 확정될 때까지 투자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손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등 부정적인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으며, 2012년 5월에 개최된 에너지 전시회 GENERA의 경우도 규모가 종전 대비 축소되었다.

4) 건설 산업

2000년대 스페인의 경제성장과 함께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유럽 금융위기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건설경기의 침체를 초래했다.

그러나 스페인은 ENR(McGrawHil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Magazine)이 선정한 세계 100대 건설 기업('11년 기준) 중 스페인계 10개사가 선정된 바 있을 정도로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의 강국으로 해외 건설 시장 진출도 활발해 과거 식민지로 언어가 동일하고 문화가 비슷한 중남미권에서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자국 내 건설산업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스페인 건설기업들은 더욱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 중동 지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 편으로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파이낸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협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5) IT 산업

스페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IT 산업규모는 2011년 기준 약 379억 유로로 GDP 중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장은 2000년대에 접어들며 인터넷 보급 활성화 등에 힘입어 연간 10%대의 높은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2009년에는 경제위기로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약 -9.2%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판매가 호조를 보여 시장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현재 약 30 만 명의 인구가 동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 만여개의 기업이 스페인 내에 산재하고 있다. 또한, 유럽 2 위 정보통신 기업('10 시가총액 기준)인 Telefonica 의 주 본거지로, 유럽은 물론 남미 시장에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Telefonica사는 2011년 4분기부터 4세대 LTE 서비스를 시범운영 하고 있다. 현재는 적용 가능한 휴대전화 모델이 출시되지 않아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USB 모뎀형식으로만 지원되며, 4G 서비스가 기존 3G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솔루션·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기대되며, 향상된 데이터 전송속도로 인해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도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경기불황으로 인해 2011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스페인 내 핸드폰 판매 대수가 약 10% 감소하는 등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최첨단 기기의 판매 신장이 두드러져 IT 시장 회복에 주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 밖에, 스페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16 세~74 세 인구 중 인터넷 유저수는 약 2 천 450 만 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 70.8%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 중 61.8%인 2 천 137 만 명은 적어도 1 주일에 한 번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마케팅/홍보 예산이 축소된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사용인구 증가와 인터넷 사용 활성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마케팅으로 눈을 돌려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한 마케팅, 광고시장이 성장하고 있기도 하다.

6) 관광산업

스페인은 매년 5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세계 4위 관광대국('11년 관광객 유입 수 기준) 중 하나로, 2위를 기록했던 2007년보다는 순위가 다소 하락하였다. 2010년 기준 2백만 명에 가까운 노동인구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광업을 통해 매년 400억 유로에 가까운 수입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터키, 중국, 동구권 등이 신흥 관광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 스페인 관광산업의 입지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업계는 해변을 찾는 피서객을 중심으로 한 기존 관광업 패턴에서 벗어나, 문화/역사/자연 등을 통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최근 관광진흥청(TURESPAÑA) 민영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10%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 추진기로 하여 이의 실행여부 및 참여기업의 전략에 따라 향후 스페인의 관광산업 정책 향방에 변화가 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 정보 조사 자료원

-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부: www.minetur.gob.es
-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www.mineco.gob.es
- 스페인 중앙은행: www.bde.es
- 스페인 정부공식사이트: www.lamoncloa.es
- 스페인 대외무역진흥청(ICEX): www.icex.es
- 스페인 통계청: www.ine.es

- 스페인 세무국(국세청 및 관세청 기능 수행): www.agenciatributaria.es
- 품목 HS 코드별 관세 검색: www.taric.es
- 스페인 수출입 통계: datacomex.comercio.es
- 스페인 연구소 Real Instituto Elcano: www.realinstitutoelcano.org
- 스페인 통상 자료: www.comercio.es
- D&B 정보서비스: www.dnb.com
- 의료관련 포털 PUNTEX: www.puntex.es
- 각종 전시회 관련 자료 검색
 - 스페인전시회 연합회: www.afe.es
 - 마드리드 전시회: www.ifema.es
 - 바르셀로나 전시회: www.firabcn.es
 - 발렌시아 전시회: <http://feria.feriavalencia.com/>
 - 빌바오 전시회: www.bilbaoexhibitioncentre.com
- 분야별 연감(자동차, 자동차부품, 자동화기기, 금형 등)
 - www.anuarioquia.com
- 종합지 및 경제지
 - EL PAIS: www.elpais.com
 - EL MUNDO: www.elmundo.es
 - ABC: www.abc.es
 - EL PERIODICO: www.elperiodico.com
 - CINCO DIAS: www.cincodias.com
 - LA GACETA: www.gaceta.es
 - EXPANSION: www.expansion.com
 - MONEDA UNICA: www.monedaunica.net
 - DINERO: www.negocios.com/dinero
 - ACTUALIDAD ECONÓMICA: www.actualidad-economica.com
- 관련 협회
 - 스페인 전자정보통신협회(AMETIC): www.ametic.es
 - 스페인자동차제조사협회(ANFAC): www.anfac.es
 - 스페인 의료기기협회(FENIN): www.fenin.es
 - 수출기업협회(AMEC): www.amec.es
 - 전경련(CEOE): www.ceoe.es
 - 전자 및 IT분야 수출기업연합회: www.secartys.org
 - 자동차부품 제조사협회 SERNAUTO: www.senauto.es
 - 전자상거래협회: www.aecem.org
 - 조명기기 제조사협회: www.anfalum.com
 - 전기제품 제조사협회: www.afme.es
 - 시멘트 제조사협회: www.oficemen.com
 - 섬유산업 정보센터: www.cityc.es
 - 플라스틱산업협회: www.cep-inform.es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스페인인 EU 회원국으로서 단독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 집행위가 EU의 27개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 27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 EU의 FTA 정책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 체결에 더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 ‘지역 대 지역 협정’ 이외에 개별 국가와의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동기와 함께 상업적 동기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까지는 EU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거하여 인근 국가와의 FTA를 추진해왔으나 1999년부터는 이와 함께 신흥성장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미, 즉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EU FTA의 주요 특징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도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협정, 무역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한 모델은 없으며 체결한 FTA 별로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역무역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능한 한 FTA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MERCOSUR, GCC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과는 2010년 10월 6일 공식 서명되었다. Karel De Gucht 집행위원은 향후 5년간(2011-2016년) EU 집행위의 무역정책 내에서 앞으로 인도와 MERCOSUR, 싱가포르, 캐나다와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EU FTA는 브뤼셀 ASEAM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이명박 대통령과 Herman Van Rompuy EU 정상회담 상임의장, 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 등이 임석한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간에 한-EU FTA가 정식 서명되었다. EU와 한국의 자유무역 협정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협상이 개시돼 2009년 7월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고, 2009년 10월 15일에 가서명 됐다.

한-EU FTA는 당초 2011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탈리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6개월 연기돼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이 발효는 잠정적 발효이기는 하나 정식발효와 거의 차이가 없다. 정식발효는 27개 EU 회원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현재 스페인은 한-EU FTA의 국회 비준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다.

한-EU FTA에 대해 EU 측에서는 가장 야심 찬 무역협정이자 아시아 국가와는 첫 번째 FTA라고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양측 간 교역을 증진시킬 것이며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유럽의 고용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인 동시에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한-EU FTA는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EU 집행위가 FTA 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 중인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인도

2007년 6월에 협상이 개시되어 2012년 12월 현재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최근 독일에서 인도와의 FTA 협상 조기 타결을 촉구하는 등 아시아 주요 경제권으로 부상한 인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말레이시아

2010년 10월에 협상이 개시되어 진행 중이다. 당초 2012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연되고 있으며, 2013년 중반 말레이시아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차기 회담이 언제 개최될 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 일본

2011년 5월에 있었던 EU-일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정치적 프레임을 마련하고 사전준비 작업을 하기로 한데 이어 2012년 6월 18일 집행위는 회원국에 일본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와 동시에 협상권 위임을 요청기로 결정했다. 10월중 EU 의회는 협상개시를 지지하였으며, 11월말 EU 경제장관들이 일본과의 FTA 협상 착수에 공식 합의하고 협상권을 EU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캐나다

2009년 5월에 협상이 개시되어, 2009년 6월에 상호 경제/무역 협정(CETA :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내역에 합의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1월말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이 발표되었으나, 12월 중순 현재 협상 타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 MERCOSUR

MERCOSUR와의 협상 지침은 1999년에 채택되었으나 그 동안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가 2010년 5월에 양측 간 협상이 공식 재개되었다. 협상 내용에는 공산품과 농산품만 아니라 서비스분야와 정부조달법규의 개선, 지적재산권, 관세, 교역의 용이화, 무역기술장벽 등이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2010년 5월 이후 지금까지(2012년 3월이 마지막 협상) 9회에 걸쳐 협상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협상은 2012년 10월 브라질에서 개최되었으며 원산지 규정, 관세, 서비스교류, 공공조달 등의 주제를 다뤘으나 의견차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 최근현황

2012년 6월 EU는 콜롬비아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12월에 유럽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콜롬비아는 현재 의회 승인 절차 진행중이나, 2013년 상반기까지는 절차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3월 3일에 개시된 EU-싱가포르 FTA 협정 협상은 2012년 12월 16일 약 3년 에 최종협상이 타결되었다. EU는 싱가포르와의 협상 타결 외에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ASEAN 회원국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 대 지역간 협정으로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의 FTA 협상 최종 타결 준비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우크라이나와의 FTA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문제 해결을 희망하고 있어 당분간 FTA 체결 협상은 미뤄지게 되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EU의 FTA 경제 관련 부분의 편집 및 조정을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된 서류를 공식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기술적인 단계에 있다.

III. 무역

1. 수출입 동향

스페인은 꾸준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출진흥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유로존 가입 이후 수출입 시장 모두 높은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기 시작해 2009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각각 -15%, -27%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경기가 다소 안정되며 교역규모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해 수출과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16.8%, 16.4% 증가하였다. 2011년에도 수출과 수입이 각각 14.8%, 8.6%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하반기부터 경기둔화가 재개되면서 수출과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012년에는 경제위기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다. 2012년 9월 기준, 수출은 1.74% 증가하고 수입은 -3.47%로 감소하였다.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 동기대비 -26.68% 감소하였다.

스페인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09		2010		2011		2012(~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59,890	-15.50	186,780	16.81	214,486	14.83	164,027	1.74
수입	206,116	-27.26	240,056	16.46	260,823	8.65	190,591	-3.47
무역수지	-46,227	-50.90	-53,276	15.24	-46,338	-13.02	-26,564	-26.68

자료: ICEX

스페인의 수출입 중 약 2/3는 유럽연합 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고 지리적 위치에 가까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철폐 효과로 인해 스페인의 대 EU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인근 유럽국가이나, 최근 소비침체로 인한 중저가 제품 구매 비중 증가로 최근 대 중국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중국의 순위가 2012년 9월 기준, 3위까지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일본과 한국은 스페인의 각각 20위와 34위 수입대상국에 랭크되어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도 인근 유럽국가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2년 9월 기준, 각각 270억, 171억, 122억 유로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 대 중국 및 한국 수출액은 각각 약 27억, 7억 유로를 기록해 13위, 42위 수출대상국을 유지 중이다.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2011			2012(~9월)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1	독일	30,741	1	독일	20,256
2	프랑스	28,275	2	프랑스	20,031
3	중국	18,642	3	중국	13,334
4	이태리	17,097	4	이태리	11,577
5	미국	10,564	5	네덜란드	8,228
6	영국	10,550	6	영국	7,459
7	네덜란드	10,503	7	미국	7,281
8	포르투갈	10,284	8	포르투갈	6,474
9	러시아	8,463	9	러시아	6,113
10	벨기에	6,424	10	나이지리아	5,670
18	일본	3,199	20	일본	2,184
32	한국	1,707	34	한국	1,251
총액		260,823	총액		

자료: ICEX 수출입통계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2011			2012(~9월)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1	프랑스	38,455	1	프랑스	27,052
2	독일	21,824	2	독일	17,125
3	포르투갈	17,192	3	이태리	12,155
4	이태리	17,007	4	포르투갈	11,308
5	영국	13,740	5	영국	9,905
6	미국	7,889	6	미국	6,626
7	네덜란드	6,163	7	네덜란드	4,804
8	벨기에	6,001	8	벨기에	4,686
9	터키	4,456	9	모로코	3,857
10	스위스	4,180	10	터키	3,439
13	중국	3,390	13	중국	2,694
23	일본	1,861	22	일본	1,549
44	한국	813	42	한국	726
총액		214,486	총액		164,027

자료: ICEX 수출입통계

2012년 9월 기준, 스페인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석유 제품으로 전체 수출시장에서 약 1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여전히 스페인 제1위 수출품목이지만 역대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가 눈에 띈다. 그 뒤를 이어 자동차부품, 의약품, 선박·항공기 공급품 등의 수출규모가 크며, 포도주, 돼지고기 등과 같은 농수산물도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

'12년 9월 기준 스페인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유로, %)

HS CODE	품목명	금액	증가율
8703	자동차	14,423.91	-15.57
2710	석유제품	9,389.33	9.88
8708	자동차부품	5,942.23	-6.93
3004	의약품	5,234.25	-8.82
9930	선박, 항공기 공급품	4,584.63	71.46
8704	화물차	2,634.90	-21.30
9990	기타	2,603.06	1.08
8803	기계부품	1,782.84	20.28
2204	포도주	1,698.63	10.12
0203	가축육류	1,695.08	16.42
수출 총액(기타품목 포함)		164,027.47	1.74

자료: ICEX 수출입통계

같은 기간 주요수입품목도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등으로 주요 수출 품목과 유사하다. 그러나 높은 순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의 수입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구재 구매수요 감소를 반증하고 있다. 혈액의 수입량이 전년 동기대비 약 9% 증가하여 수입품목 10위 안에 든 점이 특이하다.

'12년 9월 기준 스페인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유로, %)

HS CODE	품목	금액	증가율
2709	석유 및 역청유(원유)	26,884.38	22.76
2710	석유 및 역청유(원유제외)	9,570.94	-10.54
8708	자동차 부품	8,725.86	-9.14
2711	석유가스	8,651.65	18.19
3004	의약품	6,365.70	0.50
8703	자동차	5,941.85	-17.65
8517	무선단말기	2,727.91	-16.59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1,932.46	0.18
2603	동광과 그 정광	1,793.17	-2.15
3002	혈액	1,427.02	9.16
수입 총액(기타품목 포함)		190,591.48	-3.47

자료: ICEX 수출입통계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 한-스페인 교역 현황

스페인은 2011 년말 기준으로 우리의 EU 시장 10 위 수출 대상국이며, 수입 기준으로는 기준 9 위에 해당한다. 2007 년 우리의 EU 시장 5 대 수출대상국까지 올라갔던 스페인으로의 수출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었던 2008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국간 교역은 2008 년 전년대비 9.4% 감소하였으며 2009 년에는 전년대비 39.6%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2010 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경제위기 이전인 2007 년의 48 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수출 확대보다는 스페인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 면이 크다. 2010 년의 경우, 상반기에 월드컵 특수와 디지털 TV 보급 및 신차구매 지원제도 등에 힘입어 승용차, 휴대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고르게 증가하여 수출 18.6 억 달러, 수입 9.5 억 달러 등 전체 교역량은 전년대비 7.7% 상승한 28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부가가치세 인상(2%P),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계획으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수출 증가세를 2011 년까지 이어가지 못하였다. 2011 년 스페인과의 교역규모는 7.3% 증가한 30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출은 전년 수준인 18.6 억 달러에서 답보상태(0.1% 감소)를 보인 반면, 수입은 11.6 억 달러로 증가하여 무역흑자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2012 년에는 스페인 경제위기로 대 스페인 수출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 부가세 추가인상(3%P) 등으로 인한 극심한 내수 부진 및 산업생산 감소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스페인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스페인과의 교역에서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흑자폭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對 스페인 한국 교역 현황 연도별 추이

(단위: US\$백만,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0월)
수출	금액	3,192	1,737	1,858	1,857	1,415
	증감률	-18.7	-45.6	7.0	-0.1	-9.1
수입	금액	1,130	875	955	1,162	1,063
	증감률	32.0	-22.5	9.1	21.6	13.2
총교역 규모	금액	4,322	2,612	2,813	3,019	2,478
	증감률	-9.4	-39.6	7.7	7.3	-0.01
무역 수지	금액	2,062	861	903	696	352
	증감률	-32.8	-58.2	4.9	-22.9	-42.9

자료: KITA

2) 품목별 대 스페인 수출 현황

2012년 10월 기준 대스페인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무선전화기, 선박, 합성수지 등으로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약60%를 차지하고 있다.

대스페인 수출이 최고치(39억 달러)를 기록했던 2007년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무선전화기, 에어컨, 냉장고 등이었으나, 국내 대기업의 생산기지(자동차, 가전 등) 해외이전, 경제위기로 인한 현지 소비시장 위축으로 수출품목에서 산업재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승용차는 여전히 스페인 최대 수출품목이지만, 전년 동기대비 대비 수입이 31.1% 감소하였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부가세 인상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무선전화기는 2012년 9월까지의 전년대비 수출감소를 기록하며 고전하였으나, 삼성의 신제품 출시로 인해 10월 전년대비 플러스로 전환하였다.

2012년도 10월 기준 대 스페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1% 감소하였으며, 1월에 기록된 특이값(선박 수출 1건, US\$129백만)을 제외할 경우 일반품목의 대스페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17% 감소하였다.

對 스페인 10대 수출품목

(단위: US\$백만, %)

순위	MTI 코드	품목	2011		2012(1월~10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7411	승용차	478	8.9	236	-31.1
3	8121	무선전화기	169	-36.8	156	2.8
2	7461	선박	0	-99.9	129	622,462.2
4	2140	합성수지	86	18.4	77	9.7
5	7420	자동차부품	52	57.0	56	35.0
7	3203	타이어	69	-4.5	39	-34.9
6	8352	축전지	9	266.8	37	539.2
10	7112	펌프	23	49.7	26	47.7
9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25	10.6	26	20.5
8	7531	프레스금형	27	169.8	26	45.4
전체수출			1,857	-0.1	1,415	-9.1

자료: KITA

3) 품목별 對 스페인 수입 현황

대 스페인 주요 수입품목은 2012년 10월 기준, 윤활유, 의약품, 기타금속광물 등이며,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대 수입품목인 윤활유의 경우 우리기업인 SK 루브리컨트와 스페인 기업 Repsol의 스페인 합작투자 등 협력관계가 강화되면서 수입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동시에 대 스페인 주요 수입품이었던 자동차부품의 수입은 전년 대비 약 46%의 큰 감소를 나타내었다.

對 스페인 10대 수입품목

(단위: US\$백만, %)

순위	MTI 코드	품목	2011		2012(~10 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1336	윤활유	26	-30.1	185	1,030.2
2	2262	의약품	124	42.1	115	11.7
3	1190	기타금속광물	182	16.6	96	-20.4
4	0221	가축육류	81	121.4	50	-28.1
5	2140	합성수지	50	-7.9	42	-3.1
6	0131	식물성유지	62	18.9	42	-12.7
7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37	18.1	34	2.5
8	6141	철강관	27	58.4	26	27.0
9	7420	자동차부품	48	-2.5	22	-46.4
10	6221	동과및스크랩	5	133.6	21	356.2
전체수입			1,162	21.6	1,063	13.2

자료: KITA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 27개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취해진다.

□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자국시장 공급가격보다 싼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 위에다 덤핑만큼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또는 관련 산업협회)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여 관련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EU 산업이 역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업자는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생산, 판매, 수익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를 말한다.
- 반덤핑 조치가 총괄적으로 EU에 이익이 될 때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은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EU는 중국 기업들의 약진 및 유럽시장 잠식으로 역내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태양광,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미 EU 위원회가 중국 태양광 제품의 반덤핑 관세의 도입을 위해 관련 시장 및 제품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2012년 12월 현재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 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 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 세이프가드 조치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 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 (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한다.

2011년 5.31일 EU 집행위는 한-EU FTA 세이프가드 규정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EU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 없이 2011년 7월 1일부 한-EU FTA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면 관세율 인하가 정지되거나,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해당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관세율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시킬 수 있으며, 최초 2년 시행 후 2년 연장 가능하다. 또한 향후 소형 자동차 등 민감 분야의 경우,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정 1개 EU국가 산업에 대한 피해에도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개나 소수의 EU회원국 산업에 대한 피해에도 적용가능하며, 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예비판정 만으로도 우선적으로 200일 한도 내 잠정 적용 가능하며, 특히 한국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EU의 자동차 산업계와 연계, 특별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섬유 및 의류 (HS 5204, 5205, 5206, 5207, 5408, 5508, 5509, 5510, 5511)
- 소비자가전(HS8521, 8528)
- 승용차 (870321, 870322, 870323, 870324, 870331, 870332, 870333)

나. 수입 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 역시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12년 12월 현재,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다음과 같은 품목이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 철강제 관련결구류 * 철강 로프와 케이블과 실리콘(우회덤핑)

EU 집행위는 2012년 2월 10일자 관보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과 모로코로 우회수출에 부과되어 오던 중국산 철강로프와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반덤핑관세에 대해 연장하고, 한국에서 수출되는 일부 해당 품목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한다고 공고하였다.

한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원산지 국가가 한국산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중국산과 같이 반덤핑관세 60.4%가 부과되고 있다. 해당품목코드(TARIC codes)는 7312.10.8113, 7312.10.8313, 7312.10.8513, 7312.10.8913, 7312. 10.9813 이다. 한 편, 일부 한국업체는 이번 반덤핑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국가	회사	Code additionnel TARIC
대한민국	(주)보성선재	A969
	(주)청우제강	A969
	씨에스	A969
	(주)코스모 와이어	A969
	(주)대흥산업주식회사	A969
	DSR 제강(주)	A969
	고려제강	A969
	만호제강(주)	A969
	세일제강	A994
	(주)신한제강	A969
	쌍용선재(주)	A969
	영흥철강	A969

□ 반덤핑 관세 종료

1999년 11월 6일부터 조사를 받았던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CHIP은 조사 개시 이후 있었던 일몰 재심에서 2007년 2월 27일 이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연장 부과 받아왔다. EU는 2012년 2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PET CHIP에 대한 반덤핑 부과 종료를 공고하였으며, 일몰재심을 개시한다는 공고이후에도 어떠한 요청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되어있던 종료일인 2012년 2월 28일자로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를 종료하였다. (조사를 받았던 PET칩 및 폴리에스터 강력사의 경우, 2011년 2월 23일 및 2010년 12월 1일 무혐의 처리되었다.)

2011년 9월 1일부터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side-by-side refrigerators)에 대한 반덤핑 부과가 종료가 되었다. 동 품목은 2005년 6월 2일에 조사를 개시하여, 2006년 8월 31일에 최종 부과 판정이 난 바 있으며, 대상 기업에는 삼성, LG, 대우 등이 포함되었었다.

□ EU 집행위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 모니터링 없기로 결정

한 편 프랑스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사전 모니터링 요구(2012년 8월) 에 대해서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0월에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사전 모니터링(prior surveillance)를 실시할 경우 관찰 결과가 향후 세이프가드 발동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국내 업계의 주목을 끌어왔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스페인은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6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통관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스페인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스페인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혜택,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 되고 있다.

‘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는 전면 또는 5년 내에 철폐가 되지만, 모든 수출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출 규모에 따라서 기업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EU지역으로 수출 건당 6,000 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한국 세관의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만 EU 회원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FTA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수출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증수출자 관련 신청은 한국 관세청(<http://fta.customs.go.kr>)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5년간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숙지하여 이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패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관과 유지가 필요하며, 수입자는 원산지 입증 1차 책임자로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충족여부 증명서를 구비,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 능력 확인 등이 필요하다.

원산지 검증 서류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아래의 관련문안을 기재하여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관세청 포털 사이트 <http://portal.customs.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스페인 경우에는 21%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스페인의 경우 주류, 담배,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 (excise)가 부과된다. 특별세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 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가지(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 혜택, GSP+)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노동권 보호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EU의 GSP 제도는 2009년부터 2011년간 3년 동안 적용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신규 수정안이 늦게 마련되어(2012.5월에 채택) EU 당국은 현행제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로 결정했다. 집행위가 채택한 수정안은 이사회와 EU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두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SP 신규정 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으로 더 이상 GSP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벨로루시, 러시아 등의 국가를 수혜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대신 여타 최빈국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안이다. 또한 기존의 제도는 수혜기간을 일정기간(예: 현행제도는 원래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것이었음) 동안 정해 놓았는데 신규제도는 “open-ended” 제도로 기간에 상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U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공동의 세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번호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 품목별 관세율 조회 방법

EU커미션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품목별/코드별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으며,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2006/95/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93/68/EEC
폭발 제품(Pyrotechnic articles)	2007/23/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효율규정	92/42/EEC, 93/68/EEC, 2004/8/EC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2006/42/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98/79/EC, 2000/70/EC, 2007/47/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93/42/EEC, 93/68/EEC, 2007/47/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2009/23/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93/68/EEC, 93/95/EEC, 96/56/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 안전(Safety of toys)	88/378/EEC, 93/68/EEC, 2009/48/EC
여가용 선박	94/25/EC, 2003/44/EC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측정기기	2004/22/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2년 12월 기준 28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라벨 대상 품목

연번	대분류	소분류
1	Beautycare	비누/샴푸/헤어컨디셔너
2	Cleaning Up	다목적용 세제
3		식기세척기용 세제
4		산업용 식기세척용 세제
5		주방용 세제
6		세탁세제
7		산업용 세탁세제
8	Clothing	섬유 제품
9		신발
10	Do-it-yourself	페인트와 바니쉬
11	Electronic equipment	PC
12		노트북
13		TV
14	Coverings	목재 바닥재
15		섬유 바닥재
16		hard covering
17	Furniture	목재가구
18	Gardening	Growing media(soil 제외) 및 Soil improvers
19	Household appliances	전구
20		냉난방장치(heat pump)
21	Lubricants	윤활유
22	Other household items	매트리스
23	Paper products	신문용지
24		인쇄용지
25		복사/그래픽 용지
26		티슈페이퍼
27	Holiday accomodation	야영장 서비스
28		관광숙박 서비스

자료: <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products-groups-and-criteria.html>

- 에코라벨 기준 제정 중인 품목
 - Food and feed products
 - Office buildings
 - Converted paper
 - Hydronic central heating generators
 - Imaging equipment
 - Sanitary products
 - Taps and showerhead
 - Toilets and urinals

다. 에너지 라벨

EU는 1992년부터 에너지 라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3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에너지 라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 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2011년 11월 30일부터 TV에도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최근 EU는 관보를 통해 TV에 대한 에너지 라벨 법규(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No 1062/2010)를 공식 발표하고, 2011년 11월 30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TV에 대해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동 제도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체는 A에서부터 G까지 7단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각 라벨은 녹색(A)-노랑색(D)-붉은색(G)로 이어지는 일련의 색상이 부여되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기로 한 것은 기존의 냉동·냉장고, 식기세척기나 세탁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 시행 사례에서 보듯이 시행초기에는 A 등급이 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9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TV 중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규정에 나타난 TV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상향 조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2013년 12월 31일까지)
 - A, B, C, D, E, F, G 의 7 등급이 적용. 단,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이 A+ 또는 A++, A+++기준이라고 판단할 경우 적합성을 입증한 후 A+, A++, A+++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 2단계(2014년 1월 1일부터)
 - 최고 등급 A+부터 최저 F 까지 7등급으로 분류. 따라서 G 등급이 없어지는데, 이는 G 등급에 속하는 저에너지 효율 제품은 사실상 2014년 1월 1일부터는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3단계(2017년 1월1일부터)
 - 최고등급 A++부터 최저 E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F 등급은 없어진다.
- 4단계(2020년 1월 1일부터)
 - 최고등급 A+++부터 최저 D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E 등급은 없어진다.

최고 등급 초록색 - 중간 등급 노랑색- 최하 등급 빨강색으로 이어지는 7개 등급별 색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A 등급의 경우 현재는 초록색이나 상기와 같이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노랑색이 될 것이다.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Switzerland :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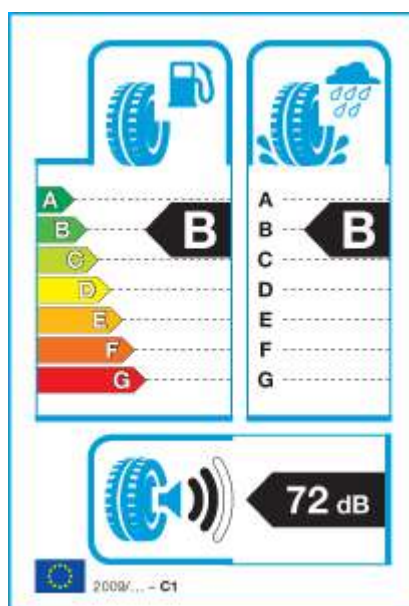
 The image shows a standard European energy label for a washing machine. It features a color-coded scale from A (green) to G (red). The label indicates an energy efficiency class of A, an energy consumption of 0.95 kWh per wash cycle, and a water consumption of 49 liters per cycle. It also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manufacturer, model, and the European Union flag.	○ 개요 -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 품목 - 라벨 표시 :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 효율 :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 기관 -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 법령 - 에너지 라벨링 지침 (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	---

	○ 개요 -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 ○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개요 -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 플레이어 등(15품목) ○ 시행 기관 - 스위스 에너지부 (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라. 타이어 라벨표시

EU규정 1222/2009에 의거 2012년 6월 이후에 제조되어 2012년 11월부터 EU시장에서 시판되는 타이어는 연비(fuel efficiency), 소음, 도로밀착 수준을 표시하는 라벨을 스티커로 각 타이어에 부착하거나 판매장소 표시 판에 관련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타이어 라벨



마. 위험물질 사용 제한

최근 EU 는 인체와 환경에 위험한 물질의 사용 금지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곡물·식물보호를 위한 제초제로서 사용을 허용해 왔던 cinidon-ethyl 의 허용 갱신제도를 완료하여 EU 에서는 실질적으로 2012 년 10 월 1 일부터 이 물질을 포함한 제초제 판매가 금지되는 한편 살초제로 사용되는 2-naphtyloxyacetic acid 는 2011 년 11 월 28 일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었다.

EU 에서 cinidon-ethyl 은 91/414/EEC(1991.7.15.) 지침 Annex I 에서 식물보호용 물질로 일정 조건 하에서 2012 년 9 월 30 일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한편, EU 집행위는 91/414/EEC 의 수정 지침인 2010/77/EU(2010.11.10)지침을 통해 cinidon-ethyl 사용 허용 신청자들이 기술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이 물질의 사용 허용기간을 연장기로 했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에 접수된 cinidon-ethyl 사용 허가 신청 건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행위는 2010/77/EU 지침에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물질의 사용 허용기간을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지 않고 2012 년 9 월 30 일 자로 이 물질의 사용 허용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EU 회원국은 2013 년 3 월 31 일까지 cinidon-ethyl 판매와 유통을 허용할 수 있으며 2014 년까지 처분, 창고보관과 재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Cinidon-ethyl의 IUPAC 명: 9Z-ethyl 2-chloro-3-[2-chloro-5(cyclohex-1-ene-1, 2-dicarboximidi) phenyl] acrylate)
- CAS No: 142891-20-1
- CIPAC No: 598

EU 는 일정 조건 하에서 살초제로서 2-naphtyloxyacetic acid 의 사용을 허용해 왔으나 동 제품의 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하고 더 이상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결국 2011 년 11 월 29 일부터 동 물질의 사용이 EU 에서는 금지되었다.

바. 식품라벨 규정 강화

2011 년 7 월 6 일 EU 의회는 2 차 독회에서 현행 기존 식품 라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 명료성을 제고한 최종 규정 안을 채택했다. 신규 식품 라벨 법은 소비자가 식품 구매 때 구매하려는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염분 등의 함유량과 식품의 열량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알레르기성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해당 성분을 소비자가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현행 기존 규정보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이 신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알아보기 쉽고 명료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규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키 위한 것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양 성분표 표시 의무
- 소비자들이 한 눈에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carbohydrates), 당분(sugars), 단백질(protein), 염분의 함유량과 열량(energy content)을 읽을 수 있도록 포장 위에 표로 표시해야 함.

- 열량과 성분 함유량의 기준은 100g 당 또는 100ml 당으로 표시되어야 함. 영양 성분표 이외 추가로 1인분 개당(portion) 열량과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음.

○ 알레르기성 성분은 다른 성분과 구별되게 표시해야 함.

- 현행 EU식품 라벨 규정에서도 포장된 식품(pre-packed foods)에 들어있는 알레르기성 성분(allergenic substances)를 포함한 모든 성분들이 구별 없이 리스트 형식으로 포장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 규정에서는 특히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현행 규정과 달리 해당 알레르기 성분(들)이 여타 성분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강조 표시하도록 함. 이 같이 다른 성분과 구별될 수 있는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 한 눈에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한 식품임을 인지토록 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신 법규에서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이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식품 카테고리 확대

- 쇠고기(beef), 꿀, 올리브유, 생 과일 및 야채 등 일부 식품과 그 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원산지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EU의회의 요구로 신 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다가 돼지, 양, 염소, 조류의 신선한 고기를 추가하여 이들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 이 조항에 대한 이행 법규는 집행위가 신 규정 발효 일부터 2년 내에 마련할 것임.
- 또한 앞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가 신 규정에서 나열된 품목 이외 여타 다른 카테고리의 식품(재료로 사용된 고기, 우유 또는 비공정 식품) 까지 확대될 것이나 확대하기 전에 집행위는 그러한 규정의 이행 가능성(feasibility)과 예상되는 추가 비용 등의 영향을 조사, 검토한 후 긍정적인 결론에 귀결할 때 확대를 결정할 예정임.

○ 소비자를 오도하는 포장 금지

- 신 규정은 식품 포장의 겉모양과 글자 표기(description), 또는 표기된 그림(pictorial presentation) 등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 한편, 예를 들어 “야채 치즈(cheese-like foods made with vegetable products)”와 같이 제품의 구성 성분이 본래의 치즈와는 다르나 모양 상 치즈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방식품(imitation foods)”들은 소비자가 모방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즉, 어떤 식품에는 정상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의 경우, 포장 팩(pack) 앞면의 브랜드명 옆에 뚜렷한 크기의 활자로 모방식품임을 표기해야 함.
-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 식품에는 “formed meat”,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 식품에는 “formed fish”라는 라벨로 혼합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함.

○ 일단 EU관보에 발표되면 식품업체들은 3년 내로 동 규정 내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해야 함. 단, 영양가(nutrition values) 관련 규정 조항은 5년 내로 적용하도록 시행기간을 연장함.

사. 섬유제품 관련 신 라벨링 규정

지금까지 EU 의 섬유제품 관련 라벨링 규정은 73/44/EEC, 96/73/EC, 2008/121/EC 등 3 개의 지침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법의 형태도 지침(directive)이기 때문에 시행법이 각 회원국 마다 상이하여 복잡했던 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 제조자/수입업체들의 유럽시장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소비자 보호도 강화되었다.

원칙적으로 지침은 그대로 시행될 수 없고 회원국들이 지침을 기초로 만든 회원국 자국 법에 의해 시행된다. 그런데 회원국들이 지침을 자국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침 규정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회원국마다 시행법 내용이 각기 달라 비즈니스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에 EU 는 현행 지침(73/44/EEC, 96/73/EC, 2008/121/EC)을 EU 규정(Regulation EU 1007/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L272, 2011.10.18)으로 바꾸어 전 EU 회원국에서 그대로 시행되도록 한 것이며 신 지침 발효와 동시에 현행 지침들은 무효화 된다.

□ 신규정의 주요 내용

신규 법은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제품의 섬유 명(textile fibre names), 혼방섬유의 각 섬유의 구성비율, 동물성 비 섬유 자재가 함유된 섬유의 라벨링 의무와 표시 방법, 섬유제품의 각 섬유구성비율을 결정하는 양적 분석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명은 Annex I 에 규정되어 있다.

- 원칙적으로 Annex I에 명시된 섬유 명만 라벨에 사용될 수 있으며 Annex I에 명시된 섬유명은 다른 섬유에 어근이나 형용사로 사용될 수 없다.
- 단, Annex I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섬유 제조자나 위임자는 EU집행위에 신 제품 명을 Annex I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함께 Annex II에 따른 기술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제품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제품도 섬유제품으로 간주
 -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가구, 우산, 양산
 - 겔 표면(upper layers)이나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로 된 floor covering, mattress coverings, coverings of camping goods
 - 특수 구성성분의 섬유제가 다른 제품에 통합되어 한 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 100%의 동일한 섬유로 제조된 섬유제품에만 100% 나 “pure' 또는 ‘all'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 관례적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우수제품의 제조 과정에서(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섬유가 들어 간 경우에 이 다른 섬유의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2% 이상 함유되지 않을 때 100% 나 “pure' 또는 ‘all'을 라벨에 표시할 수 있다. 단, 기술적으로 불가피함을 입증해야 한다.

- 2개 또는 그 이상의 섬유로 만들어진 혼합섬유제품의 경우, 각 구성섬유의 함유 비율(비중기준)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단, 구성섬유가 main lining이 아니며 그 비중이 섬유제품의 전 중량에서 30% 미만일 때에는 라벨에 구성섬유의 비중을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한편, 2개 이상의 섬유제품 요소가 모두 동일한 섬유로 된 것으로 단일 제품(single unit)을 구성할 때 각 섬유유제품마다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이 1개 라벨로 만으로 충분하다.
- 모피나 가죽 등의 동물성 비 섬유제가 함유된 섬유제품의 경우, 라벨에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 신 규정은 2012년 5월 8일부터 발효된다.
- 우리 섬유제품 수출업체는 특히 혼합섬유 제품의 각 섬유 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동 규정에 의한 분석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 수입업체는 섬유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한 서류를 제조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 지적재산권

가. 개요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스페인은 EU 가입 이후 기존 국내제도 대부분을 EU의 통일된 제도에 맞춰오고 있다.

나.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스페인을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허락 받는 방법이다. 유럽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자가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특허제도는 27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체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란 하나의 출원을 통해 등록 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법원이 전담하는 개념이다. 유럽 차원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원천에 있는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여 유럽전역에 걸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협정(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해 1973년에 창설되었으며 스페인을 포함한 38개 유럽 회원국(27개 EU 회원국과 11개 여타 유럽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이며 출원자는 이 3개 공식 언어 중 1개 언어를 선택, 출원할 수 있다. EPO가 출원서류 심사를 거쳐 일단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소유자는 특허 클레임(scope of protection)의 텍스트를 출원 시 선택한 언어 외 나머지 두 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EPO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기에는 충분치 않다. 즉, 대부분의 EPC 협정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으려면 또 다시 각국 특허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특허소유자는 각국 특허청에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각기 상이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하며 각국 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특허 텍스트는 평균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현재 텍스트 한 장당 번역비가 평균 75유로~85유로임을 감안할 때 한 언어 번역비만도 1,500 유로가 넘게 드는데다가 대부분의 회원국은 자국 내 접촉 포인트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대표인 서비스 용역 비용이 추가되고 이외 드는 여타 부수비용을 합하면 EU 13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는데 드는 비용은 13,500 유로에 달하고 27개 전체 EU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35,000 유로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각 회원국 당국에 갱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다가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용할 때 각 회원국 당국에 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유럽특허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것이 큰 단점이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엄청난 유럽특허권의 관리비용을 절감키 위해 유럽국가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2008년에 일명 런던 협정이라는 정부간 협정을 맺고 협정국간 특허 내용의 자국어 번역본 요구를 일부 또는 전면 해제함으로써 특허비용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여전히 자국어 번역본을 요구하고 있어 절름발이 제도라 할 수 있다

○ 런던 협정 가입국

-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한편, EU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EU 공동특허제(EU unitary patent) 도입을 논의해 왔으며,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어 2014년 4월부터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자국어를 공식언어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공동특허제 도입에 반대해 온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번 EU 공동특허제도 대상국에서 제외되어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EU 공동특허제가 도입으로 특허출원 행정 간소화와 비용 절감(80%까지 절감)으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EU 공동 단일특허를 그대로 인정하고 또 다시 각기 상이한 자국의 인정 절차와 자국어 번역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절감되고 R&D와 기술혁신 분야의 투자가 촉진됨으로써 EU 경제성장에 활성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 EU공동 특허제의 주요 내용

- 1회 출원으로 25개 회원국(스페인, 이탈리아 제외)에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됨. 현행 유럽특허제도와는 달리 EU 공동 단일특허를 받은 후에 각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
- EU 공동 단일특허 출원방법은 현행 유럽특허 출원방법과 동일함. 즉 유럽특허청(EPO :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하여 동 기구로부터 일단 특허를 받아 관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동 기구에 유럽특허 등록대장(European Patent Register)에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단일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EU 2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유럽특허청은 단일특허효과를 등록하고 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 갱신비용 지불 등 특허권 유지와 관련된 행정을 취급함.
- 이 같은 단일특허만이 EU 25 회원국에서 동시에 라이선스, 기술이전, 무효화될 수 있음.
- 비용: EU 공동 단일특허는 기존 유럽특허에 기반을 두고 있음. 따라서 유럽특허청에서 EU 단일특허를 관리하며, 출원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에는 기존 유럽특허와 동일하나 소위 말하는 특허권 부여 후 비용(post-grant costs)이 대폭 절감될 것임

- 유럽특허법원 창설로 단일제소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짐. 즉 EU 단일 특허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특허 침해 시 한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제소제도(unified litigation system)의 도입임. 현행 유럽특허의 제소 시스템은 해당 특허권을 인정하는 모든 국가 법원에 병행하여 제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이 큰 결점이었음.

다. 상표권

스페인을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라. 디자인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마.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 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격에 대한 재 판매권 부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재 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절차

스페인으로 운송 시에는 스페인 내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운송 업체를 이용하여 현지 도착 시 통관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통관 시에는 인보이스, Packing List, B/L, C/O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 시기에 맞춰 현지 공식 관세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관 대행 업체(Forwarding Company)가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세관에 접수하고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받고, 수입품을 반입한다. 통관은 통상 7~10일이 소요된다.

스페인 항구까지만 도착하고 현지 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항구를 기준으로 통관 업무 처리가 가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며 이 경우 가급적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선정하도록 한다.

우편물 발송 시 카탈로그나 제품 샘플의 경우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통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따라서 카탈로그인 경우에는 가격을 매기지 않고 카탈로그라고 작성하여야 한다. 최근 재정적자로 세수가 줄면서 스페인 세관의 통관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종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EMS 발송 카탈로그 등도 세관에 계류되는 일이 많아졌으므로, 상업적 가치가 없는 홍보물이라 할지라도 부피가 클 경우 반드시 인보이스를 첨부하여 보내야 빨리 받아볼 수 있다.

세관 구역에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통관, 관련 경비 납부의 순서로 통관이 진행된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수입 완제품에 부과되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통관 후 현지 수입 업체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수입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 후 이를 국세청에 신고 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기타 네덜란드 등 EU 조세 선진국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 통관 전문기업

- Lillo Agencia Transitaria S.L.
 - 전화: +34 963 678 611
 - 주소: C/ Dr. J. J. Domine, 6, 46011, Valencia, Spain
- Taan Comerc
 - 전화: +34 932 984 436
 - 주소: C/ Zona Aeropuerto, Edf. De Servicios Generales, Ofic. B001, 08820, El Prat de Llobregat, Barcelona, Spain
- Agencia de Aguas Vicente Milara
 - 전화: +34 963 24 55 23
 - 주소: C/ Dr. J. J. Domine, 20, planta 6, 46011, Valencia, Spain
 - 홈페이지: www.milara.com

나. 운송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운송 시 항공의 경우 수, 금, 일 주 3회의 대한항공 직항을 이용하거나, 유럽의 주요 거점인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등의 도시를 경유하여 마드리드 및 스페인의 각 도시로 운송되며 이 경우 통상 7일에서 10일이 소요된다. DHL, TNT, OCS 등의 특송업체를 이용할 시에는 2~3일이 소요된다. 선박운송 시에는 바르셀로나나 발렌시아 항구를 주요 이용하며 대략 4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항구 도착 후 통관 작업을 거쳐 국내 운송까지 소요되는 기간까지 감안하여 전체 운송 일정을 예상하여야 한다.

국내 운송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지 에이전트와 협력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에이전트가 따로 없는 경우 절차 진행에 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스페인내 국제항구는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알헤시라스, 빌바오 등 4곳이며 바이어의 소재지와 가장 인접한 항구를 사용하는 것이 내륙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운송하고자 하는 스페인내 지역에 따라 항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착 항구 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스페인 내륙 운송비는 비싼 편으로 바이어 소재지 항구가 아닐 경우에는 내륙 운송료가 선박 운송료와 맞먹는 경우도 발생되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근래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소재 스페인령인 카나리아 군도로의 운송 루트는 Busan-Algeciras-Canaria 군도로의 운송 경로를 이용토록 권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바르셀로나를 경유하는 선박편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1주에 금요일 1편만이 운항되어 대기 물량 대비 운항편 부족으로 2~3주간 보세 구역에 적재되어 납기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창고료 등 부대 경비가 추가 발생되어 바이어의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우리 투자기업인 한진해운에서는 알헤시라스 항구에 스페인 최초의 전자동 화물 복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 운송 전문 업체

○ 한진해운

- 주소: Paseo Alameda, 35, Bis- 1, 46023, Valencia, Spain
- 전화: +34 96 393 9800
- 팩스: +34 96 393 9750
- 홈페이지: www.hanjin.com

○ TTIA

- 주소: Puerto Bahia de Algeciras, Muelles de Isla Verde Exterior, s/n, 11207, Algeciras, Cadiz, Spain
- 전화: +34 95 602 2490
- 홈페이지: www.ttialgeciras.com

○ Logwin

- 주소: Pol. Ind. Anoia Sur, C/ Energia, 15, nave 43, 08635, Sant Esteve Sesrovires, Barcelona, Spain
- 전화: +34 93 771 5900
- 홈페이지: www.logwin-logistics.com

다. 스페인 주요 공항 및 항만

□ 스페인 내 주요 항구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며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모두 맞닿아 있어 총 46개의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8개소의 항만당국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해상운송을 통한 물동량 규모 면에서는 영국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다음이다. 주요 항구로는 북쪽의 바르셀로나, 빌바오, 따라고나, 동쪽의 발렌시아, 남쪽의 까르타헤나, 알헤시라스 등이 있다.

□ 스페인 내 공항 위치



스페인은 총 49개의 공항(헬기장 2개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214만 편('11년 기준, 2012년은 11월 누적기준 180만 편)에 가까운 항공편을 관리 중에 있다. 주요 국제 공항은 수도인 마드리드와 제2의 도시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의 관광 및 산업단지 인근에도 대부분 공항이 위치해 있다.

대한항공은 2012년 12월 기준 서울-마드리드간 직항 노선을 주3회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스페인에 취항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서울-마드리드 직항노선은 월, 수, 금 야간에 인천공항을 출발하며, 마드리드-인천 구간은 화, 목, 토 오전에 바라하스 공항 1터미널에서 출발한다. 직항이 아닌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 런던, 프라하 등 다른 인근 도시를 경유하는 방법이 있다. 스페인 각 공항에 대한 정보는 스페인 공항공사 홈페이지(www.aena.es)에서 볼 수 있으며, 항공편의 출발, 도착 시간 및 터미널을 확인할 수 있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개황

스페인은 1986년 EU 가입 및 2002년 유로존 편입 후 이후 빠른 성장을 거듭해 세계 주요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유럽 내 입지도 넓어져 대외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고속 성장은 그간 스페인이 인근 유럽 강대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이지만, 4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 수에 연간 5천만 명의 관광객 유입이 더해진 잠재력 있는 소비시장이 국가 경제를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정학적 여건, 그리고 중남미 지역과의 역사적인 유대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해당 지역으로의 기업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점도 스페인의 주요 장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2에 의하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2011년 외국인 투자 유치는 EU 27개국 중 5위(1위 벨기에, 2위 영국, 3위 프랑스, 4위 독일)를 기록하였다. 이는 상당부분 스페인의 시장규모와 지리적 우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은 5천만 명의 내수시장과 연간 5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잠재력 있는 소비시장이다. 또한 북아프리카와 중남미, 유럽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공/철도/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아랍문화권과 중남미 지역과 역사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으며 인적교류도 활발하여 해당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편입 이후 물가 및 인건비 급상승, '02년~07년간 계속된 부동산 가격의 급등, 동구권 국가의 EU 가입으로 인한 투자 유치 매력도와 경쟁력의 반감 등 부정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위기 발생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부동산 버블 붕괴, 산업생산 하락, 고실업률, 소비위축 현상으로 인해 최근 2~3년간 국가경제가 후퇴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높은 공공재적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초강도 긴축정책 시행이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으며 부실한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2012년 6월에는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마저 이루어져 당분간 외국기업의 스페인 내 투자활동이 위축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정부 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

스페인은 산업진흥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하향산업 진흥, 지역개발,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차별 없이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스페인 내 위치한 모든 기업들은 각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다. 단, EU집행위는 지역 간의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 지역의 경제규모, 인구수 등에 따라 최대 투자 지원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EU 평균 대비 개인당 GDP,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 지원 인센티브 규모가 크다. 그러나 정부는 높은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2010년 이후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 외국기업의 대 스페인 투자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1)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각 기업의 인재육성 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인센티브이다.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은 사회보장세 공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신청기업에서 전년 사회보장세에 인재육성 명목으로 납부한 액수를 감안해 산정된다. 또한, 기업의 종업원 수에 따라 전체 혹은 일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종업원 수	인센티브 지원
1~5 명	신청기업당 420 유로
6~9 명	육성프로그램 비용의 100%까지
10~49 명	육성프로그램 비용의 75% 까지
50~249 명	육성프로그램 비용의 60% 까지
250 명 이상	육성프로그램 비용의 50% 까지

그밖에, 정규직 진흥을 위해 스페인 정부에서는 정규직 계약 희망 고용주에게 사회보장세 공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때, 피고용인의 조건은 여성, 16~30 세 사이의 청년층, 장기실업자, 45 세 이상의 실업자, 장애인에 국한되며, 피고용인의 조건에 따라 연간 500~6,300 유로의 세금공제라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실업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시에도 연간 600~5,300 유로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R&D 부문

□ PLAN AVANZA2

스페인 정부는 IT 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2015년까지 Plan Avanza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동 정책을 통해 정부는 1) 공공기관에서의 IT 기간 업무 프로세스 혁신 유도, 2) 의료 및 복지 부문에서의 IT 사용 보편화, 3) 교육기관에의 IT 활용도 강화, 4) 각종 통신망 확대 및 강화, 5) 민간기업 내 IT 솔루션 사용 확대 등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 중에 있다.

동 정책에 따라 스페인 중소기업이 IT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희망할 시, 정부는 무이자 3년 상환 기간 조건으로 최대 20만 유로까지 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대학생 및 청년(최대 3000 유로, 무이자 60개월 상환)이나 일반 시민(최대 3000 유로, 무이자 36개월 상환)들도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CDTI R&D 지원 프로그램

스페인 산업기술센터는 2013년까지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통한 생산 프로세스 개선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용자 지원을 제공 중에 있다. 최소 예산규모 20만 유로, 착수 기간 12~36개월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해당 기업은 지원된 용자에 대해 무이자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다) 관광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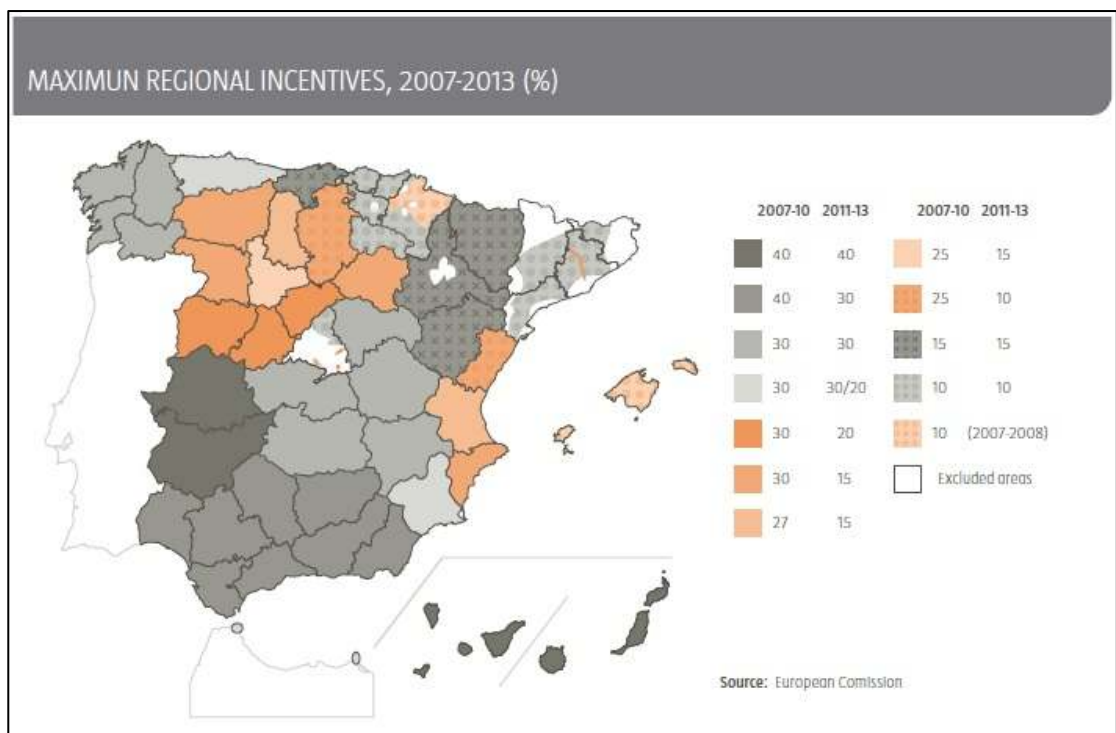
스페인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스페인 정부에선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명	비 고
Linea de Mediacion ICO	○ 기존 관광시설 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 전체 비용의 100%까지 지원(최고 6백만 유로) ○ 고정이자율 0.5%, 15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라) 지역별 인센티브

스페인 내 모든 기업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유럽연합이 지정한 한도 내에서 재정적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투자 보조금, 융자 지원, 사회보장세 공제 등 다양하며, 각 지역간의 경제편차 해소가 주 목적인 관계로 경제 발전이 더딘 지역일수록 해당 기업은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지역별 인센티브 혜택은 유럽 위원회에서 제정한 국가별 지원금 상한선에 의거해 주어지게 되는데, 동유럽 국가의 신규 EU 가입을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스페인의 2007~2013 년 상한선은 전 기간(2000~2006) 보다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Extremadura, Canarias, Andalucia 와 같이 경제성장이 더딘 지역에는 고정 자산 투자액의 최고 40%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그 밖에 Castilla-La Mancha 나 Galicia 주도 최고 30%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방은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라. 투자유지 지원기관

스페인은 Invest in Spain이라는 투자진흥기관을 운영 중이며, 동 기관은 경제부 산하에서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다가 2012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 따라 경제경쟁력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ICEX에 흡수되었다.

- 투자진흥기구(Invest in Spain)
 - 전화: (34)91-503-5800
 - E-메일: investinspain@investinspain.org
 - 홈페이지: www.investinspain.org

2. 외국기업 투자동향

1992년 외국인투자 자유화가 이뤄진 스페인은 2012년 2분기까지 누적기준 총투자 3,871억,¹ 순투자 2,871억 유로의 외국 투자자본을 유치하였다. (2012.12.13일 기준 최근통계)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던 2007~2008년 동안에는 매년 총투자액이 거의 400억 유로에 육박하였으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다소 정체되며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65억, 228억 유로를 유치하는 데에 그쳤다. 2012년 1분기 기준 외국인투자 유치는 2000년대 들어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스페인 내 외국인 투자 유입은 장기적인 국가경제 저성장, 민간소비 위축, 주요 투자국의 경기불안 등으로 인해 당분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외국인 투자유치 총액 추이² (직접투자국 기준)

(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투자	순투자
2001	35,193	28,220
2002	32,937	28,839
2003	18,724	15,203
2004	19,001	9,213
2005	17,690	10,900
2006	13,947	3,721
2007	37,284	26,775
2008	38,851	34,647
2009	16,843	13,302
2010	24,084	21,026
2011	29,081	25,159
2012.3월	4,035	3,502
총 누계 (1993~2012.3)	383,632	285,138

자료: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투자통계

직접투자 기준 누계투자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1993~2012년 1분기까지 총 785억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미국, 영국이 각각 632억, 531억 유로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편, 2012년 1분기 대 스페인 투자가 활발했던 국가는 독일(9.7억 유로), 네덜란드(9.1억 유로), 브라질(7.5억 유로), 룩셈부르크(5.8억) 순이다.

¹ 순투자는 총투자에서 자본재 처분 등 투자회수분을 제외한 금액

² 최종 해외송금국. 즉 가장 마지막에 거쳐 온 해외송금처

주요 국가별 對 스페인 투자 현황(직접투자국, 총투자)

(단위: 백만 유로, 1993~2012년3월 누계 기준)

순위	국가	총누계	2012.3월	2011	2010	2009
1	네덜란드	78,536	909	7,221	10,431	3,676
2	미국	63,243	178	513	1,998	667
3	영국	53,148	30	6,773	1,743	523
4	룩셈부르크	29,652	576	3,923	1,932	1,450
5	이탈리아	26,334	14	239	379	408
6	독일	24,977	974	982	1,825	591
7	프랑스	23,091	37	1,301	1,790	1,274
8	포르투갈	19,852	0	313	222	378
9	스위스	9,010	29	684	218	473
10	캐나다	8,924	9	252	138	141

자료: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산업별로는 1993~2012년 1분기까지 제조업(1,226억 유로), 도소매업(640억 유로), 방송/통신/출판업(522억 유로), 전력/가스/수도(361억 유로) 순으로 외국자본이 집중되었다. 한편, 2011년에는 금융/부동산업(69억 유로), 제조업(61억 유로), 방송/통신/출판업(54억 유로) 등에서 주로 투자가 발생하였다.

주요 산업별 對 스페인 투자 현황(총투자)

(단위: 백만 유로, 1993~2012년3월 누계 기준)

산업	총누계	2012.3월	2011	2010	2009
농림축수산업	2,730	150	178	470	388
광업	3,384	1	280	113	606
제조업	123,796	875	6,141	12,240	6,629
전력/가스/수도	36,999	919	1,367	1,413	725
환경/폐기물처리	228	0	29	1	-
토목/건설업	12,936	108	920	727	705
도소매업	64,580	444	1,276	1,829	1,919
교통/우편/물류	11,584	61	4,514	2,034	954
숙박/요식업	5,332	17	319	139	146
방송/통신/출판	52,331	43	5,433	563	1,621
금융/부동산	47,169	1,249	6,868	2,946	2,202
서비스	13,820	45	744	1,328	443
공공/행정/교육	2,634	23	30	79	61
의료/보건	773	100	19	29	13
기타	3,191	1	298	96	407
누계	383,632	4,035	29,081	24,084	16,843

자료: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 기업 투자 통계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누적 신고금액은 1980년부터 2012년 3분기까지 총 9억 5,845만 달러이다. 대 스페인 투자는 한국기업의 스페인 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대 스페인 투자가 급감한 바 있으나, 2002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2001년 이후 10년간 우리기업의 대 스페인 투자는 대 스페인 투자 총누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대 스페인 우리기업 투자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신고기준 3억 3,700만 달러로 최대 수치를 기록 하였다.

연도별 對 스페인 투자 신고 현황

(단위: U\$천, 1980~2012.9월)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총누계
신고건수	5	8	10	14	12	14	132
신고금액	25,470	30,525	113,755	55,873	337,115	131,268	958,453
투자금액	7,379	16,199	114,230	56,019	47,605	326,493	783,49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현지법인기준)

나. 우리 주요 투자 기업 및 업종, 지역별 투자 동향

투자 진출 업종은 투자 도착금액 기준으로 건설업(37%)과 도소매업(25%), 운수업(13%), 제조업(1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마드리드 및 바르셀로나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주요 투자 기업으로는 가전3사 및 완성차, 타이어 등 도소매업종이 주를 이루나, 한진해운(운수업-화물터미널), KFP(금속부품 제조), GS 건설(수처리 및 엔지니어링), SK 루브리컨트(윤활유 제조) 등 진출분야가 다변화되고 있다.

SK 루브리컨트는 스페인 최대 정유사 Repsol 과 합작으로 스페인 카르타헤나 지역에 윤활유 공장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11월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14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세계 윤활유 소비량의 20%, EU 소비량의 약40%까지 소화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게 된다.

업종별 투자진출 현황

(단위: U\$천, 1980~2012.9월 누계)

업종분류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합계	132	958,453	783,493
농업, 임업 및 어업	2	430	370
광업	13	109,353	53,663
제조업	32	98,796	82,988
건설업	4	377,730	291,537
도매 및 소매업	33	209,257	194,340
운수업	20	100,893	100,636
숙박 및 음식점업	14	4,087	3,13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4,490	2,159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4,075	44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49,298	49,29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130	1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현지법인기준)

한국의 對 스페인 주요 투자기업 현황

투자기업명	현지법인명	업종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IBERIA, S.A.	가전, 정보통신기기
LG 전자	LG ELECTRONICS ESPANA S.A.	가전, 정보통신기기
대우일렉트로닉스	DAEWOO ELECTRONICS ESPANA S.A.	전기, 전자제품
현대자동차	HYUNDAI ESPANA S.A	자동차
기아자동차	KIA MOTORS IBERIA S.A	자동차
쌍용자동차	SSANGYONG ESPANA S.A.	자동차
현대모비스	MOBIS PARTS EUROPE ESPAÑA (MPE-E)	자동차 A/S 부품
한국타이어	HANKOOK ESPANA S.A.	타이어
금호타이어	KUMHO EUROPE GMBH, ESPANA	타이어
세라젬	CERAGEM SPAIN S.L.	의료기
메디슨	MEDISON ESPAÑA	의료기
이노션	INNOCEAN WORLDWIDE SPAIN, INC	광고, 홍보
제일기획	CHEIL WORLDWIDE	광고/프로모션
대한항공	KOREAN AIR	항공
한진해운	HANJIN SHIPPING (SPAIN) CO., LT.D	화물운송
범한판토스	PANTOS LOGISTICS SPAIN S.L	운송
KPF	KOREA PARTS & FASTENERS ESPAÑOLA, S.L	금속부품
삼성물산	SAMSUNG GMBH DUETSCHLAND SUCURSAL EN MADRID	무역, 건설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 CORP	무역
효성물산	HYOSUNG CORPORATION BARCELONA	무역, 섬유, 화학
GS 건설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 ESPAÑA	건설
SK 루브리컨트	SKSOL LUBE BASE OILS SA	제조업(윤활유)

자료: 마드리드무역관 보유자료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정책 기본방향

스페인 내 투자 관련 법규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관련 법령인 Royal Decree 664/1999와 외환관리 및 자본이동 자유화에 관한 Royal Decree 1816/1991 및 기타 후속 수정령 42/1993, 1638/1996이 있다.

스페인 투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은 외국인의 직접적인 투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해 지역간의 균등발전을 꾀하며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미주 및 아시아 지역 투자자본을 적극 유치해 외국인 투자 경로를 다원화 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와 스페인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 유지 및 시장자유주의 구현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해외투자 신고 절차 등을 동일하게 간소화하고 있다.

스페인은 법령 Royal Decree 664/1999로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종류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였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행위에 대한 사전허가 의무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사후신고 의무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1)조세 피난처(Tax Heaven)로부터 투자, (2)국가안보와 직접 연관된 해외투자 및 비 EU 회원 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및 광물 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해당 산업별 특별법이 지정한 특허청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 해야 한다.

한편, 스페인 무역투자청(DGCI)은 스페인 내 외국인 투자자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지사를 대상으로 투자와 관련된 연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령 주요 사항

- 외국인 투자자의 정의: 스페인 내에 거주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국민과 외국인을 지칭한다.
- 외국인 투자 형태: 외국인 투자자가 1) 스페인 기업의 지분 매입 시, 2) 스페인 내 지사 설립 혹은 확장 시, 3) 스페인 거주인(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어음 등을 소유 시, 4) 스페인 금융감독당국(CNMV)에 가입된 투자펀드에 참여 시, 5) 스페인 내 부동산을 3,005,060 유로 이상 매입 시, 6) 스페인 내에서 3,005,060 유로 규모 이상의 이익공통계약을 작성 혹은 참여 시 외국인 투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인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사후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단, 1) 외국인 투자자본이 조세천국 지역에서 유입 되거나, 2)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된 해외투자 및 비 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당국에 사전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및 광물 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해당 산업별 특별법이 지정한 특허청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 해야 한다.

- 그 밖에, 스페인 무역투자청(DGCI)은 스페인 내 외국인 투자자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지사를 대상으로 투자와 관련된 연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해외투자 관련 법령 주요 사항

- 해외 투자가의 정의: 스페인 내에 거주 신고가 되어 있는 자국인과 외국인을 지칭한다.
- 해외 투자 형태: 스페인 투자자가 1) 해외 기업의 지분 매입 시, 2) 해외 지사 설립 혹은 확장 시, 3) 스페인 비거주인(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어음 등을 소유 시, 4) 해외 투자펀드에 참여 시, 5) 해외 부동산을 1,502,530 유로 이상 매입 시, 6) 해외 1,502,530 유로 규모 이상의 이익공통계약을 작성 혹은 참여 시 해외 투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해외 투자 신고: 스페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는 일반적으로 사후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조세천국 지역으로의 투자 시에는 당국에 사전적으로 투자 신고를 해야 한다.

3) 사후신고 대상기업

외국 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투자에 대한 사후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 스페인 기업의 지분 매입 시
- 스페인 내 지사 설립 혹은 확장 시
- 스페인 거주인(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어음 등을 소유 시
- 스페인 금융감독당국(CNMV)에 가입된 투자펀드에 참여 시
- 스페인 내 부동산을 3,005,060 유로 이상 매입 시. 단, 투자 자본이 조세 피난처 지역에서 비롯되었을 경우, 투자금액과 상관 없이 사후신고를 해야함
- 스페인 내에서 3,005,060 유로 규모 이상의 이익공통계약을 작성 혹은 참여 시. 단, 투자 자본이 조세 피난처 지역에서 비롯되었을 경우, 투자금액과 상관 없이 사후신고를 해야함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상 분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다음과 같이 재분류된다.

회사유형	주주 수	자본금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최소 1인	최소 60,000유로
유럽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EUROPEA)	최소 1인	최소 120,000유로
유한회사(SOCIEDAD LIMITADA)	최소 1인	최소 3,000유로
신규유한회사(SOCIEDAD LIMITADA NUEVA EMPRESA)	최소 1인 - 최대 5인 (최초 발기시)	3,000유로-120,000유로

1) 주식회사

☐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S.A.)

-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서,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출자자, 즉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법정 최소 자본금은 60,000 유로이며 설립 당시 각 액면 주식 당 25%를 지불해야 함. 자본금 납입 시 현금의 경우 유로로 납입해야 하며, 현물의 경우 제 3의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측정가가 요구된다.
- 나머지 자본금은 현금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현물인 경우 설립 후 5년 이내에 납입 해야 한다.
- 발기인(초기 투자자) 수에 대한 최소 규정은 없으나, 이사진은 최소 3명 이상으로 제한된다.
- 주식양도가 자유로우며, 상장에 관한 규정은 업종이나 투자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 설립 예정인 주식회사는 ‘스페인 신분증 번호’를 소지한 대표자나 법정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나 법정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우선 외국인등록번호(NIE)를 획득해야 한다.

☐ 유럽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Europea, S.E)

- 일반 주식회사의 변형된 형태로 유럽연합 내의 여러 국가에서 활동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 각 나라마다 회사를 설립할 필요 없이 유럽연합 법률만을 적용하는 통일된 관리 시스템의 기업이다.
- 법정 최소 자본금은 120,000 유로이며 주식관련 규정은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2) 유한회사

☐ 유한회사(Sociedad Limitada, S.L.)

-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이다.
- 법정 최소자본금은 3,000유로 이상이며 설립 당시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증자할 경우 이를 공증해야 하며, 자본금을 현물로 납입 시에는 주식회사와 달리 제 3자의 독립기관의 측정 보고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이사진은 최소 3명, 최대 15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 지분양도가 자유롭지 않지만, 회사 정관 개정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신규유한회사(Sociedad Limitada Nueva Empresa, S.L.N.E)

- 유한회사의 변형된 형태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설립 자격 요건을 최소화한다.
- 법정 자본금이 최소 3,000 유로에서 최대 자본금 120,000 유로로 제한되며, 자본금은 현금으로만 납입이 가능하다.
- 설립시 발기인이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나 후에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3) 기타

☐ 합명회사 (Sociedad Regular Colectiva, S.R.C)

-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사원 전원이 회사 채무에 직접 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이에 대응하여 각 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 및 대표권을 가진다.
- 형식상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원 상호 간의 계약적 결합의 면을 무시할 수 없는 조합적 성질을 지닌다.

☐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Com)

-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조직되는 기업의 형태인데, 합명회사보다 광범위한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기업 경영은 무한 책임을 지는 출자자가 담당하며 유한 책임을 지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받는다.
- 법정 최소 자본금은 주식회사와 같이 60,102 유로이다.

□ 1인 투자회사 (Sociedad de Accionista Unico, o Socio Unico)

- 1인 투자가만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를 가리키며, 그 특성이 주식회사일 경우 Sociedad de Accionista Unico, 유한회사일 경우 Socio Unico라 함.
- 1인 투자회사 형태는 관련된 특별규정에 따라 등록/운영되며, 회계/세무적인 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나. 투자형태별 분류

1) 현지법인

- 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합명회사, 1인 투자회사가 법인에 속한다.
- 법적으로 본사와 다른 독립적인 기업이며 운영도 독립적인 특징이 있다.

2) 지점 (Sucursal)

- 법인과 달리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자본금 납입 규정에 관해 주식회사와 같이 현금납입은 유로로 하며 현물납입은 독립적인 기관의 측정가를 필요로 한다.
- 본사를 대표해 스페인에서의 수출입, 판매 등 모든 영업활동을 이행하지만, 대부분의 운영에 있어 본사에 의존하는 성격이 짙다.

3) 연락 사무소 (Oficina de Representacion)

- 법적으로 본사에 완전히 종속된 기업으로, 스페인 내 직접적인 판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마케팅 및 판촉 등의 부수적인 영업행위만 허용된다.

다. 투자주체별

1) 단독투자

- 단독 투자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있다.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나 최근 유한회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공동투자

- 스페인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업과 공동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적은 위험부담과 자원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동투자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스페인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일시적 기업 연합(Unión Temporal de Empresas: UTE)

- 스페인 국내법에 따르면 일시적 기업 연합은 특정 또는 불특정 기간에 특정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함께 활동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엔지니어링 또는 건설 분야 프로젝트에 많이 활용된다.
- UTE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단지 공증 후 경제부와 재무부 UTE 대장에 등재되며 그 외 상업 등기소에 등재될 수도 있음.
- 일반 기업과 같이 문서 보관이나 회계 요건 등은 준수해야 한다.

□ 경제적 이익 그룹(Agrupación de Interés Económico: EIG)

- EIG는 독립된 하나의 법인격을 갖는 하나의 법인체인 점에서 UTE와는 상이하다.
- EIG는 그룹 구성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설립되므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자체 이익추구가 아닌 구성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 일반적으로 기업체 조합이나 협회의 설립형태로 볼 수 있다.

□ 스페인 기업과 참여회계 협정(Contrato de cuenta en participación) 체결

- 관리기업(Manager-participant)이 수행하는 특정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투자 기업(Investor-participant)이 관리 기업에게 자금 또는 기타 다른 목적물을 제공하고 서로 재정적 협력을 이루는 형태의 협정이다.
- 특별한 법률적 형식을 요구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에 공증 또는 3자 보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합작회사(Joint Venture) 설립

- 스페인의 기존 회사와 합작 투자 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자본의 공동 출자를 통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를 띤 새로운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반드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스페인기업과 연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 시장에 진출하여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유통 계약도 검토할 수 있는데 유통 계약(Distribution Agreement)체결, 독점 에이전트 운영, 커미션 에이전트 운영, 프랜차이즈 등이 대표적이다.

라.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1) 법인(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 비용
1	설립요건	법정 최소 자본금: - 주식회사: 60,000 유로 - 유한회사: 3,000 유로	- 주식회사: 자본금은 설립시 주식 액면가의 25% 지불, 75%는 설립신고서에 가입하는 기간 내에 지불 - 유한회사: 설립시 자본금 전액 지불		총 6~8주 소요
2	상호 신청	상호 예약 증명서 (Certificado de reserva de denominacion)	예약신청 후 6개월 동안 유효	상업등기소 (Registro Mercantil Central) www.rmc.es	
3	새로운 회사창립 동의서	투자자들 간의 새로운 회사창립 동의서로 회사유형, 창립목적, 초기 자본금, 회사주소 등 기본적 정보기입	임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얻는 데에 쓰이므로 후에 정식 등록 시 내용변경 가능		
4	임시 사업자 등록번호	자산이전에 대한 세금 납부와 회사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 단계	설립 등록이 완료된 기업은 임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정식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 받음	관세청 (Delegacion deHacienda) www.aeat.es	무료
5	회사설립 신고서 작성	설립목적, 자본금, 회사정관, 임원, 상호, 영업내용, 회계 년도 등과 같은 내용 포함	공증인을 통해 작성하고 공증 받아야 함	공증사무소	
6	외국인 투자 등록서 입수	외국인 투자등록서 (Declaracion de Inversion al Registro de Inversiones Extranjeros) 입수		경제재무부의 상업과 투자 부서 (la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e Inversiones)	
7	자본금 납입 증명서	자본금 현금납입을 해당은행서류로 증명, 회사 설립 신고서 작성시 공증인에게 제출		은행	-
8	노동허가증 신청	유럽연합 국적이 아닌 설립자가 스페인에서 일하려면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함		해당 지역의 외국인관리소 (Extranjeria)	3개월 소요
9	자산이전세 납부	상업등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	설립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납부	소재지 관할 세무서(Agencia Tributaria)	자본금의 1%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 비용
10	상업등기	2~8번까지 해당 구비서류 일체		상업등기소 (Registro Mercantil Central) www.rmc.es	자본금 3005유로 일 경우 6.01유로, 그 이상일 경우 0.1~0.005 %, 비용의 상한선은 2181유로
11	외국인 투자 신고	투자금액이 6,000 유로 이상인 경우 투자신고를 해야 함	투자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제재무부의 상업과 투자부서 (la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e Inversiones)	
12	법인세 등록	경제활동에 대한 세금 (Impuestos sobre Actividades Economicas) 즉 법인 세 납부를 위한 등록	설립 후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완료해야 함	소재지 관할 세무서 (Agencia Tributaria)	
13	부가세 등록	부가세(IVA) 납부 및 환급을 위한 등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 (Agencia Tributaria)	
14	개업허가서	개업허가서 (Licencia de Apertura)		관할시청	관할시청 마다 상이
15	사회보험 등록	사회보험(Seguridad Social)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 해당	회사 사회보험 번호 등록 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 신청	소재지 사회 보장청 (Seguridad Social) www.seg- social.es	

2) 지사

-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나 최소 자본금 불입 의무가 없고, 회사 설립 신청서 작성시 본사의 존재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가 추가된다.
- 본사관련 서류: 본사 사업자 등록서(번역/공증/아포스티유), 관리자 이름 및 개인정보, 본사로부터 받은 지사 승인서(번역/공증/아포스티유)

3) 연락 사무소 (Oficina de Representacion)

- 상업등기소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
- 사회보험, 세금, 고용과 관련해 본사의 연락사무소 승인서가 요구된다. 동 서류는 연락사무소 개업, 자본금(해당경우), 사무소 대표인(법인 혹은 자연인)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며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마쳐야 한다.

바.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 DELOITTE
 - 주소: Plaza de Pablo Ruiz Picasso 1, Torre Picasso 28020 Madrid, SPAIN
 - 전화: (34)91-514-5000
 - 팩스: (34)91-514-5180
 - 홈페이지: www.deloitte.es
- PRICEWATERHOUSE COOPERS
 - 주소: Edificio Marañón Paseo de la Castellana, 259B 28046 Madrid, Spain
 - 전화: (34)90-202-1111
 - 홈페이지: www.pwc.es
- ERNST & YOUNG
 - 주소: Plaza Pablo Ruiz Picasso, 1 Torre Picasso 28020 Madrid, Spain
 - 전화: (34)91-572-7200 /91-572-7580/91-572-7370
 - 팩스: (34)91-572-7238 /91-572-7270/91-572-7400
 - 홈페이지: www.ey.com
- KPMG
 - 주소: Paseo de la Castellana, 95 Edificio Torre Europa 28046 Madrid, Spain
 - 전화: (34)91-456-3400
 - 팩스: (34)91-555-0132
 - 홈페이지: www.kpmg.es
- SALVADOR FERRANDIS & PARTNERS
 - 주소: Velázquez 146. 1º Derecha, 28002, Madrid, Spain
 - 전화: (34)91-564-2300
 - 팩스: (34)91-563-3538
 - 홈페이지: www.sfplegal.com
- AMYA ABOGADOS
 - 주소: C/ Princesa, 61, 5, 28008, Madrid, Spain
 - 전화: (34)91-548-8328
 - 팩스: (34)91-548-8256
 - 홈페이지: www.amya.es
- AFFIRMA
 - 주소: Paseo de la Castellana, 259-C, Torre de Cristal, planta 18, 28046, Madrid, Spain
 - 전화: (34)902-88-88-72
 - 홈페이지: www.affirmasociedades.com
- CONSULTING F
 - 주소: Avenida del General Peron, 16, Madrid, 28020, Madrid, Spain
 - 전화: (34)915-360-268
 - 팩스: (34)915-988-129
 - 홈페이지: www.consultingf.com

사. 현지 한국인 변호사 (투자 진출 컨설팅 및 업무 대행)

- 이윤교 변호사
 - 전화: (34)91-564-2300
 - 이메일: yklee@sfplegal.com
 - 홈페이지: <http://www.sfplegal.com/es/equipo/yoon-kyo-lee-pablo/>
- 이서후 변호사
 - 전화: (34)91-750-3325
 - 이메일: info_contackorea@ono.com/alexlk@ono.com
 - 홈페이지: www.contacspain.com
- 장우성 변호사
 - 전화: (34)92-826-6432
 - 이메일: changws@telefonica.net
- 주민애 변호사
 - 전화: (34)92-822-9644
 - 이메일: jooandmelado@gmail.com

6. 투자입지여건

가. 자유무역지역(FTZ)

스페인에는 총 4개의 자유무역지역(바르셀로나, 비고, 까디스, 까나리아스)가 위치하고 있다. 타 국가와 같이, 스페인 내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세, 부과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 중에 있다.

한편, 까나리아스 제도는 자유무역지역(FTZ)와 특별경제구역(SEC)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동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세, 부과세 면제뿐만 아니라 SEC 지정기업에 한해 법인세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 까나리아스(Canarias) 제도 자유무역지역 및 특별경제구역
 - 전화: (34)647-351-515
 - 홈페이지: www.zonafranca.org
 - FTZ 기업유치 관련, 별도의 지원정책 없음
 - 특별경제구역(SEC) 지정기업으로 선정 시, 4%의 특별 법인세 적용. 또한, 까나리아스 내에서 제조산업에 종사할 시, 일반 법인세(30%)의 절반까지 감액. 회사설립 및 자본확대, 자본재 투자 관련 세금 면제 가능
- 비고(Vigo) 자유무역지역
 - 전화: (34)986-269-700
 - 홈페이지: www.zonafrancavigo.com
 - 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Centro de Iniciativa Empresarial)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 지원
 - 수혜대상: 창립 1년 미만 신생기업, 실현 가능한 영업 프로젝트 제시 가능 기업, 소매업 종사 기업 제외,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사 제외

- 까디스(Cadiz) 자유무역지역
 - 전화: (34)901-227-227
 - 홈페이지: www.zonafrancacadiz.com
 - 장기 임대 및 대형부지 임대, 수출입 종사기업 등을 대상으로 5~20% 임대료 할인
 - 임대료 할인 세부사항
 - * 1년 이상 임대: 5% 할인
 - * 500m² 이상 부지 임대: 5% 할인
 - * 2000m² 이상 부지 임대: 5~15% 할인
 - * 4000m² 이상 부지 임대: 10~30% 할인
 - * 수출입 종사기업: 5~20% 할인
- 바르셀로나(Barcelona) 자유무역지대
 - 전화: (34)93-263-8111
 - 홈페이지: www.elconsorci.net
 - 기업유치를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 없음

나. 지역별 투자 여건

스페인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법령(law 50/1985)에 근거해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에 대한 구별 없이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중에 있다. 특정 지자체나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지원방식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현금지원 및 사회보장세 감면 방식으로 투자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자체가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공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나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투자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지역 특성, 시행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 별 투자지원 관리기관에서 신규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시, 해당 프로그램만을 위한 시행령이 별도로 제정되어 인센티브 수혜 조건 및 절차, 지원대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된다.

단, EU집행위는 지역 간의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 지역의 경제규모 및 인구수 등에 따라 최대 투자 지원금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즉, 각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EU집행위에 국가지원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National Regional Aid for 2007~2013)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통과를 받아야만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 이로 인해 EU 평균 대비 각 지역의 개인당 GDP,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 지원 인센티브 규모가 크다. 스페인의 경우, 각 지역의 경제수준 및 인구수준에 따라 투자액의 최대 40%에 한하는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

다. 각 자치주 별 투자 유치 전담 기관

- 기능: 지역 개발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 등 업무 수행
- 수행 업무 내역
 - 지역 내 해외 투자 업체 유치를 위한 해외 투자 유치 사절단 파견, 세미나
 - 개최, 투자 희망 업체 투자 조사 지원, 해당 지역 투자 정보 제공
 - 기술연구소(Technology Park) 내 업체 유치 활동
 - 산업 공단 개발 및 조성
 - 물류 현대화 사업
 - 지역 산업 개발 프로그램

- 기업 국제화 지원
 - 산업 디자인 개발 지원
 - 중소기업 종합 금융 서비스
- 안달루시아(Andalucia)
 - 기관명: 안달루시아혁신개발공사(Agencia de Innovación y Desarrollo de Andalucía)
 - 주소: C/Torneo, 26 41002 Sevilla, Spain
 - 전화: (34)95-503-0700
 - 팩스: (34)95-503-0798
 - 홈페이지: www.agenciaidea.es
 - 아라곤(Aragon)
 - 기관명: 아라곤개발청(Aragon Exterior, AREX)
 - 주소: C/ Alfonso I, 17, 5, 50003, Zaragoza, Spain
 - 전화: (34)97-622-1571
 - 팩스: (34)97-639-7161
 - 홈페이지: www.aragonexterior.es
 - 아스투리아스(Asturias)
 - 기관명: 아스투리아스경제개발청(IDEPA: Instituto de desarrollo Económico del Principado de Asturias)
 - 주소: Parque Tecnológico de Asturias 33428 Llanera(Asturias), Spain
 - 전화: (34)98-598-0020
 - 팩스: (34)98-526-4455
 - 홈페이지: www.idepa.es
 - 발레아레스군도(Balearic Islands)
 - 기관명: 발레아레스 산업진흥소(Instituto de Innovación Empresarial)
 - 주소: C/ Cami de son Rapinya, s/n, 07013, Palma de Mallorca, Spain
 - 전화: (34)97-117-6055
 - 팩스: (34)97-178-4865
 - 홈페이지: www.idi.es
 - 카나리아군도(Canary Islands)
 - 기관명: 카나리아스 경제촉진공사(PROEXCA, Sociedad Canaria de Fomento Económico)
 - 주소: C/ Nicolas Estevanez, 30 B, 2, 35007, Las Palmas de Gran Canaria, Spain
 - 전화: (34)92-830-7450
 - 팩스: (34)92-830-7467
 - 홈페이지: www.proexca.es
 - 칸타브리아(Cantabria)
 - 기관명: 칸타브리아지역개발공사(SODERCAN: Sociedad para el. Desarrollo Regional de Cantabria)
 - 주소: C/ Isabel Torres, 1, 39011, Santander, Spain
 - 전화: (34)94-229-0003
 - 팩스: (34)94-276-6984
 - 홈페이지: www.sodercan.com

- 카스티야-레온(Castilla-Leon)
 - 기관명: 카스티야-레온 해외진흥청(EXCAL: Promocion Exterior de Castilla y Leon)
 - 주소: C/ Jacinto Benavente, 2, Arroyo de la Encomienda, 47195, Valladolid, Spain
 - 전화: (34)98-329-3966
 - 팩스: (34)98-320-9803
 - 홈페이지: www.excal.es

- 카스티야-라만차(Castilla-La Mancha)
 - 기관명: 카스티야-라만차 해외진흥청(IPEX: Instituto de Promoción Exterior de Castilla-La Mancha)
 - 주소: P.I. Santa María de Benquerencia, C/Rio Cabriel, s/n, 45071 Toledo, Spain
 - 전화: (34)92-525-9100
 - 팩스: (34)92-525-9137
 - 홈페이지: www.ipex.es

- 카탈루냐(Cataluña)
 - 기관명: 카탈루냐 해외진흥청(ACCIO)
 - 주소: Pg. de Gràcia 129, 08008 Barcelona, Spain
 - 전화: (34)93-476-7200
 - 팩스: (34)93-476-7303
 - 홈페이지: www.acc10.cat

-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
 - 기관명: 엑스트레마두라 산업개발공사 (SOFIEX: Sociedad de Fomento Industrial de Extremadura)
 - 주소: Avda. Jose Fernández López, 4 06800 Merida, Spain
 - 전화: (34)92-431-9159/431-9179
 - 팩스: (34)92-431-9212
 - 홈페이지: www.sofiex.es

- 갈리시아(Galicia)
 - 기관명: 갈리시아 경제 진흥청(IGAPE: Instituto Gallego de Promocion Economica)
 - 주소: Complejo Administrativo de San Lázaro, s/n 15703, Santiago de Compostela, Spain
 - 전화: (34)98-154-1147
 - 팩스: (34)98-155-8844
 - 홈페이지: www.igape.es

- 리오하(La Rioja)
 - 기관명: 리오하 경제개발공사(Ader: Agencia de Desarrollo Económico de la Rioja)
 - 주소: C/Muro de la Mata, 13-14, 26071 Logroño, Spain
 - 전화: (34)94-129-1500
 - 팩스: (34)94-129-1543
 - 홈페이지: www.ader.es

- 마드리드(Madrid)
 - 기관명: 마드리드경제개발공사(Promomadrid Desarrollo Internacional de Madrid, S.A)
 - 주소: C/ Suero de Quinones, 34, 4, 28002, Madrid, Spain
 - 전화: (34)91-745-0127
 - 팩스: (34)91-411-0913
 - 홈페이지: www.promomadrid.com
- 무르시아(Murcia)
 - 기관명: 무르시아지방개발청(Instituto de Fomento de la Region de Murcia)
 - 주소: Avda. De la Fama nº3, 30003 Murcia, Spain
 - 전화: (34)96-836-2800
 - 팩스: (34)96-836-2821
 - 홈페이지: www.ifrm-murcia.es
- 나바라(Navarra)
 - 기관명: 나바라개발공사(SODENA: Sociedad de Desarrollo de Navarra)
 - 주소: Avda. Carlos III, 36-1D 31003, Pamplona, Spain
 - 전화: (34)94-842-1942
 - 팩스: (34)94-842-1943
 - 홈페이지: www.sodena.com
- 발렌시아(Valencia)
 - 기관명: 발렌시아수출청(IVEX: Instituto Valenciano de la Exportacion)
 - 주소: Pl. America, 2-7 46004 Valencia, Spain
 - 전화: (34)96-197-1500
 - 팩스: (34)96-197-1540
 - 홈페이지: www.gva.es
- 빠이스 바스코(Pais Vasco)
 - 기관명: 산업 진흥 및 현대화 공사(SPRI: Sociedad para la Promocion y Reconversion Industrial S.A)
 - 주소: C/ Alameda de Urquijo, 36, 4, Edificio Plaza Bizkaia, 48011, Bilbao, Spain
 - 전화: (34)94-403-7000
 - 팩스: (34)94-403-7022
 - 홈페이지: www.spri.es
- 멜리야(Melilla)
 - 기관명: 멜리야 진흥청(Melilla Promocion)
 - 주소: C/ La Dalia, 26, P.I. SEPES, 52006, Melilla
 - 전화: (34)95-267-9804
 - 팩스: (34)95-267-9810
 - 홈페이지: www.promesa.net

7. 노무 관리

가. 노동 여건 개관

부동산 거품 붕괴 및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도산하거나 감원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신규채용이 감소하면서 스페인은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다. 2012년 2분기 기준 실업률은 25.6%에 이르렀으며, 청년실업률은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EU의 재정적자 상한선 준수와 더불어 고용창출이 스페인의 정부의 금년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본래 스페인은 노동법(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으로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들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 요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노동법이 정하는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업종, 지역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고용주의 부담이 노동법의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근로자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관행이 강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 보니 기업들이 신규 고용창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11년말 집권한 국민당 신정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고용창출 지원책 마련, 직업훈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안을 2012년 2월에 통과시켰으며, 2012년 7월에 해당 개혁안에 따른 노동법 개정을 완료하였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퇴직금 축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절차 간소화 등 해고부담 완화, 경영사정을 고려한 인력 조정/재배치의 유연성 제고 및 신규채용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노동개혁으로 개별기업의 노사협약이 업종, 지역별 상위 노조의 단체협약에 우선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단체협약이 우선시되는 관행에 큰 변화를 주고 있지는 못하다.

나. 고용

스페인에서 특별한 고용 절차는 없으나 노동부 산하 고용청(INEM), 인력파견회사(ETT), 헤드헌터, 온라인 또는 신문 구인 광고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 계약을 하면 된다. 2012년 노동개혁으로 개별 기업의 노사협약이 업종, 지역 등 상위 단체협약을 우선하게 되었으나, 기업 규모가 작고 관련 지침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 상위 협약의 조건을 따라야 하는 등 현지 규정 준수를 위해 가급적 현지 변호사, 노무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 고용 계약 자문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 고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노동허가가 없는 외국인(유학생 등)의 고용도 금지되어 있다.

다. 근무/휴일/휴가 제도

근무시간은 단체협약 또는 개별고용계약에 명시되는데 법정 최대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최소 주당 하루 반 이상의 휴일이 주어져야 하는데 유통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간 법정 근로 시간 준수를 위해 토, 일요일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매년 30일 유급휴가(자연일수 기준, 근무일수 기준으로는 22일)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외 이사 1일, 결혼 15일(자연일수 기준), 자녀출산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 사고, 입원, 중병, 수술후 요양 등의 경우 2~4일, 공무(병역 등) 휴가, 출산 16주, 수유 1일 1시간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밖에, 하기 근무실시가 보편화되어 있어 주로 6월 말 또는 7월부터 8월 말 또는 9월까지 단축 근무(점심 시간 이전까지만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계 단축근무 실시가 보편화되어 있어 주로 6월 말 또는 7월부터 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는 점심시간 없는 집중근무제를 채택하여 단축 근무(오후 2-3시 퇴근)를 실시하고 있다.

한 편, 업종별로 교대근무, 휴일 근무제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휴일 및 근무 시간에 대한 적용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근무시간 및 휴일 등에 대한 규정은 자사가 속해있는 단체 노사협약의 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라. 임금

기본급 12개월 이외 상여금을 상여금을 6월 및 12월에 100%씩 지급함으로써 연간 14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별로 단체 협약에 의해 12개월 지불 방식도 선택이 가능하다. 단 이는 14개월 치를 12개월로 나누어 지불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금액상 차이는 없다. 인건비 개념으로 급여 이외 사회 보장세를 36.25%(고용주 29.9%, 고용인 6.35%) 납부해야 한다.

업종에 따라서는 단체 협약에 의거하여 6월과 12월 상여금 지급 외에도 정기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사가 속해있는 단체 노사협약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건비 개념으로 급여 이외 사회 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세는 직원 급여의 36.25%로, 급여 외에 고용주가 추가로 29.9%를 부담하고, 근로자 급여의 6.35%를 직원 자기부담금으로 원천징수하여 매월 납부한다.

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24%~45%(2012-2013년은 한시적으로 24.75%~52% 적용, 마드리드 기준)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후 분기별로 대납한다.

마. 초과 근무 수당

초과 근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근무시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 수령 또는 초과 근무시간만큼의 대체휴무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체휴무는 초과 근무 이후 4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단체 협약 또는 개별 계약으로 사전에 정해진다. 통상 정상 급여의 50%~75%선에서 정해지며, 소속 업종, 지역 노조의 단체 협약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12년 노동개혁으로 개별 기업의 노사협약이 상위 단체, 업종 협약을 우선하게 되었으나,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상위 노조의 단체협약이 우선시되고 있다. 초과근무 내역은 매일 기록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합산하여 지급하고 세부내역을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에는 임시직 근로자의 초과근무가 불가하였으나, 2012년 2월 개정 노동법은 임시직원에 대해서도 연 80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단,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전일 근무자와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초과근무 가능 시간도 축소된다. 만18세 이하의 초과근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바.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스페인은 자진퇴직시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미사용 휴가보상금 및 법정상여분을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단, 직원 해고시에는 미사용 휴가보상금 및 법정상여분 월할계산액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고직원 퇴직금 산정기준

신규채용직원 (2012.2.12 이후)	33일분 급여 x 근속년수, 최대 24개월분 급여 한도
기존근무직원	Mixed Rule 적용 ‘12.2.12일 이전: 45일분 급여 x 근속년수 ‘12.2.12일 이후: (33일분 급여 x 근속년수) 최대24개월분 급여 * 기본 24개월분 급여를 한도로 하되 신노동법 발효(‘12.2.12) 이전까지의 퇴직급여가 24개월분 급여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인정(구 노동법상 한도인 최대 42개월분 급여액까지)

사. 임금 수준과 생산성

최근 자료(2012년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스페인 2010년 연평균 급여액은 22,790.20 유로이며, 근로자가 가장 많이 속해있는 소득구간은 16,489.96유로인 것으로 파악된다. 남성 평균급여는 25,479.74유로인 반면, 여성 평균급여는 19,735.22유로로 남성 평균급여의 77.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파이스 바스코(26,593.70 유로), 마드리드(25,988.95 유로), 카탈루냐(24,449.19 유로) 등이 높은 소득수준을 보였으며, 카나리아 제도(19,315.56 유로), 엑스트레마두라(19,480.55 유로), 갈리시아(20,241.99 유로) 등의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별 연평균 급여 수준은, 전력분야가 연 평균 급여 48,803.35 유로로 평균급여 대비 114% 높았으며 숙박업은 14,629.55유로로 평균급여에 35.8% 미치지 못하였다.

한 편, 경기불황의 여파로 2012년 법정 최저 임금은 월 641.40 유로, 연 8,979.6 유로(14개월분 기준)로, 2011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업종별/지역별 노조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 기준이 별도로 있으며, 통상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 사회보장 제도

스페인 국민은 사회보장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스페인 국민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거해 가입 여부가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페인과 사회보장 상호 인정 협정에 2011년 7월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 및 발효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재 상사 및 교민의 경우 현지인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담 범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일정률을 부담하고 있으며 직종별로 사회보장금 산정을 위한 최소치 기준이 있다.

2012년 사회보장 분담금 비율

(단위: %)

구분	고용자 부담	피고용자 부담	계
일반 분담금(연금/의료)	23.6	4.7	28.3
실업 보장	5.5	1.55	7.05
직업 훈련 분담금	0.6	0.1	0.7
급여 보장 기금	0.2	-	0.2
합계	29.9	6.35	36.25

자료: 스페인 노동부

1) 실업급여

해고로 인한 실직,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무급휴직 및 한시적 근로시간 감축(10~70%)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실직 직전 6년 이내에 최소 360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로하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근무기간(사회보장세 납부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720일간 지원하며, 지원 수준은 최저 497유로~최대1,397.83유로(자녀2인 이상) 범위 내에서 최초 180일간은 기본급의 70%, 181일 이후 기본급의 50%를 지원한다. (스페인 경제위기로 2012.7월부터 60% → 50%로 10%P 하향조정)

2) 의료보험

사회보장세 납부자와 부양가족은 공립병원 진료, 입원시 무상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처방에 의한 의약품 구입시 소득수준에 따라 퇴직자는 약가의 10~20%, 근로자는 50~60%를 부담한다.

스페인은 외국인도 주민등록만 하면 무상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방만한 의료복지가 지방정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면서 2012년 8월 31일부로 사회보장세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무상의료 혜택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다. 단, 응급실 이용이나 18세 미만에 대한 혜택은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3) 퇴직연금

스페인의 기본 정년은 현재 65세로, 퇴직연금 수령 직전 15년 이내 2년을 포함 최소 15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현재 퇴직 직전 180개월 평균급여(직전 24개월 명목급여 + 156개월 실질급여(물가인상을반영)의 평균금액)의 약 85.7%를 기준급여로 사회보장세 납부기간에 따라 최소 50%(15년 납부)~최대 100%(35년 납부)까지 연간 최대 35,320.46유로 한도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부담 증가, 경제난 등으로 인한 예산 압박으로 2011년 1월 근로자 정년연장, 조기퇴직 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타결하여, 2013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최근 스페인 정부의 금융권 규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정년 연장시기 단축 등 연금개혁안 조기 시행 압박을 받고 있다.

스페인 연금제도 변화

기존제도	개정방안
퇴직정년 연장	
65세	67세 (2013년부터 매년 1~2개월씩 점진적 할증, 2027년 67세 정년)
조기퇴직정년 연장	
60세	63세
연금 100% 수령 조건	
사회보장세 35년 이상 납입, 65세 퇴직	사회보장세 38.5년 납입, 67세 퇴직
연금수령액 산정 기준	
퇴직 전 마지막 15년간 평균급여의 85.7%	퇴직 전 마지막 25년간 평균급여의 85.7%

자료: 무역관 정리자료

8. 조세제도

가. 법인세

부과 대상 법인은 "거주"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스페인 조세법에 의거해 설립되었거나 사업장이 스페인 영토 내에 소재하거나, 실질적인 운영 본부가 스페인 영토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거주 법인"으로 간주되어 부과 대상이 된다. 거주 여부 결정에 이의가 발생할 시 스페인과 해당 법인의 출신국 간에 이중 방지 과세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동 협정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법인세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기업활동 외 이익, 일반적인 기업활동과 무관한 투자 행위에 따른 이익, 주식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부과된다. 법인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BI, Base Imponible)을 산출하는 방법은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소득-공제 가능 항목+순 양도 소득] 이다.

2012년 기준, 일반적인 법인소득세율은 25~30%이며, 과세표준 금액 기준 최초 30만 유로까지는 25%, 초과분에는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된다. 다만, 기업 매출규모에 따라 예외를 적용하여 연 매출 20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35%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연매출 5백만 유로 이면서 평균 근로자 25인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30만 유로까지는 20%,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업종(부동산 투자 기금을 포함한 단체 투자 기금: 1%, 특정 조합: 20%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한편,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IT 신기술 투자, 장애인 채용 등 여러가지 사유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도 하며, 법령에 따라 적용비율 및 일정이 달라지므로 전문 회계사 등을 통해 자사의 활동 중 해당 회계연도 세액 공제 수혜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스페인 영토내에 고정 거주지를 보유한 자: 스페인 영토 내에 연간 183일 이상 거주 하거나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또는 직업이나 기업활동의 기반이나 중심이 스페인 영토내에 있는 경우

-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법이 정하는 몇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자 (예: 외교관)
-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조세 피난처에 거주하는 자: 거주지 변경 실시 해당 연도와 이후 4년간 납세 의무를 진다.

EU 회원국 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총 소득의 75% 이상을 스페인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비거주자 소득세 대신 개인 소득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 소득세는 근로소득, 부동산 자본 소득, 동산 자본 소득,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 조세 피난처에 소재한 투자 기관을 통해 얻은 소득, 2년 미만 동안 보유 자산 변동으로 발생한

소득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24~45%까지 누진 적용된다. 단, 경제위기로 인해 2012~2013년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24.75%~52%까지 적용되며, 일부 자치주에서는 일부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예: 카탈루냐 주정부는 추가 3% 징수)

한편, 개인 소득세 공제 대상에는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 가족 공제, 보험료, 의료비, 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액 또는 재건축비, 세우따(Ceuta) 및 멜리야(Melilla)에서 취득한 소득, 특정 단체에 대한 기부금, 문화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지출 등이 있다.

3) 부가가치세(IVA)

기업이나 직업인이 스페인 영토 내에서(까나리아, 세우따, 멜리야 제외)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며, 부과 대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세율이 적용된다.

- 21% (2012.9.1일부 18% → 21% 인상)
 - 기본 부과 부가가치세율
- 10% (2012.9.1일부 8% → 10% 인상)
 - 주류를 제외한 식음료, 물, 승객 및 짐 운송, 호텔, 레스토랑, 연극 및 영화 관람료 등
- 4%
 - 빵, 밀가루, 우유, 치즈, 계란, 과일, 채소 등의 생필품 농축산물, 서적, 신문, 잡지, 의약품, 장애인용 차량, 장애인용 보철기, 공공 보호 시설 등

보험, 금융, 의료 서비스, 교육, 주택 임대 등과 같은 일부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출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수출자는 수출 과정에 부과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까나리아 군도, 세우따 멜리야(Ceuta y Melilla) 지역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까나리아 군도에서는 대신 일반간접세(IGIC) 5%가 부과되며 세우따와 멜리야 에서는 부가세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으로 생산, 서비스 및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스페인정부는 2012년 9월 1일부로 부가세 인상을 단행하였다. 라호이 총리는 총선 당시 부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스페인 경제위기로 EU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 인상조치를 포함한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하였다.

2013년에 부가세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10% 및 4%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부가세 감면대상을 일부 축소하여 기본세율 21%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 추가적인 부가세 인상요인이 잠재하며, 대상품목으로는 식당/호텔/교통운임/영화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스페인인 외환 거래가 완전 자유화된 국가 중 하나이다. 외환 자유화 관련 법령으로는 칙령 1816/1991, 42/1993, 1638/1996 등이 있는데 몇 차례 개정되면서 규제 조항이 철폐되었다. 스페인 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송금 또는 결제는 제약 없이 가능하다.

다만, 스페인 정부는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스페인이 가입한 국제 기구에서 채택한 조치에 위반되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 비거주자와의 거래 또는 은행 송금, 외환 지급 및 수령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극도로 짧은 기간 내의 핫머니의 유출입이 스페인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EU의 자본 흐름과 관련된 규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스페인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단기적인 투기자본에 의해 금융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토빈세 등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인 거주자가 아래의 외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스페인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무역 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외환 지급 및 수령을 1년 이상 집행 연기 또는 융자하는 경우
- 무역 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대차 관계를 상계 처리하는 경우
- 금융 중개 기관이 금융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차 관계를 상계 처리하는 경우
- 스페인에서 어음을 비거주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금융 용자로 간주되어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함

여행자가 1인당 6,010.12유로 이상을 소지하여 출국할 경우, 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이를 압수할 수도 있다.

비거주 개인이나 법인도 거주자와 동등하게 스페인 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며 개설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고 불법 체류자의 문제도 사회화되어 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개설 시 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 제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필요서류를 사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스페인은 2012년 3분기까지 최악의 자금 조달 여건에 직면해 있었으나, 9월 유럽중앙은행의 회원국 단기국채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 발동계획 발표 이후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상당히 안정되어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경제부 및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스페인을 대거 탈출했던 자본이 2012년 10월부터는 스페인으로 다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개요

1) 잠재력 있는 소비시장

5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로 우리나라와 인구 면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유한다. 매년 5천만 명이 넘는 해외관광객이 몰려드는 세계 4위 관광대국(2011년 기준)으로서 관련소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2011년 기준 일인당 GDP(PPP)는 30,896달러로 23,749달러인 한국보다 다소 높으며, 유럽연합 내에서는 16위에 해당한다.

2) 제3국 시장으로의 플랫폼

한 편 스페인은 포르투갈, 안도라, 북부아프리카 등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중남미와 중동지역과는 역사, 문화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이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최근 경제위기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스페인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으며, 중남미와 중동아프리카가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자국 파이낸싱 환경이 악화되면서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기업과의 제휴에도 높은 관심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약한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포르투갈 등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에게 스페인은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

3) 지방 상권 발달

전통적으로 지방자치 성격이 강해 경제활동이 각 지방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산업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바이어 접촉 시 그 지역 특색을 익히거나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까탈루냐 주(바르셀로나) : 자동차, 의학, 식품, 정밀화학, 소프트웨어, 건축
- 바스크 주 : 철강, 에너지생산, 공작기계, 항공산업, 전기 및 IT산업
- 알리칸테 및 마요르카 : 신발산업
- 발렌시아 주 : 식물(홍텍스타일), 조명, 가구, 유리제품
- 안달루시아 주 : 가구, 공예품

4)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호감도 및 높은 인지도

한국산 제품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내 입지를 넓히며 높은 인지도를 구가하고 있다. 핸드폰의 경우 삼성이 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TV 판매시장 또한 한국산 제품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EURO컵 공식스폰서, 기아자동차는 스페인출신의 테니스 금메달리스트 라파엘 나달의 스폰서 등으로 비중있는 행사와 인물들을 내세워 마케팅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다.

5) 중산층 시장 좁아져, 한국기업 대비책 마련해야

스페인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소비시장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산 고가품의 프리미엄 존(Premium Zone)과 낮은 가격을 앞세운 중국, 태국산 등 버킷 존(Budget Zone)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산 제품이 속해있는 ‘품질대비 합리적인 가격대’의 퀄리티 존(Quality Zone) 주요 소비층인 중산층의 구매심리가 위축되면서 한국산제품의 세그멘테이션을 재정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이미지와 가격대를 고려할 때, 한국산 제품은 고급화 전략을 취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보수적 시장

스페인 시장은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늦고 고객의 호기심이 적은 반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상품 수명 주기가 긴 편이다. 스페인 소비자들은 소비재 구입 시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오래 들이며, 직접 보고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터넷 구매, 홈쇼핑 구매빈도가 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다만, 인터넷 보급 확대와 발맞춰 여행상품, 건강용품, 주방제품, 소형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구매와 TV 광고를 통한 구매가 점차 활성화 되는 추세이다.

7) 지하경제 발달

GESTHA(스페인 재무부 기술직 노동조합)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지하경제 규모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 이어 OECD 국가 중 최대수준으로 2010년 기준 GDP의 약 20~2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10% 미만을 기록하는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같은 타 선진국과 대조를 이룬다.

스페인 정부는 2012년부터 지하경제 척결을 통한 세수 추가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지난 1월 ‘연간조세관리 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안은 1) 조세 관련 부정부패 조사 강화, 2) 세금신고 초기 단계에서의 포탈이나 회피 감시 확대, 3) 각 주정부 관련기관과의 업무연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11월부터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의 현금거래 한도를 2,500유로 이하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위반 적발시 25%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현금거래를 통한 소득신고 누락, 탈세를 방지하는 법안이 시행되었다. 일각에서는 현금 거래한도를 1000유로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상당부분의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유통 채널

1) 독과점 형태의 유통구조

일반 소비재의 유통구조는 독과점 형태로 형성되어 최대 백화점인 엘 꼬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es), 프랑스계 대형 할인매장 까르푸, 알 캄포(Al Campo)등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위상이 매우 높다. 특히, 경기불황이 지속되며 위 유통기업들의 PB(Private Brand) 상품의 판매 신장세가 두드러지며 유통시장 내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다. 이는 브랜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스페인 소비자들이 장기적인 경기 위축으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최소한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통망”의 브랜드 파워에 기대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지역 대리 판매 책임자를 통한 유통 방식 - 스페인 바이어 왜 독점 수입권부터 요구하나?

스페인 바이어는 첫 비즈니스 미팅부터 한국업체에 독점 수입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 신임도나 판매능력을 모르는 한국업체가 당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첫째, 우선적으로 신상품을 독점 확보하여, 국내 수입 업체 간 경쟁을 피해 판매 마진을 높이려는 일반적인 바이어의 특성과, 둘째, 지역별 대리 판매 책임자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스페인 바이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제품군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스페인은 국내 상권이 넓고(인근 포르투갈, 모로코를 커버), 지역별 특성이 뚜렷하며 인간적 친밀도에 호소하는 비즈니스 특성으로 인해, 각 자치주별 영업망을 구축하는 특성이 뚜렷하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바이어는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친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가진 해당지역 출신 대리 판매 책임자를 통해 영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스페인 A 지역, B 지역 바이어에게 수출했을지라도, 바이어가 각 사에서 확보한 대리판매 책임자를 통해 전국적인 영업 활동을 한다면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제품으로 다른 가격을 제시할 경우가 많다. 이러할 시 바이어는 가격 보전이 어렵고 경쟁으로 마진이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같은 물건이 각기 다른 수입상에 의해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각 수입상의 지역 책임자들에 의해 같은 물건이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바이어 입장에서 이와 같은 시장교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상품에 대한 독점 수입상권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업체는 이와 같은 현지 바이어 특성을 알고 비즈니스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이어의 판매능력과 구축된 판매망을 잘 알고 독점권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개 바이어를 놓고 1년 후 실적 비교를 하여 독점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다. 유망 상품

1) 절전형, 에너지 고효율 제품

스페인은 전력부문이 민영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요금인상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로 주요 전력사의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태이다. EU의 정부재정적자 목표 준수를 위한 긴축재정 실시로 정부차원에서 전력기업들의 적자 보전이 어려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스페인 정부는 2012년 7월 추가 긴축안 발표시 전력기업에 대한 환경부담금 등 세금 추가징수계획을 발표하여,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요금 인상은 기업 및 가계의 지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절전형,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정용 레저용품

스페인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스페인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Nielson사의 설문조사 결과 스페인 인구의 65%가 경제위기로 인해 집 밖에서 즐기는 여가활동을 줄였다고 밝혔으며, 가족 및 친구들과 외부에서 만나는 대신 집으로 초대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 오락용품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의료용 기기 및 건강 관리 기기

높은 실업률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노령인구는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올리고 있어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이 적은 편이다. 탄탄한 소비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령인구는 스페인 전체 인구의 17% 이상이며, 미용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전망된다.

2. 물가정보

(2012년 6월 기준)

구분	항목	가격(EUR)
식품류	쌀 1kg	0.98
	계란 12개	1.35
	쇠고기 등심 1kg	15.5
	돼지고기 등심 1kg	8.95
	우유 500ml	0.55
	식용유 1L	1.55
	생수 1L	0.32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4.26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4.4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2
	김치찌개 1인분	13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3,2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24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30,000
	무연휘발유 1L	1.33
	자동차 등록비	CO2배출량에 따라 차량매가의4.75~14.75% (전기차 면제)
	자동차보험료(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1,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2.8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1.5
	시내버스 기본요금	1.5
	택시 기본요금	2.15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78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6.68
	휴대전화 요금 (Movistar, 1분)	0.26
	인터넷 월사용료 (Movistar, ADSL 10MB 기준)	39.96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000
교육	외국인학교 1~2학년 수업료(American School, 일반학비)	10,650
	외국인학교 3~5학년 수업료(American School, 일반학비)	11,962
	외국인학교 6~8학년 수업료(American School, 일반학비)	14,118
	외국인학교 9~12학년 수업료(Private Rate, 일반학비)	14,426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5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8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1,8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1,2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2,8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시간
	출산휴가일수	16주
	연간 국경일수	최대 14 일
	주5일 근무 여부	주 5일근무
기타	드라이클리닝 (정장 1벌 기준)	11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직접 우편을 통한 바이어 접촉

업무적인 성격을 강조하기보다 인간적인 관계 및 신뢰를 중시하는 현지 관행으로 인해 스페인 기업과 접촉 시 담당자 간 직접 연락을 통한 인간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거래 성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신뢰가 구축되면 거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컨택을 통해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쌓아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첫 거래에는 샘플을 직접 받아 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주로 거침으로, 가급적 회사 로고가 쓰여진 공식 레터에 샘플 등과 같은 관련 자료를 바이어에게 보내 주는 것이 좋다.

직접 접촉 시에는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접촉은 가급적 스페인어로 하거나 영어로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정중하면서도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의사 소통 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2)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회 참가

국제적 규모의 전시회에 참가 또는 참관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국가기관이나 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해 외국 거래업체를 발굴할 수 있다.

전시회 참가 시에는 사전에 잠재 바이어에게 참가 부스번호 등을 안내하고 부스로 초대해 상담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밖에 전시장에서 다른 참가기업 부스를 방문해 거래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3) 조사대행 서비스 및 해외 세일즈 출장 이용

코트라에서는 유료로 제품에 대한 시장성 파악, 관련 바이어 발굴 관련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기본적인 시장 동향 파악과 함께 관심 바이어를 발굴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국가별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를 1차적으로 접촉하므로 향후 거래를 위한 구체 협의 시 도움이 된다.

해외 세일즈출장 지원 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코트라 무역관에서 직접 바이어를 섭외하고 관련 자료를 업체에게 발송함으로 성공적인 출장을 이뤄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단, 출장 직전에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관심 바이어 발굴이 어려워 서비스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필시 명심해야 한다.

4) 각종 전시회 디렉터리 검색을 통한 바이어 발굴도 가능

스페인 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전시회의 카다로그를 입수해 관련 품목 취급 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동종 업종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므로 의외로 좋은 거래선을 만날 수 있다.

□ 주요 전시장 홈페이지

- 마드리드 국제전시장 www.ifema.es
- 바르셀로나 국제전시장 www.firabcn.es
- 발렌시아 국제전시장 horizontal.feriavalencia.com
- 빌바오 국제전시장 www.bilbaoexhibitioncentre.com
- 사라고사 국제전시장 www.feriazaragoza.com

5) 관련 협회 정보 활용

관련 전문 기업 연합회 소속 기업 검색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협회 발간 자료를 통한 기업 검색도 가능하다.

- 수출기업협회
 - 전화: (34)93-415-0422
 - 팩스: (34)93-416-0980
 - 주소: Gran Via Corts Catalanes 684 PRAL 08010 Barcelona
 - 홈페이지: www.amec.es
- 전경련(CEOE)
 - 전화: (34)91-566-3400 / (34)90-288-4403
 - 팩스: (34)91-562-8023
 - 주소: Diego de Leon 50 28006 Madrid
 - 홈페이지: www.ceoe.es
- 전자통신협회(AETIC)
 - 전화: (34)91-590-2300
 - 주소: Príncipe de Vergara 74 28006 Madrid
 - 홈페이지: www.aetic.es
- 전자 및 IT분야 수출업체 연합회
 - 전화: (34)93-182-8800
 - 팩스: (34)93-247-8564
 - 주소: Gran Vía de les Corts Catalanes 774 08013 Barcelona
 - 홈페이지: www.secartys.org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연합회(SERNAUTO)
 - 전화: (34)91-562-1041/91-562-3431
 - 팩스: (34)91-561-8437
 - 주소: C/Castelló 120 28006 Madrid
 - 홈페이지: www.sernauto.es
- 완성차 제조업체연합(ANFAC)
 - 전화: (34)91-343-1343
 - 팩스: (34)91-345-0397
 - 주소: Fray Bernardino Sahagún 24 28036 Madrid
 - 홈페이지: www.anfac.es

- 전자상거래협회(AECEM)
 - 전화: (34)93-240-4070
 - 팩스: (34)93-201-2988
 - 주소: Avda. Diagonal 437 08036 Barcelona
 - 홈페이지: www.aecem.org

- 조명기기 제조업체연합(ANFALUM)
 - 전화: (34)91-435-2223
 - 팩스: (34)91-577-0910
 - 주소: C/Jorge Juan 47 28001 Madrid
 - 홈페이지: www.anfalum.com

- 전기제품 제조업체연합(AFME)
 - 전화: (34)93-405-0725/ (34)91-562-5590
 - 팩스: (34)93-419-9675/ (34)91-562-5758
 - 주소: (바르셀로나) Avda. Diagonal 477 08036 Barcelona
(마드리드) C/ Príncipe de Vergara 74, 5º . 28006 Madrid
 - 홈페이지: www.afme.es

- 시멘트 제조업체연합(OFICEMEN)
 - 전화: (34)91-441-1688, 팩스: (34)91-442-3817
 - 주소: C/José Abascal 53 28003 Madrid
 - 홈페이지: www.oficemen.com

- 의학 분야 기업연합회(FENIN)
 - 전화: (34)91-575-9800, 팩스: (34)91-435-3478
 - 주소: C/Juan Bravo 10-3 28006 Madrid
 - 홈페이지: www.fenin.es

- 재생에너지 협회(APPA)
 - 전화: (34)902-106-256/(34)93-241-9363
 - 주소: (마드리드) C/ Aguarón, 23, Portal B, 1º B, 28023, Madrid
(바르셀로나) C/ Muntaner, 269; 1º 1ª 08021 Barcelona
 - 홈페이지: www.appa.es

- 태양광산업 협회(ASIF)
 - 전화: (34)915-900-300
 - 주소: C/Dr. Arce, 14, 28002, Madrid
 - 홈페이지: www.asif.org

- 화장품 협회(STANPA)
 - 전화: (34)915-711-640
 - 주소: Paseo de la Castellana, 159, 28046, Madrid
 - 홈페이지: www.stanpa.com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각종 사이트를 통하여 스페인 기업 검색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많은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담당자 확인을 한 후에 접촉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바이어 접촉 시에는 충분한 사전 확인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

□ 바이어 및 품목 검색에 자주 이용되는 웹 사이트

- 기업 검색 사이트
 - www.hotfrog.es
 - www.localempresa.com
 - www.puntex.es/salud (의료분야)
 - www.paginasamarrillas.es
 - www.fomentodigital.com (유료)
 - www.duns5000.com (유료)
- 일반 포털
 - www.google.es
 - www.yahoo.es
 - www.terra.es

□ B2B 또는 B2C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요 마켓 플레이스

마켓 플레이스 명	홈페이지	타입	분야
ACAMBIODE	www.acambiode.com	B2B	무역
FIS ESPAÑA	http://newfis.fis.com/	B2C	수산물
CONSTRUMATICA	www.construmatica.com	B2C	건축
KOMPASS	www.kompass.com	BSB	무역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1) 바이어 성향: 보수 성향이 강하고 거래처와의 친분 중시

스페인 사회는 친구(amigo)와 같은 개인적 친분이 중시되며 오랜 기간 거래해 온 공급업체가 있는 수입상들은 단순히 가격 조건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거래처를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공급선을 보유한 수입상에게 접근할 때는 처음부터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초기 접촉 시 회사 소개 및 연혁 등 바이어가 회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처음 연락 이후 가급적 시간을 두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접촉하며 서두르거나 재촉한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접촉 방법: 최초 접촉은 우편이나 깔끔하게 작성된 이메일로

아직도 상당수의 스페인 사람들은 회사 로고가 찍힌 편지지에 인쇄된 회사 소개서와 제품 카탈로그를 보아야 상대 회사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초기 접촉 시 고전적인 방식으로 회사 로고가 찍힌 편지지에 회사 소개서를 작성하고 제품 카탈로그와 가격 리스트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좋으며, 자료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수신 및 검토 여부를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어 대부분의 정보를 주고받아,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메일로 빠르게 제품 소개서를 받아 보는 것을 더 선호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3) 상담 진행: 상황의 지속적 확인

스페인 수입상들은 공급업체로부터 재촉 당하는 것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다. 너무 재촉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요령껏 거래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먼저 각 업체의 구매 담당자를 파악해 집중공략 하는 것이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다.

대개 스페인에서는 구매 담당자가 구매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가 부재 시 대리 업무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담당자의 성함과 부재 상태 등을 항상 확인해야 하며, 가급적 담당자 출장 시에는 업무 대행자나 비서 등을 통해 출장 일정을 파악하여 출장에서 복귀한 이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4) 구매 방법: 선별 작업 단계부터 성실하게 대응

스페인 바이어들은 취급/관심 품목의 자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당장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 대부분 연중 접수된 수출 업체의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었다가 구매를 앞둔 약 2달 전부터 접수된 자료를 선별하여 업체를 접촉하는 작업을 한다.

선별 작업 단계는 수입상의 단독 의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자사 제품을 세일즈하는 판매책들과 수차례의 선별 작업을 추진하여 최종적인 구매 물량을 확정하게 된다. 통상 구매 물량은 일반적으로 취합된 물량의 120%를 오더하며 여유 물량인 20%가 얼마나 빨리 소진되느냐에 따라 추가 오더가 결정된다.

공급선 선별 작업 단계 시 가장 빠르고 성의 있는 Follow Up을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바이어는 거래를 함께 할 후보 업체의 상품 경쟁력은 물론 업무 태도를 측정하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

5) 구매 시기: 자료 발송 시 감안해야 할 중요한 시기

스페인의 비즈니스 캘린더는 9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상들의 구매 시기는 연중 1번 main order와 1번의 추가 오더 시기가 있고 품목의 성격, 계절 상품에 따라서 main order 시기가 정해지기도 한다.

□ 일반적인 상품 연간 구매 계획

- ① 부활절 휴가(3월 중순-4월 중순)를 전후로 구매 확정
- ② 7월 중순 이후에 선적
- ③ 8월말 스페인 도착, 통관
- ④ 9월초부터 구매 가계약된 지역 도매상들에게 유통
- ⑤ 12월-1월초 추가 오더

계절 상품의 경우, 여름 상품은 11월-1월이 물량 취합 및 구매 시즌으로 부활절 휴가 전에 스페인에 도착하여 여름을 대비한 세일즈 시기로 접어들며, 겨울 상품의 구매는 일반적인 구매 시기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소 정형화된 구매 패턴 때문에 한국 업체가 발송한 자료들은 접수 즉시 업무가 개시되는 예가 흔치 않으며 구매 시기가 될 때까지 바이어 파일에 비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송한 자료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는 불만이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어가 구매 선정 작업을 하는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자료를 발송하는 것도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

6) 휴가 및 공휴일 기간 확인

스페인 기업들은 대부분 7월에서 8월 중 한 달여의 휴가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일부 기업은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 바이어의 휴가 계획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페인에는 주 별로 공휴일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바이어가 소재한 지역의 공휴일 여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공휴일이 주말 전일 경우에는 휴가를 내는 경우가 많고 휴일 전날에는 오전 근무만 실시할 수도 있으므로 담당자의 휴가 일정 및 업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정해진 휴일이 주말에 걸리게 되면 다른 평일 임의로 정해 임시 공휴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임시 공휴일은 연초 발표하는 공휴일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결재일 등을 앞두고 있다면 거래기업과 접촉해 해당 기일에 임시 공휴일이 있는 지에 대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나.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1) 바이어의 신뢰도 파악 선행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바이어의 영업 현황과 재정 상태 등 신뢰도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업이나 과거 대금 결제 지연 등의 사례가 많은 바이어인 경우에는 그만큼 사소한 사안이라도 이를 이유로 대금을 지체하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클레임을 걸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현지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되어 대금 미지급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바이어 신용조사 및 수출보험 가입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다.

□ 주의 사항

- 스페인으로 송금하기 위한 현지 등록 필요 - 필요없음
 - 기본적으로 스페인으로 송금만을 위해서 별도의 등록 - 필요 없음
 - 수출 계약 체결 시 한국기업이 별도로 스페인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 납부(Registration Fee)도 없음
- 스페인 현지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스페인은 국가코드가 34번이며 유선전화의 경우 국가코드이후 91(마드리드), 93(바르셀로나) 96(발렌시아) 등의 지역번호가 이어짐
 - 34번 이후 6 또는 7으로 시작하는 번호(예: 34-666-000-000)는 휴대전화로 기업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개인번호가 대부분임
 - 주소의 경우, 해당 자치주(예: 마드리드주)와 우편번호까지 함께 있어야 정확한 주소이며 실제 주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2) 거래 조건의 실행 가능성 판단

계약 성사를 위해 다소 무리한 거래 조건을 제의했거나 수용했다면 냉정하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며, 현실성이 없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조건은 수정을 제의해야 한다. 계약 이 체결된 후에는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며 사소한 시시비비도 바이어 클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품질 조건 및 인도 조건의 차질 없는 이행 노력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전에 제시한 샘플과는 품질, 색상, 디자인 등이 다른 물건이 선적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바이어가 요구하는 사양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계약에 임해야 한다. 또한, 생산과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철저히 검토하여 선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밖에 해당 품목 수출 시 갖추어야 할 승인 혹은 인증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며 인증이 필요할 경우 바이어 측과 협의 조치 방법을 결정한다.

4) 결제 조건의 적합성 판단

바이어 측은 가급적 외상 조건을 선호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계약 성사를 위해 설령 외상 조건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거래가 지속되면서 결제 조건이 더욱 완화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바이어의 무리한 결제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바람직한 방법은 회사의 방침으로 T/T 내지는 L/C조건을 바이어에 제시하고 이를 수용토록 하며 바이어의 특수한 상황이나 여건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외상 조건을 수용 하는 것이 장기적인 거래 관계의 유지와 발전에 바람직하다. 외상 조건으로 만약 결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령 상호간 협의로 해결이 되더라도 거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언어 문제 주의

상담 시 최대한 언어의 문제가 없도록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양측이 합의하는 언어(영어)로 작성하여 서명하는 등 상담 이후 상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도 단순 번역으로는 추후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한국식 계약서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용어 표기나 오역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한다.

6) 독점 계약 시 주의

상당 시 독점 계약을 요구하는 바이어일수록 계약 체결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중대형 바이어일수록 독점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규모가 작거나 시장 진입에 문제가 있을수록 독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계약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5. 무역,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현지와 의사 소통의 문제

투자유치 지방단체 혹은 대기업의 경우 영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통상 무역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업체와의 교신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 식 영어와 스페인 식 영어 표현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e-메일 또는 서한 작성 시 주의 하여야 한다. 특히, 초기 의사 소통 시에는 가급적 정중하지만 간결하게 표현하여 의미상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독점 수입상권의 빈번한 요구

스페인 수입상들은 대부분 17개 자치주에 판매 대리 책임자 또는 대리 업체와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있어 자사가 수입한 동일한 상품이 다른 지역 수입상에 의해 수입되는 것을 꺼려한다.

즉, 같은 물건이 각기 다른 수입상에 의해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각 수입상의 지역 책임자들에 의해 같은 물건이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시장 교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상품에 대한 독점 수입상권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 시장에서 첫 비즈니스 미팅에 임한 한국 업체의 경우 1년 정도 2~3 개 바이어를 통해 판매하게 하여 바이어의 유통, 판매 능력 파악한 후 독점 수입권을 주는 것이 권고된다.

다. 공공기관의 지나친 관료주의로 인한 업무 지연

스페인 투자진출시 지역, 투자분야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하는데, 막상 투자를 시행하고 나면 캐쉬그랜트 등 약속되었던 인센티브의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행정절차가 느리고 복잡해서 발생하는 경우로, 지방정부의 캐쉬그랜트를 염두에 두고 투자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한다면 자금지원이 지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진출기업 주재원 및 동반가족의 비자 발급에도 지나친 시간이 소요되어 애로사항으로 자주 지적된다. 우선, 통상 해외 상사 주재원의 근무 기간이 4~5년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노동비자 허용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발급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스페인 실업률이 20%를 넘어가면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심사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져 서류상 미비 등을 문제 삼아 반려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동반가족은 주재원 비자가 발급된 이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재원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동반가족의 비자발급 지연도 심화되어 가족의 합류가 늦어지는 점도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시장과 소비자 기호 파악 및 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 필요

A사 제품은 현지 문화 차이로 인해 수요가 없을 것으로 시장성 조사 결과가 나온 품목이었다. 이에 A사는 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동일 품목을 제조하는 B사도 스페인 진출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사는 현지 수입 에이전트와의 협의 및 연구 노력 끝에 기존 제품에서 기능을 달리 하여 스페인에서도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제품으로 변화하여 판매를 시작하였다. 기능적 요소 외에도 제품명과 매뉴얼 모든 부분을 현지어로 제작해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으며, 판매 방식도 인터넷 및 직접 방문 판매 방식을 선택해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제품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현지 시장 및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제품을 보완 및 개발하는 전략과 이에 맞는 적합한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이 성공을 거둔 사례였다.

나. 상호 협력 방안 모색

B사는 스페인 바이어와 거래 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만 그치는 수준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출하였다. 그러나 바이어가 취급하고 있던 다른 제품 가운데 일부는 B사가 더욱 우수한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바이어에게 오퍼하였고, 바이어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크게 만족하였다. 또한, 역으로 B사는 바이어가 취급하고 있던 제품 중 하나가 한국에는 소개된 바가 없음을 확인하고, 바이어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한국시장에 알리는 업무에도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B사는 단순 바이어-고객 관계를 뛰어넘어 상생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다. 전시회 적극 활용

C사의 경우, 유럽 전시회 참가 중 스페인 바이어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지속 연락을 주고 받은 뒤 스페인으로 출장을 떠나 바이어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여러 상담을 거친 후 거래를 성사하였다. D사는 코트라 유료 거래선 찾기 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바이어 리스트를 확보 후 현지 출장을 실시하여 스페인 내 여러 지역의 바이어들과 샘플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취급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스페인 전시회에 참가해 현지 시장동향을 수시로 확인 중에 있다.

E사는 유럽 내 전시회 참가시 인근 관련 바이어를 조사해 사전 전시회 참가사실을 안내하고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 전시회 이외 지역까지도 전시회 마케팅 범위에 포함시킨 결과 전시회 기간 동안 많은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다.

F사의 경우, 갑작스럽게 전시회 출장을 결정하는 바람에 만나봐야 할 바이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코트라의 출장 서비스를 지원 받아 해당 전시회 참여 바이어 리스트 및 숙박 정보 등을 제공 받았으며, 이를 통해 무사히 전시회 출장을 마칠 수 있었다.

라. 한-EU FTA 적극 활용

G사는 한-EU FTA 체결 이후 그간 한국제품에 대해 관심은 있었으나 중국산과 비교해 다소 단가가 높아 취급을 망설였던 스페인 바이어들과 재접촉해, 앞으로 한국산 제품이 관세철폐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G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고,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신속하게 인증수출자 번호를 발급 받아 FTA를 활용한 수혜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택 임차

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 없이 빌리는 경우(SIN MUEBLE 씬 무에블레 또는 VACIO 바씨오)와 가구와 함께 빌리는 경우(AMUEBLADO, 아무에블라도)의 2가지 종류가 있다. SIN MUEBLE의 경우에도 주방용 기본 설비(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조리기, 식기 세척기 등)는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AMUEBLADO도 거실용 소파, 식탁, 침대 등만 구비된 SEMI와 TV, VCR 등은 물론 액자까지 완전 구비된 FULL로 구분된다. 고급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수영장, 테니스코트, PADEL(빠델, 테니스와 비슷한 운동) 등도 설치되어 있다.

신학기철인 9월에 아파트 임대 수요가 증가하여 입주가 용이치 않는 경우가 있다. SEGUNDA MANO(중고품 및 주택 거래 정보지)나 부동산 회사를 통해 주택 물색 가능하며, 현지인에 비해 월 임차료 지불이 정확한 한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의 주택 임차를 임대주들이 선호한다.

또한, 여름휴가철인 7-8월에는 주인들 대부분이 휴가로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을 통하여 미리 조건을 알아봐두고 사전조율을 통하여 가급적 휴가기간에 따른 계약체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임차 계약 해지 시 빈발하는 문제로 주재국 임대차 법 상 임대인은 퇴거 시 임대 주택을 원상대로 회복시킬 의무를 지며, 임대 계약 시 보통 1,2달치 보증금을 예치하는데 계약해지 시 주택 내부 기물이 상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금액을 제한 채 돌려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2달 전 통보하고 보증금으로 월세를 상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차 보증금(FIANZA)은 가구 없이 빌리는 경우 보통 1개월, 가구와 함께 빌리는 경우 2개월치를 납부하게 되는데 주인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은 가급적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

계약서 사인시 임대주 부담비용과 임차인 부담비용을 명확히 확인한 후 사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주택임차료와 공동관리비, 부동산 세금 등은 임대주가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가스비, 수도요금, 전기세 등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경기침체, 세금 인상 등으로 계약서 초안에 세입자가 부동산세(IBI), 오물관리비 등을 임차인 부담으로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 사인 전에 반드시 세부조항을 읽어서 임차인의 부담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 이외 방법으로는 아파트 내 방을 별도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단기 체류 또는 연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여 임차료 부담이 있는 경우 이용하기에 유용할 수 있다. 특히, 학교 주변과 시내에는 방만 임대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 물색시 부동산 매물 검색사이트인 이데알리스타 (www.idealista.com)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체에 임차 물건 물색을 의뢰하더라도 이데알리스타를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대략의 임차조건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한국 주재원들의 경우 자녀교육 문제로 외국인 학교 인근지역(Pozuelo de Alarcon, Ciudad Lineal, Hortaleza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

○ 주택 임차 관련 검색 사이트

- www.idealista.com (지역별, 금액별, 규모별 검색 가능)
- www.fotocasa.es
- www.segundamano.es
- www.enalquiler.com

나. 은행 구좌 개설

기본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오지 않아도 은행 구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체류 허가를 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은행의 구좌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다르다. 체류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계정'을 열 수 있으며, 은행에 체류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러나 체류증이 없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소위 "No Residente" 라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비거주자 계정'으로 개설해야 한다. 이 증명서 발급에는 약 1-2일이 소요되며, 은행 구좌 개설은 서류만 완벽하다면 당일에 가능하다. 은행 이자율이 매우 낮고 달러 구좌의 경우 구좌 관리 수수료로 오히려 잔고가 마이너스 되는 바, 적절한 구좌 관리가 필요하다.

스페인 은행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이나,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율이 절감될 수도 있으므로 계좌개설시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비교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어야 한다.

다. 차량 구입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 독일, 프랑스에 비해 차량 가격이 조금 비싼 편으로 신차 구입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신차 구입 시에는 자동차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3년 내지 5년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위기 영향으로 각종 가격할인 및 무상보증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많으므로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다.

중고 차량을 구입 희망할 시에는 중고차 전문상을 통해서 사거나 개인과 직접 거래하여 구매할 수 있다. 중고전문상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고전문상에서 사전 자동차 상태 점검 및 6개월-1년 기간의 엔진 등 주요부품 보증보험을 들어주고 있어 비용 면에서는 개인거래보다 훨씬 비싸다.

개인거래 시에는 직거래로 가격 면에서는 유리하나 자동차 상태와 품질에 대한 보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관련 정보는 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으며, 구매 희망 차종에 대한 가격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구매 시 가격조율에 참고하도록 한다.

○ 중고매매전문사이트

- www.coches.net
- www.segundamano.es
- www.autoscout24.es
- www.motor.es

- 주요 중고차 전문매매상
 - www.canalcar.es
 - www.vallehermosowagen.es
 - www.bmwmadrid.bmw.es

스페인에서는 휘발유보다는 디젤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오토 차량은 드물고 스틱/매뉴얼 자동차를 주로 사용한다.

운전면허증은 한-스페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되어 있어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올 경우 교통국에서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해 주지만, 스페인 거주허가증 보유자에 한하여 교환 가능하다. 거주허가증 신청에서 발급까지 시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곧바로 차량구입 및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국제면허증을 만들어 와야 한다.

스페인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려면 병원에서 적성검사의 일종인 Certificado Medico를 받아야 한다. 면허등급(B: 한국의 2종 보통, C1: 한국의 1종 보통에 해당)에 따라 검사비용은 상이하나 검사내용은 동일하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등급을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국내 보험사가 발급한 영문 “무사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도 하므로 출국 전에 보험사에서 받아두는 것이 좋다.

라. 자녀 교육 여건

1) 유치원

스페인의 공립 유치원은 경제적 부담 없이 사립 유치원과 동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립 유치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

공립 유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교육의 질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종류 가정 이상 거주지의 경우 공립 유치원의 수준이 사립 유치원과 비교하여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비가 사립 유치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이점 이외에도,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웬만한 사립 유치원보다 적고 교사의 자질도 훌륭하다. 스페인에서는 유치원을 포함해 공립 교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립 학교 교사의 자질이 사립 학교보다 훌륭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사립 유치원은 기본 입학금과 수업료가 공립 유치원보다 더 비싸면서도 각종 특별 활동 수업(수영, 체조, 무용, 미술 등)비를 별도로 받지만, 공립 유치원은 별도의 특별 활동비를 받지 않고 사립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다양한 특별 활동 교육을 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급식에 있어서도 공립 유치원은 사립과 똑같이 전문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위생적으로 준비하고 부모에게 미리 식단을 제공한다.

2) 초등학교 - 고등학교

현지 주재원 자녀들의 경우 미국인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학비가 비싸고 T/O가 제한되어 있어 입학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 미국인 학교 T/O 부족으로 입학하지 못한 경우, 미국인 학교와 동일한 교육을 시키는 International College Spain을 보내는 것이 차선이다.

□ 미국인 학교(American School of Madrid)

정형화된 입학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학교장 또는 입학 담당 교무 주임이 학생을 인터뷰한 후 결과에 따라서 시험을 실시한다. 대개 영어(구두 및 필기)와 수학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수학 시험의 경우 문제 자체의 수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영어로 된 수학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은 어려운 편이어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제는 유치원 3년(pre-kinder, kinder1, kinder2)과 1~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2학기 제도이다. (1학기: 9월, 2학기: 2월)

홈페이지: www.asmadrid.org

□ 국제 학교(International College of Spain)

정형화된 입학 시험은 없으며, 일단 학교장이 학생을 인터뷰한 후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영어 및 수학 시험을 실시한다. 미국인 학교보다 시험이 어렵지 않다. 학제는 유치원 3년과 1학년~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3학기 제도이다. (1학기: 9월, 2학기: 1월, 3학기: 4월)

홈페이지: www.icsmadrid.com

□ 영국인 학교(British Council School of Madrid)

영국인 학교는 영어와 스페인어 2개국어로 동시에 교육을 시키므로 2개 언어를 다 잘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영국인학교가 영국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할 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 분위기가 엄격하여 학생에 대한 체벌이 있고, 낙제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스페인 거주 후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할 계획인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자칫 과락을 하는 경우 향후 한국 대학의 특례입학 대상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학 시험은 매 학년 2학기에 실시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 한해 먼저 1년간의 조건부 입학허가를 받은 후, 1년간 학생의 성적 및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초등학교 : 영어와 스페인어 구두 및 필기 시험, 수학 필기시험
- 중학교 : 지식 시험, 영어와 스페인어 구두 및 필기시험, 수학 필기시험 과거 생활 기록부를 검토한 후 1대1 인터뷰 실시
- 고등학교 : 영어와 스페인어 구두 및 필기 시험, 수학 필기시험, 과학 필기시험(영어, 스페인어 2개 언어로 시험 실시). 고학년은 과학 시험과 작문 시험 중 택일 가능면접: 과거 생활 기록부를 검토한 후 1대1 인터뷰 실시

학제는 유치원 3년과 초, 중, 고등학교 1~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3학기 제도이다. (1학기: 10월, 2학기: 1월, 3학기: 4월)

홈페이지: <http://www.madridschool.britishcouncil.es/>

3) 스페인의 학제

스페인 학제는 "룩세"로 불리는 교육제도법(LOGSE; Ley Organica General del Sistema Educativo)에 의해 정해지며 이외 영국, 미국 등 외국인 학교의 경우는 자체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 내 학제는 1997년부터 종전 8-3-1에서 현행 6-4-2 신학제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과는 달리 9월에 신 학년을 시작한다.

구 분	대상연령	연수	비 고
유치원	4-6세	3년	
초등교육(E.P.O)	7-12세	6년	의무 교육
중등교육(E.S.O)	13-16세	4년	의무 교육
고등교육(Bachillerato)	17-18세	2년	인문, 기술과학, 의료, 예술 4개 분야
대학교 전문대학교		4년 2년	대학 입학시 선발시험(Selectividad)이 필요하나, 전문 대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여부 만이 요구됨

주1: E.P.O; Ensenanza Primaria Obligatoria (1차 의무 교육)

주2: E.S.O; Ensenanza Secundaria Obligatoria (2차 의무 교육)

마. 주거 환경

마드리드 등 주요 도시의 경우 시내 곳곳에 공원이 많아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가로등이 많고 밝으며 치안 상태가 양호해 주변 산로나 조깅 등에 문제가 없고 상당수 신설 아파트에는 수위가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공항, 구시가지, 관광지 등지에서 소매치기 및 절도범이 증가 추세에 있어 주의가 요망되며, 주거지 선정 시 주변 환경 및 시설에 유의하도록 한다.

바. 한국 식품 조달 여건

스페인의 식생활은 한국과 유사하여 마늘, 양파, 배추 등은 일반 슈퍼마켓이나 상가에서 구입이 용이하다. 또한 마드리드의 경우 시내에 한국식품점 3개소 이외 일본 및 중국식품점 등이 있어 식품 조달에 어려움이 없으며 일부 한국 식품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주문 시 배달 가능하다. 중국 식품점에서는 라면과 두부, 기타 야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1) 한국 식품점

- 수창식품
 - 주소: INFANTAS 15, 28004, MADRID
 - 전화: (34)91-531-6649
 - 스페인 광장 근처, 재래 시장 내 위치하여 주변에서 야채 및 고기 등을 함께 구입할 수 있음
- 한스 식품
 - 주소: C/MAESTRO GUERRERO 6, 28015, MADRID
 - 전화: (34)91-559-9896
 - 플라사 데 에스빠냐(Plaza de Espana) 바로 뒤편에 위치
 - 라면, 제과류, 반찬, 냉동식품 등 판매

- 서울 식품
 - 전화: (34)91-535-2760
 - 홈페이지: <http://www.madridseoulmarket.com/>
 - MERCADO MARAVILLAS 내 위치
 - 꾸아뜨로 까미노스 Cuatro Caminos 근처, 재래 시장 Mercado Maravillas 내 위치하여 주변에서 야채 및 고기 등을 함께 구입할 수 있음
 - 제품: 떡, 양념, 면, 라면, 차, 젓갈, 반찬, 김치, 냉동식품 및 일부 가전제품 판매
- 코레마켓
 - 전화: (34)918-928-102
 - 홈페이지: www.koremarket.com
 - 각종 식품 잡화 온라인 판매점으로, 스페인 전역 및 포르투갈까지 배송 가능.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스페인 지역에 한해)

품목 및 가격 ('2012)

(단위: 유로)

품목	단위	가격
고추장	Kg	5.85
된장	Kg	2.89
라면	개	0.53~1.43
소면	900g	3.00
당면	500g	3.16
새우젓	500g	5.20
다시멸치	907g	24.98
재래김(조미)	40g	3.28
떡(떡볶이용)	600g	3.00

자료: 코레마켓 홈페이지(브랜드/용량별/업소별 가격차이 있으며 참고로만 활용)

사. 주변 여건

1) 생필품 구입 용이성

근처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및 시내 백화점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데 소규모 슈퍼마켓의 경우 점심시간인 오후 2시부터 문을 닫아 4,5시경에 열어 8시 정도에 다시 문을 닫으므로, 개점시간에 가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과일, 채소 구입이 가능하고 한국식품점이 입점해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도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다. 낮시간에 문을 닫지 않는 대형 마트도 일요일에는 휴무하는 경우가 있다. 종전에는 유통업체들도 최대 영업시간 등을 법으로 제한받아 매월 첫 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폐점 하였으나, 금년 7월 법령 개정으로 영업시간이 자유화되면서 주요 쇼핑몰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개점하고 있다. 단, 쇼핑몰 내 입점중인 개별 기업은 자체적으로 휴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이 슈퍼마켓이나 대형 유통체인이 아닌 개별 점포일 경우 영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병원. 약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INSALUD(INSTITUTO NACIONAL DE SALUD: 국가의료기관)이 안달루시아, 나바라 등 4개 자치 정부만 제외하고 전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INSALUD에 본인 주치의가 지정돼 있다. 직장 의료보험 외에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 보험 가입하나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병원은 국민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서 운영하는 2가지로 대표된다.

구분	국민 의료보험	민간 의료보험 회사
진료	주치의진료후 전문의에게 진료 받음	해당과로 직접 문의, 진료 받음
치료 체제	INSALUD의 절차 밟음	보험회사의 체제 밟음
진료비	무료이며 약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에서 본인 부담으로 구입	월간 납부하는 보험료 외 진료, 치료비 무료. 약은 본인 부담으로 구입
진료 시간	9:00-14:00 16:00-19:00	9:00-14:00 16:00-19:00
야간, 주말	INSALUD지정한 병원에서 응급 조치	24시간 응급실 개방

아. 레저 여건

대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곳에는 중앙광장이 있고 인근에 공원이 있어 주말 및 평일 오후 산책을 즐기는 인구가 많다.

마드리드 시내에서는 왕궁, 마요르 광장, 솔 광장, 그란비아, 레띠로 공원 등 산책을 즐길 만한 곳이 많은 편이다. 이밖에 마드리드 근교 여행 코스로 TOLEDO, ARANJUEZ 왕궁, SEGOVIA의 로마 시대 수로, AVILA의 성곽, 전몰자의 계곡(VALLE DE LOS CAIDOS) 등이 있으며, 피크닉 장소로 마드리드 시 곳곳에 위치한 공원, 놀이 동산(Parque Warner), 대공원, 동물원(Faunia) 등이 있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가 동네마다 있어 테니스, 수영, 라켓볼, 탁구, 농구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골프도 회원권 보유 시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으나 최근 골프 인구 증가로 회원권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다.

음악회, 미술 전시회는 문화부 및 민간 단체 기관의 주최로 곳곳에서 개최되고, MUSEO DE PRADO(프라도), MUSEO DE REINA SOFIA(소피아 현대미술관)을 비롯 국립, 시립, 민영 박물관이 다양하게 소재하고 있다. 이밖에 곳곳에 극장과 공연장이 있어 문화관람 기회가 많다. 영화상영시, 스페인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영화를 스페인어로 더빙하여 상영하고 있다. 원어로 영화를 보려면 V.O(VERSION ORIGINAL, 원어)이 표기된 영화를 관람해야 한다. 지역별로 축제일이 다르며 다양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어 축제방문도 중요한 레저 활동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축제로는 마드리드 SAN ISIDRO (마드리드시 성인) 축제가 5월15일, 발렌시아 불의 축제(FALLA)가 3월19일, 팜플로나 SAN FERMIN(투우축제) 등이 있다.

자. 치안 상태

스페인 치안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최근 불법 이민자의 증가로 호텔 인근 및 로비, Gran Via 등 시내 외국인 관광지, 공항 등 혼잡한 곳에서 손가방, 소지품 등의 소매치기와 강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철 승차 시나 혼잡한 출퇴근 시에도 소매치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 주로 지하철역이나 공항, 기차역, 맥도날드나 버거킹 등의 패스트푸드점 등 사람이 많고 이동이 많은 곳에서는 최대한 소지품에 주의해야 한다.

소매치기의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길을 물으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옷이나 가방 등에 이물질이 묻었다며 접근해서 털어주는 척 하면서 다른 일행과 짜고 물건을 훔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선물(regalo, 레갈로)이라고 하면서 꽃 등을 주거나, 종이를 내밀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무시하고 지나치도록 해야 한다. 선물을 받거나 서명을 하는 순간 일행이 여러명 나타나 돈을 요구하곤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주택가의 경우 야간 외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치안이 잘 되어있으나 폭력배나 강도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주택, 사무실의 대물 치안 상태는 아파트 및 빌딩마다 수위가 상주해 있고 보안 시스템도 양호한 편이다. 늦은 밤 마드리드 시내 PUERTA DE SOL, GRAN VIA와 같은 도심에는 마약 거래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으므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차. 현지인들의 한국인 인식

일본인 혹은 중국인과 잘 구별하지 못하나, 한국과 거래 경험이 있는 비즈니스맨들은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올림픽 전엔 전쟁 폐허를 연상했으나 그 이후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근면한 민족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특히 유입되는 한국 상품(자동차, 가전 제품 및 컴퓨터)의 홍보로 이미지 고양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꼬레아(Corea, 한국)”라고 하면 북한의 기근, 우리나라의 안보상황 등을 먼저 떠올리고는 한다.

카. 한인회 및 한인 종교단체

1) 한인회

- 재스페인 한인연합회
 - 활동: 교민친목 도모
 - 홈페이지: haninspain.com
- 재서 마드리드 한인회
 - 활동: 마드리드 지역 교민회
- 재서 바르셀로나 한인회
 - 활동: 바르셀로나 지역 교민회
 - 홈페이지: www.haninbcn.com

2) 한인 종교단체

- 바르셀로나 한인 교회
 - 홈페이지: www.barcelona.or.kr
 - 주소: C/ Cabanes, 39, 08044, Barcelona
 - 전화: (34)93-441-86-06
- 마드리드 한인장로교회
 - 홈페이지: web.godpia.com/imadrid
 - 주소: C/ Jose Maria Pereda, 28, 28017, Madrid
 - 전화: (34)91-377-0671

○ 마드리드 제일교회

- 홈페이지: www.madridcheil.com
- 주소: C/ Secoya, 22, 28044, Madrid
- 전화: (34)91-525-7019

○ 마드리드 순복음 소망교회

- 전화: (34)616-329-613
- 주소: C/ Hernani, 34, Local-4, 28020, Madrid

○ 마드리드 사랑의교회

- 홈페이지: <http://club.cyworld.com/madridchurch>
- 주소: C/ Villacampa 4, 28031, Madrid
- 전화: (34)91-233-9135

○ 마드리드 한인천주교회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atolicamadrid>
- 주소: Parroquia de Jesus de Nazaret, Calle Cuevas de Almanzora 18, Madrid
- 전화: (34)91-302-4619

타. 현지 문화 관습

1) 종교 생활

국민의 94%가 가톨릭이나 성당에 미사 참례하는 신도수는 적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의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에만 참석하고 부활절, 크리스마스엔 고향의 가족과 함께 지낸다.

2) 기질

북부 까탈루냐 및 바스꼬, 중부 마드리드, 남부 안달루시아 등 지역에 따라 기질에 차이가 다소 있으며 북부는 근면하고 경제적이며 남부는 여유 있고 다소 느린 편이다. 일반적으로 첫 대면하는 사람에게는도 친근할 정도로 부담감 없고 친절하며 친구(Amigo) 또는 안면 관계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주먹질하는 일이 없고 말로 해결하며 주변 사람들의 의식에 민감하다. 장보러 갈 때도 정장하는 편이며 여성의 경우 아름답다는 표현보다는 우아하다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한다. 담배꽂초 버리기, 횡단보도 건너기 등의 기초 질서 의식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3) 가족 생활

평균 결혼 연령이 여자 32.9세, 남자 33.6세로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조건이 없고 쌍방의 의사에 따라 결혼한다. 결혼 전 자유롭다가도 결혼 후엔 배우자에 충실하며 가정의 권위는 크지 않고 오히려 남편보다 부인의 위치가 더 강하다. 소득 주체는 젊은 층에선 부부이며 중 장년층에선 남편이다. 자녀에게 엄격하여 공공 장소에서도 체벌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며 부인에게 유리하다. 1990년 이혼법 시행에 의해 이혼이 가능해지면서 매년 증가하였으나, 2008~2009년 연속으로 두자릿 수 감소율을 보여 경기침체가 이혼결정 보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 양육 문제는 부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외 남편 수입의 50%를 자녀 양육비로 받을 수 있다.

4) 예절

일반적으로 노약자를 우대하는 경로 사상과 부녀자를 보호하는 사회이다. 단, 비합리적인 처사를 요구할 경우, 노인이라도 결코 존중하지 않으며 남녀 관계에 있어 서도 여자를 존중하는 편이다. 전혀 안면이 없는 경우라도 얼굴을 맞대하면 HOLA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한다. 예컨대, 엘리베이터에서도 HOLA 및 ADIOS(안녕히가세요)라고 인사할 정도로 인사성이 밝다. 크리스마스엔 가족에게 1월 5일 동방박사의 날엔 어린이에게 장난감, 인형 등을 선물한다. 선물을 받았을 때, 스페인에서는 선물을 준 사람 앞에서 열어보는 것이 예의이다. 방문 또는 미팅 약속을 정할 때는 최소한의 기간과 여유를 두고 접촉하여야 하며 정식 레터를 송부하여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다.

5)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산 선물

직위, 신분 관계없이 한국적인 특산물을 좋아한다. 인삼차, 부채, 열쇠고리, 전통문양 포함 장식품, 액자를 선택하되 지나친 선물을 하여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 현지인과의 원만한 대화법

- 정식 상담 전에 스페인까지의 여행담, 날씨, 스페인 사람이나 축구 관련 대화가 좋다.

6) 이민족, 이교도 배타성

불법 이민자가 많은 모로코, 중남미인, 동구권국민 등에 대해선 범죄자 및 마약 거래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은 없으나 중국인으로 간주, 무시하는 사례가 있다. 올림픽 이후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일하는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하여 기술 진보 국가라는 인식이 높다. 다만 최근 경제위기의 여파로 외국인들이 스페인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생각에 외국인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파.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문화

축구에 열광하며 농구, 수영, 테니스, 사이클링, 패들(PADDLE)을 즐긴다. 스페인 축구는 2012년 2월 기준 피파 랭킹 1위를 구가하고 있으며, Real Madrid, FC Barça, FC Valencia 등 세계 유수의 축구팀을 보유하고 있다. 테니스의 경우, 현재 스페인 선수 나달(RAFael NADAL)이 세계 랭킹 2위로 이로 인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자긍심도 높다. 패들의 경우, 테니스의 일종으로 아파트 단지 내 패들 코트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인 formula1도 스페인 선수인 Fernando Alonso가 수 차례 우승하면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춤으로는 전통적인 플라멩코와 세비야나가 있으며 노래로는 전통 곡인 COPLA(우리나라 트로트와 비슷함)를 즐긴다. 이밖에 TAPA(따빠)라고 하여 우리말로써 안주의 개념인 간단한 음식을 곁들여 담소를 즐기는 문화가 있다. 대부분 하루에 여러 바를 다니면서 간단한 음료와 TAPA를 곁들여 대화를 즐긴다.

하. 외국인 금기 사항

- 박물관 등 관광지에서 작품이나 보존물에 손대는 행위
- 성당, 교회 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행위
- 산의 바위나 기념물, 유적지 등에 낙서 또는 각인하는 행위
-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큰소리로 부르거나 독촉하는 행위
- 기업체 등에 사전 약속 없이 불쑥 방문하는 행위
- 고급식당에서 웨이터 안내 없이 직접 입장하여 착석하는 행위
- 순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하는 행위
- 성당, 박물관, 미술관 등지에서 사진 촬영 금지 표시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는 행위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스페인 지중해 연안은 여름에 기온이 낮고 겨울에 높은 지중해성 기후인 반면 내륙지방은 겨울에 기온이 낮고 여름에 높은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내륙은 여름 내내 고온 건조하나 북부 해안지방은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으며, 겨울은 우기로 태양일수가 많지 않고 강우량이 높아 체감 온도가 낮은 편이다.

기후 관련 풍토병은 없으며 내륙은 1년 내내 건조한 편이다. 한 겨울에는 한국의 겨울과 같은 혹한은 아니나 날씨가 흐리고 체감 온도가 상당히 낮을 수 있으므로 두터운 방한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마드리드를 포함한 남부 이남 지역은 한여름에 40~4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를 기록하기도 한다. 스페인은 태양의 나라답게 일반적으로 태양빛이 따가워 남쪽 지방에는 대부분 집이 흰색이며 연중 선글라스가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습기가 없기 때문에 불쾌 지수가 높지 않은 편이며 그늘이나 실내로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

주요도시 평균온도 및 일조량

(단위: °C, 시간)

지역	7월		12월	
	평균 온도	일조량	평균 온도	일조량
마드리드 (톨레도)	25.0	394	6.3	137
바르셀로나	24.6	246	8.8	103
발렌시아	25.5	310	11.3	146
세비아	28.5	362	10.7	158
카나리아	25.1	273	18.2	150

자료: 스페인 통계청 ('12년 9월 통계)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시차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7시간 느리며, 3월 말에서 10월 초 중 실시하는 섬머타임 적용 시에는 8시간이 느리다. 2011년에는 3월 27일 새벽 2시를 기준으로 서머타임을 시작하여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따라서 스페인 기업과 업무를 위해서는 오후 4시 이후부터(스페인 시간 오전 9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출장을 오게되면 한국서 출발한 당일 또는 다음날 오전 중에 스페인에 도착하게 되어 시간을 벌게 되지만 반대로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갈 때에는 출발한 다음날 도착하게 되어 하루가 더 걸리게 된다.

2)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은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점심 시간은 2시부터 3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4시까지인 경우도 있다. 단, 바르셀로나에는 점심 시간이 1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관공서는 9시부터 2시까지만 근무하며, 우체국도 2시까지만 근무한다.

은행 영업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08:30부터 14:00까지 창구영업을 하며, 평일 중 하루는 오후 연장영업을 하기도 한다. (ex. 무역관 소재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Bankia은행의 경우 월~금요일 오전 08:15부터 오후 14:15까지 영업하며, 목요일은 16:45부터 19:15까지 창구를 연장 운영한다. 하지만 여름(5월~9월)에는 목요일 연장영업을 하지 않는다.)

부활절 연휴 기간인 3월 말~4월 첫주의 1주일은 휴무하는 경우가 많으며(정식 공휴일은 4월 첫주 목, 금 양일간임),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대다수 회사가 단축 근무를 실시하므로 오전 08:00부터 점심 시간 없이 14:30 이나 15:00까지로 근무 시간이 짧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체 가운데에는 8월 한 달 동안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는 휴점 시간 없이 10:00부터 21:00 또는 22:00까지(EI Corte Ingles 백화점) 영업을 하며, 2012년 7월 정부의 영업시간 자유화 조치 이후 경기불황을 타개하고자 매주 일요일까지 영업일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 상점들과 재래식 시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시에 문을 열어 14:00에 닫고,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후 16:00 나 17:00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해 20:00에 문을 닫는 것이 일반적이다(토요일에는 오전 영업만 하는 경우도 있다). 금요일에도 2시 또는 3시까지만 영업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 주요단위

길 이	mm, cm, m, km 사용(한국과 동일함)
공 간	제곱미터(s/m) 사용(주택의 크기를 설명할 때도 제곱미터를 사용함)
액 체	리터 사용(한국과 동일함)
중 량	g, kg사용(한국과 동일함)
온 도	°C 사용(한국과 동일함)

라 출입국/비자

한국-스페인 양국 간의 협정에 의해 90일간은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며 90일 초과 시 사전에 입국 목적에 상응하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스페인의 관문은 마드리드 동쪽 약 13KM에 위치한 BARAJAS 국제공항으로서 입국 청사 출입구에는 경유객을 위한 “TRANSIT”와 입국인을 위한 “ENTRY” 표시가 있다. EU 국가를 경유하였을 시에는 일반적으로 입국 심사를 하지 않으며 비 EU국에서 올 경우 PASSPORT CONTROL이라고 표시된 곳에서 PASSPORT와 입국카드(도착 전 기내에서 작성)를 작성, 간단히 수속을 밟으며 이때 입국 심사관이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준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객은 수하물 검사 없이 통과되므로 출입국 절차는 매우 간편한 편이다.

□ 장기 체류 시 참고 사항

3개월 이상 체재를 목적으로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거주허가(RESIDENCIA), 취학이 목적인 경우에는 학생증(TARJETA DE ESTUDIANTE) 취득이 필요하다. 모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허가 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취득 이전에 관청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청 시에 교부되는 신청 접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11.12월 입국하여 거주허가증 발급을 신청한 한국인의 인터뷰 날짜가 8월로 잡히는 등 특히 마드리드 지역의 거주허가증 발급 지체가 심각한 편이라고 함)

거주허가 또는 학생증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여권과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기업 주재원은 노동허가신청이 인정되어 거주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노동청의 파견기관에서 노동허가증을 수리한 후 관할 경찰서에 거주 허가를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거주허가증을 발급 받기 까지는 최소 3개월이 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최초 거주 허가증 유효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수령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도 따른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한스페인대사관 또는 주 스페인 한국 대사관에 문의할 수 있다.

○ 주한 스페인 대사관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52
- 전화: 794-3581, 팩스: 796-8207
- 홈페이지: www.maec.es/subwebs/Embajadas/Seul/co

○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

- 주소: C/Gonzalez Amigo 15, 28033 Madrid
- 전화: (34)91-353-2000
- 홈페이지: esp.mofat.go.kr

마. 환전

스페인은 EU 가입국으로 공용 화폐인 유로(EURO)를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어로는 에우로라고 읽으며 표기 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천 단위에 .(점)을 쓰고, 소수점 아래 단위에서는 ,(쉼표)를 사용한다. 금액으로 소수점을 표시하는 쉼표 아래 단위는 켄띠모라고 하며 표현시 00 에우로스 곧 000 (켄띠모스)라고 읽는다.

예) 20,15 euros 베인떼 에우로스 곧 긴쎄 (켄띠모스)

달러는 호텔, 대형 백화점 외에는 받지 않으니 가급적 환전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환율이 유리한 정도는 호텔·백화점 < 시내 환전소 < 공항 환전소 < 은행 순이다.

스페인 중앙은행 고시 2012년 12월 12일 기준 환율은 1유로=1.3040달러이다.

바. 교통 / 통신

1) 교통

가) 항공편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은 스페인 내 약 33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요 연결 도시에는 Barcelona, Valencia, Bilbao, Vigo, Vitoria, Zaragoza, Sevilla, Alicante, La Coruña, Santander, Santiago de Compostela, Pamplona 등이 있다.

마드리드와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는 왕래가 많기 때문에 Puente Aéreo(쁘엔떼 아에레오)라고 하는 1시간 미만의 간격으로 출발하는 항공편(Shuttle)이 있다. 참고로 공항관리공단 (AENA) 홈페이지 (www.aena.es)에서는 주요 공항 검색 및 출발, 도착편 시간 및 터미널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마드리드간 대한항공 직항 노선은 2012년 2월 기준 서울-마드리드 간 대한항공 직항 노선은 월, 수, 금 주 3회 운항 하고 있다. 인천-마드리드 구간은 직항을 운항 중이며, 마드리드-인천 구간은 암스테르담을 경유하고 있다. 서울과 유럽 주요 도시간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를 비롯해 KLM, AIR FRANCE, LUFTHANSA 등 주요 유럽 항공사들이 운항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 도시와 마드리드 간은 스페인 국적기인 IBERIA, AIR EUROPA 등을 비롯, VUELING 등과 유럽 주요 항공사들이 연결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예약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각 항공사 간 제휴가 활발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여행이 가능하다. 다만, 여행 일정 및 현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스페인 국적 항공사와 제휴 여부를 고려하여 항공사를 결정할 수 있다. 마드리드에서 파리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되며 암스테르담까지 3시간, 프랑크푸르트까지 2시간 30분, 런던 2시간 20분이 소요된다.

나) 선편

스페인의 주요 항구로는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알헤시라스, 빌바오 및 카나리아 등이 있다. 한국에서 물건을 선편을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항 일수는 약 40일 내외가 소요된다. 스페인에서 주변 섬으로 이동할 때는 주로 바르셀로나 또는 발렌시아로부터 출발하여 발레아레스 제도 및 이비사 섬, 카나리아 제도 등으로 여행하게 된다.

다) 택시

서비스는 정직한 편이며 합승이나 호객 행위는 없다. 도로에 TAXI(택시) 라고 써있는 간판이 택시 정류소이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도로 아무 곳에서나 손을 들어 택시를 잡을 수 있다. 차 지붕에 녹색 불이 켜있고, 조수석 앞 유리창에 'LIBRE'라는 글자판이 붙어 있는 것이 빈 택시이다. 손님을 태운 택시는 지붕에 노란 불을 켜고 'OCUPADO'라는 글자판으로 바꾸게 되어 있다.

택시 통행이 드문 지역에서는 전화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데 종전에는 콜택시를 부를 경우 인근 지역을 지나가던 일반 택시가 무선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미터기를 켜고 고객이 있는 곳까지 왔으나, 2011년 말부터는 콜택시를 부를 경우 5유로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전화번호는 (34)91-371-2131, (34)90-250-1130등이 있다. 한편, 택시 요금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택시 기사에게 'Recibo, por favor(레씨보 뽀르 파보르)'라고 하면 영수증을 써준다. 영수증에는 택시 면허번호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에 짐을 두고 내렸을 경우 택시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택시 기본요금은 2.15유로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에 택시를 탈 경우 기본요금이 2.2유로로 증가한다. 공항에서 탈 경우에는 5.5유로, 버스터미널, 기차역에서 탈 경우에는 2.95유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그 밖에 밤 10시 이후에는 심야할증요금이 적용되어 기본요금이 2.2유로로 증가한다.

라) 공항에서 시내까지

마드리드의 바라하스 국제공항부터 시내 중심의 누에보스 미니스테리오스(Nuevos Ministerios) 지하철 역까지의 지하철 8호선이 운행된다. 지하철 요금은 개별 티켓 기본요금이 1.5 유로, 10번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은 12.20 유로이다. 지하철로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와, 공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유로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별도로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 공항으로부터 누에보스 미니스테리오스역까지 시간은 약 15분 소요된다.

2006년 개장한 제4터미널(T4)은 다른 터미널과는 떨어져 있으나 지하철이 달아 시내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구공항청사인 1~3 터미널과 신공항청사의 4터미널 이동 시에는 공항버스로 이동하여야 한다. 또한 스페인 자국 내 항공사(IBERIA, AIR EUROPA)에 한하여 누에보스 미니스테리오스 역에서 화물 체크인 가능하다(우리나라의 공항 터미널과 같은 기능).

마) 버스로 이동

터미널 내 이동: 공항 내 버스인 Bus Lanzadora(란사도라 버스)를 통해 각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다. 1~3터미널에서 4터미널까지 왕복 30분이 소요되며 도착(4터미널 1층), 출발(1터미널 2층, 2터미널 3층)에서 탈 수 있다. 24시간 운행한다.

- 버스시간표
 - 06:00~23:30 (5분 간격 출발)
 - 23:30~01:50 (5분 간격 출발)
 - 01:50~06:00 (5분 간격 출발)
- 마드리드 시내로 이동: 시내버스 200번이 1-4터미널 구간을 모두 포함하여 Avenida de América까지, 101번이 1-2터미널에서 Canillejas까지 운행되며, 기본요금은 1.5유로이다.

각 버스 노선과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 T3-4 터미널에서 승, 하차하는 경우
 - 200번: Avenida de América <-> Aeropuerto T4 (공항터미널 T4~T1 경유)

공항 출발 시각 (T4출발 기준)	Avenida de América 출발 시각
05:10(첫차), 05:30, 05:50	05:00(첫차), 05:20, 05:40
월~금 06:10부터 22:50까지 4~5대/시간	월~금 06:00부터 22:50까지 4~5대/시간
토, 공휴일 06:10부터 22:50까지 3~4대/시간	토, 공휴일 06:00부터 22:50까지 4대/시간
23:10, 23:30(막차)	23:10, 23:30(막차)

자료: 마드리드주 운송연합

○ T1-T2 터미널에서 승, 하차하는 경우

- 101번: Canillejas(까니예하스) <-> Aeropuerto(공항) <-> Pueblo de Barajas

공항 출발 시각	Canillejas 출발 시각
첫차 06:00	첫차 06:00
06:00부터 07:00까지 매 12~20분마다	06:00부터 07:00까지 매 12~20분마다
07:00부터 22:00까지 매 13~16분마다	07:00부터 22:00까지 매 13~16분마다
22:00부터 23:00까지 매 12~20분마다	22:00부터 23:00까지 매 12~20분마다
막차 23:25	막차 23:45

- 200번: Avenida de América <-> Aeropuerto(공항)

공항 출발 시각	Avenida de América 출발 시각
첫차 05:36	첫차 05:20
06:00, 06:15	06:00, 06:12, 06:23
06:27부터 10:02까지 매 10~12분마다	06:23부터 09:45까지 매 10~12분마다
10:12부터 18:02까지 매 10분마다	09:45부터 18:25까지 매 10분마다
18:02부터 23:00까지 매 10~12분마다	18:25부터 23:00까지 매 11~12분마다
23:00, 23:15	23:00, 23:15
막차 23:30	막차 23:30

자료: 마드리드주 운송연합

바) 시내버스와 지하철

버스와 지하철은 현금 승차 시 기본요금이 1.5유로이다. 지하철의 경우 구간별로 요금이 차등 적용되어 9 정류장을 초과할 경우 최대 2유로까지 요금이 올라간다. 버스는 거스름돈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버스 기사에게 잔돈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잔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12.20 유로인 10회권이 있는데 버스과 지하철에서 모두 통용되므로 버스과 지하철 이용이 잦은 경우에는 10회권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지하철 노선을 입수하려면 마드리드 지하철공사 홈페이지(www.metromadrid.es)에서 스페인어와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화면 상단의 RED DE METRO나 THE SYSTEM을 클릭한다. 버스 노선도는 마드리드 자치주 운송연합 홈페이지(www.ctm-madrid.es)에서 언어를 선택한 후 화면 좌측의 EMT를 클릭하면 버스 노선 검색 가능하다.

사) 고속버스

스페인인 마드리드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기차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는 한편 철도가 달지 않는 곳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지하철 6호선(회색) Méndez Álvaro역에 남부버스터미널(Estación Sur de Autobuses)이 가장 큰 주요 터미널이고, 고속버스 회사에 따라서 다른 소규모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터미널을 잘 확인해야 한다.

출발지 - 목적지	회 사	버스 터미널
마드리드 → 바르셀로나	○ ENATCAR (GRUPO ALSA) - 전화: (34)90-242-2242 - 홈페이지: www.alsa.es	Estación Sur de Autobuses 남부버스터미널 Avda. América 버스터미널
	○ Continental Auto - 전화: (34)90-233-0400 - 홈페이지: www.continental-auto.es	
마드리드 → 발렌시아	○ AUTO RES, S.A. - 전화: (34)90-202-0999 - 홈페이지: www.auto-res.es	Estación Sur de Autobuses 남부버스터미널
마드리드 → 빌바오	○ GETSA - 전화: (34)90-233-0400	Avda. América 버스터미널

아) 열차

국영 철도관리 공사인 렌페(RENFE)가 전국 주요 도시를 운행하며, 요금은 고속버스의 2배가 넘어 비싼 편이지만, 침대 칸이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국내 장거리 여행시 숙소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페인 고속철도인 아베(AVE)가 1992년부터 운행되고 있는데, 2012년 9월 기준 개통된 구간은 총 10개이다. 1) Madrid-Sevilla, 2) Madrid-Malaga, 3) Madrid-Barcelona, 4) Madrid-Valencia 5) Madrid-Valladolid 6) Madrid-Albacete, 7) Madrid-Huesca, 8) Barcelona-Sevilla, 9) Barcelona-Malaga, 10)Valencia-Sevilla. 한편, AVE 열차는 영화 상영, 커피 음료 등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요금은 목적지, 시간대, 등급 별로 차이가 있으며, RENFE의 홈페이지 www.renfe.com 에서 조회와 기차표 구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2012년 9월 기준 마드리드-바르셀로나 이코노믹 편도편 기차 가격은 약 120유로이다. 단, RENFE 홈페이지를 통해 60일 전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도 예매가 가능하다.

자) 고속도로 현황

총 연장 약 85,380KM로써 수도 마드리드 기점으로 1-6번 의 6개 고속도로가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등 주요 도시로 연결되어 있다.

- 고속도로 화물 수송량은 152,250Tm/km로 전체 화물 수송의 약 75% 정도를 차지한다.
- A-I: Madrid-Burgos-San Sebastian(Santander, Bilbao)
- A-II: Madrid-Zaragoza-Barcelona
- A-III: Madrid-Valencia
- A-IV: Madrid-Córdoba-Sevilla(Granada)
- A-V: Madrid-Talavera-Merida(Caceres)-Portugal
- A-VI: Madrid-El Escorial-(Valladolid)-A Coruña

2) 통신

가) 국제전화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전화하려면 국제전화번호(예: 001)를 누른 후 스페인 국가번호 34를 누르고 지역 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누른다(한국에서 스페인 주재 KOTRA 마드리드 무역관에 전화를 걸고자 할 때에는 001(또는 002)-34-91-556-6241을 누른다).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려면 00번을 누른 후 한국 국가 번호 82 + 지역 번호(0번 제외)와 전화 번호를 누른다. 스페인에서 서울의 코트라 본사 3460-7114번에 전화를 걸고 싶을 때는 00-82-2-3460-7114를 누른다.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를 하려면 먼저 900-9900-82를 누르면 한국통신 안내 방송이 나온다. 그 다음 0번을 눌러서 한국 교환원을 호출해 전화번호를 말한다.

나) 국내 전화(시내 + 시외)

스페인은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모두 지역 번호를 먼저 누른 후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다. 주요 지역 번호는 마드리드 91, 바르셀로나 93, 발렌시아 96 이다.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거는 전화 요금은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거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비싸므로 한국에서 출장 오기 전 미리 국제 전화카드를 구입해 오거나 한국에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거는 것이 경제적이다. 호텔에서 국제전화를 할 경우 요금이 서너 배는 더 비싸다.

공중전화는 시내 주요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20센트짜리 동전이나 전화카드를 이용해서 걸게 되어 있다. 전화카드는 시내 곳곳에 있는 신문 판매대(KIOSCO-끼오스꼬 또는 ESTANCO-에스판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장기간 출장 시 휴대폰을 구입할 수도 있다. 선불 카드제가 있어서 복잡한 절차 없이 즉석에서 휴대폰을 사서 쓸 수 있다. 전화기는 모델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의 한국통신에 해당하는 TELEFÓNICA 의 대리점 MOVISTAR에서 TARJETA ACTIVA(따르헤따 악띠바)로 이동 전화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즉석에서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내준다. 전화를 사용하다가 충전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MOVISTAR 대리점, 신문판매대 (KIOSCO), 은행 ATM기, 슈퍼에서, 또는 전화를 걸어서 바로 충전할 수 있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호텔 예약 시에는 목적에 맞는 호텔 선정이 중요하다. 컨퍼런스, 회의, 전시회 등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행사와 연계되는 호텔을 이용하거나 근처의 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이동이 편리하다. 이 외 관광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가급적 구시가지 관광지 근처로 숙소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스페인의 경우 치안, 특히 소매치기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숙소를 정할 때에는 주변의 시설을 살펴보고 늦은 시간 또는 혼자 이동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역인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직접 예약이 가능하므로 스페인 호텔을 직접 예약하거나 국내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도 호텔의 위치 확인은 필수 사항이다. 호텔은 5성급 특급호텔부터 취사가 가능한 아파트먼트식, 우리나라의 여관급인 Hostal, Pension 등으로 다양하며 시설과 서비스도 좋은 편이다.

스페인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연중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동업자 회의 등이 수시로 개최되는 관계로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없으며, 호텔별 요금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사전 예약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에서 조회하는 가격은 대부분 조식과 인터넷이 미포함된 가격이므로 예산 수립시 고려해야 한다.

□ 5성급

- Hotel Ritz Madrid
 - 전화: (34)91-701-6767
 - 요금: 291유로
 - 홈페이지: www.ritzmadrid.com

- Villa Magna(Hyatt 계열)
 - 전화: (34)91-587-1234
 - 요금: 290유로
 - 홈페이지: www.hotelvillamagna.com

- The Westin Palace
 - 전화: (34)91-360-8000
 - 요금: 219유로
 - 홈페이지: www.westinpalacemadrid.com

- Eurostars Madrid Tower
 - 전화: (34)91-334-2700
 - 요금: 99유로
 - 홈페이지: www.eurostarsmadridtower.com

- Hotel Occidental Miguel Angel
 - 전화: (34)91-442-0022
 - 요금: 126유로
 - 홈페이지: www.miguelangelhotel.com

- Hotel Intercontinental Madrid
 - 전화: (34)91-700-7300
 - 요금: 165유로
 - 홈페이지: www.madrid.intercontinental.com

- Meliá Castilla
 - 전화: (34)91-567-5000
 - 요금: 110유로
 - 홈페이지: www.meliacastilla.com

□ 4성급

- Holiday-Inn Madrid
 - 전화: (34)91-456-8000
 - 요금: 116유로
 - 홈페이지: www.ichotelsgroup.com/h/d/6c/830/es/hd?hotelCode=tojsp
- NH Eurobuilding Hotel
 - 전화: (34)91-353-7300
 - 요금: 111유로
 - 홈페이지: www.nh-hoteles.es/nh/es/hoteles/espana/madrid/nh-eurobuilding.html
- Eurobuilding 2 (아파트식)
 - 전화: (34)91-571-6794
 - 요금: 80유로
 - 홈페이지: www.eurobuilding-2.com

* 숙박비는 2012.12월 평일 기준 각 호텔 홈페이지 일반실 싱글요금 기준임(부가가치세 10% 및 조식 미포함)

* 가격은 시기(성수기, 주말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참고 호텔 예약 사이트
 - www.booking.com
 - www.hotels.com
 - www.viajeselcorteingles.com
 - www.rumbo.es

2) 식당

스페인의 한식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식당이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5시경부터 저녁 8시경까지 주방을 닫아서 음식 주문이 불가능하다. 또한 개장 시간 이전에는 문을 열지 않으므로 식당에 미리 전화하여 개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적인 식당 개장 시간

- 점심 - 14:00~17:00
- 저녁 - 21:00~24:00

□ 현지식 식당 정보

- 빠에야 및 해물류

레스토랑	주요 메뉴	특징 및 평가	위치	영업시간
LA ALBUFERA Capitan Haya, 45 (T: 91-567-5197)	빠에야 (스페인 전통 해물잡탕밥)	빠에야로는 마드리드 최고, 고급스런 실내분위기	북부신가지 중심부 MeliaCastilla 호텔내 위치	14:00(점심) 21:00(저녁)

레스토랑	주요 메뉴	특징 및 평가	위치	영업시간
EL ESPIGON Capitan Haya, 58 (T: 91-579-3232)	문어요리, 모시 조개, 각종 생 선류	안달루시아식 해물요리, 실내 인테리어 양호	북부신가지 중심부 MeliaCastilla 호텔 인근	14:00(점심) 21:00(저녁)
OPAZO Reina Mercedes, 20 (T: 91-534-3748)	해물모듬 (삶은것, 구운것) 해물스프, 각종 생선류	갈리시아 싱싱한 해물 실내 인테리어 양호	북부신가지 중심부 MeliaCastilla 호텔 인근	14:00(점심) 21:00(저녁)
LA TRAINERA Lagasca, 60 (T: 91-576-8035)	해물모듬, 각종 생선요리	고풍스런 인테리어 접근로가 좁아 주차곤란	마드리드 중심부 콜론광장에서 왼쪽으로 4블럭	14:00(점심) 21:00(저녁)
GERARDO Alberto Alcocer, 46C (T: 91-457-9459)	각종 해물 및 생선요리	고급레스토랑으로 빠에야 요리 훌륭 실내 인테리어 양호	마드리드 신시가지 구스꼬역에서 택시 5분	14:00(점심) 21:00(저녁)
PORTO BELLO Rosario Pino, 18 (T: 91-579-1147)	각종 해물 및 생선요리	고급레스토랑으로 해물모듬, 생선요리 훌륭 실내 인테리어는 보통	북부 신시가지 MeliaCastilla 호텔 인근	14:00(점심) 21:00(저녁)

○ 고기류

레스토랑	주요 메뉴	특징 및 평가	위 치	영업시간
LA TAHONA Capitan Haya, 21 (T: 91-555-0441)	양고기, 갈비, 목살, 간	양고기 전문으로 유명 고풍스런인테리어 시내 몇곳에 분점 운영	북부신가지 중심부 MeliaCastilla 호텔 인근 무역관에서 도보 10분	14:00(점심) 21:00(저녁)
MESON TXISTU Plaza de Angel Carbajo, 6 (T: 91-572-3249)	바스크식 쇠고기 스테이크	뜨거운접시에 올려 익혀먹는 스테이크 전문	북부신가지 중심부 MeliaCastilla 호텔 인근	14:00(점심) 21:00(저녁)
RIAS BAJAS Reina Mercedes, 20 (T: 91-534-3748)	갈리시아식 쇠고기 스테이크	뜨거운 돌판에 올려 익혀 먹는 스테이크 전문	북부신가지 중심부 Av.America 인근 소재	14:00(점심) 21:00(저녁)
LA VACA ARGENTINA Castellana, 87 (T: 91-556-1143)	아르헨티나식 스테이크	시내 각처에 분점 운영 가격보통, 고기 품질 좋음	까스테야나 대로변 El Corte Ingles 백화점 옆	14:00(점심) 21:00(저녁)
EL MOLINO (T: 91-571-3776)	애저요리 스테이크류	바스크식 스테이크 전문이나, 새끼돼지 통바베큐도 훌륭함	북부신가지 중심부 MESON TXISTU 맞은편	14:00(점심) 21:00(저녁)
CASA BOTIN Cuchilleros, 17 (T: 91-366-4327)	애저요리 스테이크, 생선류	세계 最古 식당 고풍스런 인테리어 애저요리 전문	마드리드 구도심 중심부 마요르광장 인근	14:00(점심) 20:30(저녁)

○ 공연 및 플라멩코 관광

레스토랑	주메뉴	특징 및 평가	위 치	영업시간
CORRAL DE LA PACHECA Juan Ramon Jimenez, 26 (T: 91-353-0100)	스페인 전통요리	마드리드 북쪽 플라멩코 공연장중 최고 식사+관람 또는 관람만도 가능	북부신가지 중심부 구스꼬광장에서 도보 10분	21:00(식사), 22:30(공연)
CORRAL DE LA MORERIA Moreria, 17 (T: 91-365-8446)	스페인 전통요리	전통있는 플라멩코공연장 마드리드내 최고수준 식사+관람 또는 관람만도 가능	마드리드 왕궁에서 도보 3분	21:00(식사), 22:30(공연)
FLORIDA PARK Parque del Retiro (T: 91-573-7804)	스페인 전통요리	극장식 플라멩코 공연장 현대적 감각 무용공연 식사+관람 또는 관람만도 가능	레티로공원 내에 위치	21:00(식사), 22:30(공연)
LA FAVORITA Covarrubias,25 (T: 91-448-3810)	현대식 퓨전	성악가 미니음악회 개최 음식정갈하고 고급스러움	콜론광장 근처 지하철역 Alonso Martinez 역 부근	21:00(식사), 22:30(공연)

○ 마드리드 근교

레스토랑	주요 메뉴	특징 및 평가	위 치	영업시간
NEGRALEJO Carretera San Fernando a Mejorada Km.3 T: 91-669-1125	스페인 전통요리	전원형 레스토랑 옛 수도원 리모델링 고풍스런 분위기	마드리드 서쪽 A-2 고속도로 11킬로	21:00(식사), 22:30(공연)
LA CASA GRANDE madrid, 2, Torrejon T: 91-675-3900	스페인 전통요리	각종연회, 단체식가능 옛 왕실 포도주창고 고풍스런 분위기	마드리드 서쪽 A-2 고속도로 20킬로	21:00(식사), 22:30(공연)

□ 한식 식당 정보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고려정 Restaurante Korea	C/Critsobal Bordiu, 59	(34)91-554-2034	시내북쪽에 위치 (지하철역:누에보스미니스떼리오스 Nuevos Ministerios)
서울정 Restaurante Seoul	C/Ronda de Segovia 25	(34)91-365-0087	시내 남쪽, 왕궁 근처 위치 (지하철역: 푸에르타 데 톨레도 Puerta de Toledo)
한강 Restaurante Hangang	C/ Atocha 94	(34)91-528-1201	아또차 중앙역 근처 (지하철역: 아또차 Atocha) 안톤마르틴 Anton Mar tin)
가야금 Gayagum (Tulipan)	C/Virgen de la fuen cistralaFuencisla 2	(34)91-404-1054	시내 남동쪽에 위치 (지하철역: 엘까르멘 el Carmen)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디미방 Dimibang	C/Rodriguez San Pedro, 67	(34)91-544-6213	대학가(Moncloa) 및 스페인광장부근 (지하철역:아르구에에스Arguell es)
Palillos del Cardenal	C/Cardenal Cisneros, 49	(34)91-448-9060	지하철 께베도 Quevedo역, 빌바오 Bilbao역 도보 5분
마루 Maru	C/San Antonio 6	(34)91-598-7887	Mercado Maravillas 시장 뒷편에 위치(지하철역: 꾸아뜨로스 까미노스 Cuatros Caminos)
마시따 Mashita	C/la Bola 12	(34)91-542-6047	지하철 산토도밍고 Santo Domingo 역
고향맛	C/Divino Valles 31	(34)91-143-4581	시내 남서쪽에 위치 (지하철역: 델리시아스 Delicias)
아리수	C/Panama 4	(34)91-457-8833	베르나베우 구장 인근에 위치 (지하철역: 꾸스꼬 Cuzco)

아. 관공서 관행

스페인 관공서는 오전 근무만 시행하므로 2 시까지 관련 업무를 마쳐야 한다. 우체국도 2 시까지만 근무한다.

근무 시간은 보통 사무실의 경우 9시부터 6 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2시부터 3 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4 시까지인 경우도 있다. 단, 바르셀로나의 경우 점심시간이 1 시에 시작한다.

여권 발급의 경우 보통 3 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자동차 등록 시에는 2-3 일 정도가 소요된다.

스페인 전역에 걸쳐 휴가 기간이 시작되는 7 월과 8 월 중에는 대부분의 관공서 업무도 시일이 평소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 휴가 기간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자. 공휴일

스페인은 공휴일 시스템은 매우 독특하다. 5일의 국가 지정공휴일(신년, 제헌절, 근로자의 날, 신대륙발견기념일, 크리스마스) 외에 카톨릭 공휴일(동방박사의 날, 성요셉의 날, 부활절(2일), 야고보 축일, 성모승천일, 성인축일, 성모수태일 등) 및 기타 자치주 공휴일 중에서 자치주에서 매년 선별적으로 공휴일을 선택하여 연간 총 14일을 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은 17개 자치주가 자체적으로 연간 12일의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어 주별로 공휴일이 다르다.

2013년 공휴일 (마드리드 기준)

일 자	공휴일명	공휴일 성격
1 월 1 일	신년	국가 지정공휴일
1 월 7 일	동방박사의 날	카톨릭 공휴일 (1.6 일요일을 월요일로 순연)
3 월 18 일	성요셉의 날	카톨릭 공휴일
3 월 28~29 일	부활절	카톨릭 공휴일
5 월 1 일	근로자의 날	국가 지정공휴일
5 월 2 일	혁명 기념일	자치주 공휴일 (나폴레옹 항거 민중봉기 기념)
5 월 15 일	이시드로 성인의 날	자치주 공휴일 (마드리드 수호성인 축일)
8 월 15 일	성모승천일	전국
10 월 12 일	신대륙발견기념일	국가 지정공휴일
11 월 1 일	성인축일	전국
11 월 9 일	알무데나 성녀의 날	자치주 공휴일 (마드리드 수호성녀 축일)
12 월 6 일	제헌절	국가 지정공휴일
12 월 25 일	성탄절	국가 지정공휴일

□ 출장 지양 기간

스페인은 17개 자치주 주별로 공휴일이 다르며 각 시, 주마다 자체로 제정한 휴일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방문지의 휴일을 확인한 후 출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매년 공휴일수에 따라 해당 연도에만 휴일인 경우도 있어 연초에 확정된 연휴 일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말 연시

- 매년 12월 6일 제헌절에서부터 1월 중순까지는 성모수태일-성탄절-주현절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이며 연초 사무식 직후에는 외부와 상담하지 않는 관행이 있으므로 출장을 피해야 한다.

○ 부활절

- 3월 말 ~ 4월 초 부활절 주간(SEMANA SANTA)을 전후해 관공서, 은행,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간 기업이 1주일 동안 휴무에 들어가므로 바이어 접촉이 어렵다

1년 중 여름 휴가가 유난히 길기 때문에 바이어 방문 또는 업무를 위한 출장 시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7월에서 8월의 기간 동안 1달 정도 하기 휴가를 실시하므로 실제 업무는 9월 이후부터나 가능하다. 따라서 중요한 업무 접촉 시에는 스페인 담당자가 이 기간 중 휴가를 떠나는 지에 대한 여부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차. 여행시 유의 사항

1) 사전 확인 필요 사항

□ 사증 취득 여부

관광 목적의 90일 이내 체재에 대해서는 사증 면제 협정에 의해 사증이 불필요하나 90일을 넘겨 체재하려는 경우 또는 취직, 취학, 영주, 자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전에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서 목적에 맞는 사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주재원은 노동 허가를 전제로 한 거주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증을 신청하기 전에 스페인 측의 수락 기업이 사증 신청인에 대한 노동 허가를 노동청에 신청한다. 그리고 이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이 노동 허가 신청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입국 사증이 발급된다. 입국 후의 자격 변경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 장기 체류 시 참고 사항

3개월 이상 체재를 목적으로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거주 허가(RESIDENCIA), 취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생증(TARJETA DE ESTUDIANTE)의 취득이 필요하다. 모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허가 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취득 이전에 공무원 등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는 신청 시에 교부되는 신청 수리표를 제시하면 된다. 거주 허가 또는 학생증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여권과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기업 주재원은 노동 허가 신청이 인정되어 거주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사회 노동성의 파견 기관에서 노동 허가증을 수리한 후 관할 경찰서에 거주 허가를 신청한다.

업무상 출장을 오는 경우는 출장 기간 중 전국 휴일 또는 방문 지역의 자치주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사전 확인한다. 고궁이나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방문할 시에는 계절별, 월별 또는 평일과 주말의 개장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레스토랑은 점심은 오후 2시부터, 저녁은 밤 9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어 가야 한다. 한국 식당과 일부 식당의 경우는 오후 1시 30분, 밤 8시 30분부터 문을 여는 곳도 있다. 따라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식사를 하려면 맥도날드, 버거킹 등과 같이 상시 문을 여는 식당을 이용한다.

시내 안에서 자동차로 이동시 주차 장소가 마땅치 않으므로 주변 유료 주차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근 도로변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주차를 위해 시간을 허비하여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할 수 있다. 일부 유료 주차장의 영업 시간은 보통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이므로 밤 10시 이후에 도착 하면 차를 뺄 수 없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차장이 24시간 주차가 가능 한 곳인지 사전 확인한다.

주차 위반 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차 가능 지역은 도로에 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금지 구역은 도로변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잠시 동안 정차하는 것은 가능하다. 녹색 선은 주로 거주자용으로 한 번 주차권을 끊었을 때 최대 1시간 주차가 가능하며 파란색 선은 일반 주차지역으로 최대 2시간 주차 가능하다.

2) 안전 수칙

- 사고는 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
- 사전에 여행 국가의 우리 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으로 여행 정보, 특히 치안 정보를 파악한다. 절대로 많은 현금을 지참하지 않는다.
- 현금, 여권, 신용카드 및 귀중품은 호텔 내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고 외출 또는 불가피할 시는 여러 곳에 분산 휴대한다.

- 여권 및 항공권은 반드시 사본을 준비한다.
- 호텔 로비나 식당 등에서는 항상 휴대품을 몸에 지닌 채 이동한다.
- 관광을 할 때에는 가급적 고가의 카메라, 캠코더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 야간에는 출입을 자제하고 특히 단독 외출은 삼간다.
- 길을 물어보거나 과잉 친절한 사람들을 경계한다.
- 옷에 오물을 묻혀 산만하게 한 후 접근하는 사람들을 경계한다.
- 누가 보아도 관광객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은 가급적 피한다.
- 차량을 이용한 여행시(동양인이 운행하는 렌터카는 표적이 되고 있음)
 - 항상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다.
 - 차량 내에 귀중품을 방치하지 않는다. 특히, GPS는 고정대도 꼭 탈착하여 트렁크나 보조석 선반에 보관한다. 기타, 쇼핑백 등 밖에서 봤을 때, 귀중품이 있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가져갈 수 있으니 주의한다.
 - 차량의 바퀴가 터졌다는 등의 구실로 접근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을 조심한다.
 - 경찰을 사칭하거나 유사 경찰 복장인의 불심 검문 시 필요한 신분증만 보여주며(지갑 채 건네는 것은 금물), 필요 시 차량 번호 등을 확인한다.
- 소지품 주의
 - 전국적으로 치안은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경찰들의 단속이 많은 편이다. 다만, 최근 들어 불법 이민자들의 증가 및 관광객이 많은 특성 때문에 시내 중심가 및 관광 명소의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다.
 - 특히 마드리드 시내 중심가(Centro), 베틀 시장(Rastro), 관광지 및 기차역(아또차Atocha역, 차마르틴Chamartin역) 등 외국인 관광객 운집지역 그리고 호텔, 공항에서 Check-in 할 때 소지품 소매치기 및 들치기 사고가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호텔이나 미술관 등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가급적 사람의 접촉을 피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택시에서 내리거나 물품 구매 후 지갑을 손에 들고 오래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강력 사건은 많지 않으나 최근 수 차례 폭행을 한 후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집시나 불법 이민자들이 때를 지어 범행을 저지르며 주로 일본인과 한국인이 그 대상이다.
 - 소매치기 유형은 몇 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 물어보기, 달걀 던지기, 물 뿌리기 또는 주차된 차에 펑크 내기 등 주의를 흘뜨린 후에 접근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소매치기 하는 수법이 많다. 이 외 최근에는 호텔 앞에서 정신을 잠시 잃게 한 후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적이 드물거나 늦은 시간에 호텔에 출입할 때는 주위를 잘 살펴보거나 가급적 혼자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3) 금기 사항

□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 박물관 등에서 관람 시 작품을 손으로 만지거나 소란스럽게 떠드는 행위
-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큰소리로 부르거나 독촉하는 행위
- 기업체 등에 사전 약속 없이 방문하는 행위
- 고급 식당에서 웨이터 안내 없이 직접 입장하여 착석하는 행위
- 콘서트, 연극 등 공연장에서 꽃다발 전달을 위해 무대위로 올라가는 행위
- 성당, 교회 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행위
- 산의 바위나 기념물, 유적지 등에 낙서 또는 각인하는 행위

카. 유용한 연락처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전화: (34)91-556-6241 팩스: (34)91-556-6868 주소: P.Castellana 95, Planta 10, 28046 Madrid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 (마드리드)	전화: (34)91-353-2000 주소: Gonzalez Amigo 15, 28033 Madrid 홈페이지: esp.mofat.go.kr

□ 현지 긴급 상황별 주요 전화번호

- 사건·사고
 - Servicio de Emergencia y Rescate (위급상황 전반): 112
 - Policia nacional (국립 경찰): 091
 - Policia municipal (시경): 092
 - Guardia Civil: 062
 - Tráfico (교통계): (34)91-301-8100
 - Grua Municipal (차량 견인): (34)91-787-7292
- 화재 (소방서: Bomberos)
 - Madrid Capital y Mostoles: 080
 - Comunidad: 112
 - Alcorcon: 092
- 긴급 의료지원 (앰불런스)
 - Insalud: 061
 - Samur: 092
 - Intoxicaciones (가스·약물중독): (34)91-562-0420
 - 적십자: (34)90-222-2292
- 기 타
 - 신용카드 분실 신고
 - AMEX: (34)90-237-5637
 - VISA: (34)90-099-1124
 - Mastercard: (34)90-097-1231
 - Cajamadrid: (34)90-224-6810
 - 물건 분실
 - 일반 분실물: (34)91-588-4346
 - 택시에서의 분실물: (34)91-480-4613
 - 전화번호 문의: 11818, 11811
 - 호출 택시(Teletaxis): (34)91-371-2131, (34)90-250-1130
 - 공항
 - 마드리드 Barajas 공항: (34)90-240-4704
 - 바르셀로나 El Prat 공항: (34)93-298-3349
 - 철도청(Renfe): (34)90-224-0202
 - 야간·공휴일 약국 문의: 098

타. 관광 명소

1) 마드리드(Madrid)

□ 개 요

- 1561년 Felipe 2세가 수도로 선포
- 해 발: 654m
- 인 구: 약 500만

□ 프라도 미술관(El Prado)

개방 시간: 월~토, 10:00~20:00, 일요일 및 공휴일 10:00~19:00

18세기 Carlos 3세가 자연사 박물관으로 건축하였으며, 1819년 Fernando 7세에 의하여 왕실 미술관으로 개관하여 현재 세계 4대 미술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16세기 El Greco, 17세기 Velazquez, 18세기 Goya 등 스페인의 중세 3대 화가 작품을 위시하여 16세기 이전 초기 무명 화가로부터 18세기 낭만주의 작품 및 고야의 회색 시대 암흑의 그림들에 이르기까지 유럽 중세 회화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19세기 이후의 근대 작가들의 그림은 소피아 미술관 등 다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스페인 정부는 경기침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관광수입 확대를 위하여 2012년부터 월요일 휴관을 취소하고 상시개관으로 변경하는 대신, 개관 시관을 당초 09:00에서 10:00시로 조정하였다. 월~토요일 18:00부터 20:00까지, 일요일 17:00부터 20:00까지는 관람료가 무료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매표소에서 줄을 서서 무료입장권을 받은 후 입장해야 한다.

매년 1월1일, 5월1일, 12월25일은 휴무하며, 1월 6일(동방박사의 날), 12월 24일과 25일은 오후 2시까지만 개관한다.

□ 소피아 현대미술관(Reina Sofia)

개방 시간: 월, 수~토 10:00~21:00, 일 10:00~19:00, 화~휴관

1986년 개관한 현대미술관. 현 왕비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으며 게르니카를 포함한 다수의 피카소, 미로, 달리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평일저녁 19:00시, 토요일 14:30, 일요일 10:00부터 무료입장이다.

□ 마요르광장(Plaza Mayor)

1619년 Felipe 3세시 건립된 100m x 200m 의 장방형 광장으로 총 136개의 방으로 구성된 4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광장 주변 지역에는 18세기 이후 형성된 식당, 카페, 선물집 등이 있으며 이중 특히 1725 년 문을 연 Botin 식당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헤밍웨이가 자주 찾던 곳으로 유명하다.

□ 스페인 광장(Plaza de España)

1930년 Alfonso 13세 때 건립되었다. 작가 Cervantes 및 주인공 Don Quijote 및 Sancho Pancho의 동상이 있다.

□ 왕궁(Palacio Real)

개방 시간: 월~토 09:30~17:00, 일, 휴일 09:00~14:00(동계 기간 10월 1일~3월 31일 월~토 09:30~17:00) / 국가 행사 등의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세계에서 아름다움과 규모 면에서 손꼽히는 왕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내부가 가장 웅장하고 호화로운 왕궁은 단연 마드리드 왕궁이다. 흔히들 파리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둘을 비교해보면 마드리드 왕궁의 내부가 훨씬 더 웅장하고 호화로운 데에 놀라게 된다. 사방 공히 150미터가 넘는 마드리드 왕궁은 방 수만 무려 2,700개가 넘는다. 이 중 관광객 들한테 보여주는 방들은 스무 개 남짓으로 옛 스페인 제국의 번영과 영화를 짐작함은 물론 그 시대의 문화와 예술에 감탄하게 된다.

마드리드 왕궁은 비록 현재 국왕이 살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행사 시에는 관광객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 1991년 중동평화협상, 2002년 유럽. 중남미 정상회담, 각국대사 신임장 제정 등이 그 예이다. 원래 무어족의 성채가 있던 자리에 1673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Felipe 5세가 성채를 허물고 목재로 왕궁을 지었는데 1734년 크리스마스 날 화재로 거의 전소되었다. 4년 후 부르봉 왕가에 의하여 석재로 다시 지어진 것으로 30년 걸려 카를로스 3세때 완공되었다.

왕궁 안에는 국왕이 각국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장엄한 느낌의 옥좌의 방, 다채색 화법의 대리석으로 치장된 가스파리니의 방, 88개의 도자기가 서로 연결, 분해 조립이 가능한 도자기의 방, 노란색으로 색조를 통일한 노란 방, 중국풍으로 치장된 중국방, 약150명 정도가 함께 앉아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대 만찬장 등과 왕실 용품 전시장이 있다. 왕궁을 돌아나오다 보면 마차 박물관이 있는 앞뜰(모로 정원)이 내려다 보이며 저 멀리 옛 왕궁의 사냥터인 카사 데 캄포 공원이 펼쳐져 있다. 또한 광장 출구 쪽 오른쪽에 있는 스페인 제국 시대의 기마병 모습 및 무기 등이 전시된 무기 박물관도 놓치기 아까운 관광 장소이다.

2) 톨레도 (Toledo)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톨레도는 중세의 분위기와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시간의 정지, 역사 그 자체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의 무대이기도 한 라만차 지방의 수도로서 이탈리아 로마와 함께 세계적으로 면적 당 가장 많은 수의 고대 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스페인(Spain)에 머무르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면 반드시 톨레도(Toledo)를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톨레도는 스페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심장에 해당하는 역사의 고도(古都)이다. AD 6세기경 서고트족이 왕궁을 건설한 이래 1560년까지 약 10세기간 정치,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써 따호(Tajo) 강에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이다. 아랍,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모든 예술 양식의 총 집산지인 중세 서양 문명의 중심지로 1986년 12월 UNESCO에 의해 세계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16세기에 이미 정치와 경제의 중심은 현 수도인 마드리드로 옮겨 갔지만 현재 인구 10만이 채 미치지 못하는 톨레도에는 전통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옛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이 도시에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로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스페인에서 가장 고풍스러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 톨레도의 역사는, 이 지역에 이베로(Ibero)족의 한 부류인 카르페타노(Carpetano)인들이 정착하면서 시작된다. 카르페타노인들의 정착지는 고대 로마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로마(Roman)인들의 침입을 받았는데 BC 192년 로마의 집정관 풀비우스(Fulvius)가 고대 로마제국의 영토로 합병시켰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 지역을 '톨레툼(Toletum)'이라 불렀는데, 오늘날 '톨레도(Toledo)'라는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톨레도를 말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유럽에서 4번째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사원(Catedral)과 내전의 참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알카사르(Alcazar)이다. 이 마을의 중심에 있는 이 고딕 대사원은 세계적으로 엄격하기로 유명한 스페인 가톨릭의 총본산이다.

전형적인 프랑스 고딕 양식의 이 대사원은 페르난도 3세의 명령에 의해 1226년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267년 뒤인 1493년에 완성됐다. 그 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증, 개축 되어 원래의 모습은 별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지만 각 시대의 예술가들에 의해 예술성이 유지되어 그 훌륭함이 보존되고 있다. 5개의 큰 홀로 구성된 대사원의 중앙홀 천정은 32M에 달하며, 실내에는 성기실, 보물실 그리고 엘 그레코가 그린 '성의를 입은 사람'등 진귀한 작품과 아울러 루벤스의 그림도 소장되어 있다. 본당으로 들어가 오른쪽에 있는 보물실에는 16세기 초에 'Juan de Arte'가 만든 높이 3M, 총 중량 200KG의 금은보석으로 세공된 성병헌치대가 놓여있는데 그 일부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금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본당 중앙 주변의 합창단 CORO석에는 아론소 베르게가 그라나다 전쟁 장면을 자세하게 조각해 놓았다.

톨레도 우측에 위치한 알카사르(Alcazar)는 마을 전체가 배라면 돛대라 할 수 있다. 멀리서 마을을 바라보면 가장 높이 우뚝 솟아있는 것이 이 마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Alfonso 10세의 왕궁 터에 건설된 Carlos 1세의 성으로 13세기에 만들어져 대대로 이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스페인 시민전쟁(1936-39)때는 프랑코 중심의 군사제 주장 국수파(Nationalist)와 좌파 민주주의제도 지속을 주장하는 공화파 간의 격전지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시대별 군사 문화를 전시하는 전쟁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곳 알카사르에 얽혀있는 "모스카르도 대령"의 일화는 전쟁의 아픔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공화파의 위세에 눌려 톨레도를 최후의 보루로 삼고 버티고 있는 국수파를 지휘하던 "모스카르도 대령"은 "루이스"라는 12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폭격 속에서도 "모스카르도 대령"은 끝까지 항전하였고 그 와중에 아들이 인질로 적에게 잡히게 된다. 적군은 항복하지 않을 시 아들을 죽이겠다고 모스카르도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대령은 아들을 바꿔달라 하여 조국을 위해 용감히 죽을 것을 말한다. 충성이 울리고 아들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또다시 항전은 계속되었다. 마드리드에서 전열을 정비한 국수파의 반격이 개시되어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

이곳 알카사르에는 당시의 모스카르도 대령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령의 초상화와 아들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적군의 협박을 받았던 전화기가 초상화 밑에 놓여져 있으며 한국어로 당시의 통화 내용이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

3) 전몰자의 계곡(Valle de los caídos)

마드리드 북서쪽 54Km, 해발 1,000m의 과달라마 산맥 남쪽 기슭에 위치한 "전몰자의 계곡"에는 거대한 암반 위에 높이 150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석재 십자가가 솟아 있다.

이곳의 대사원은 강철같은 암반을 260m나 뚫어서 세운 것인데, 프랑코 총통의 지시로 1936년-1939년 스페인 내전 때 희생된 약 5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무명 용사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전쟁 포로를 동원, 내전 직후인 1940년에 착공, 1958년 완공되었다.

당시 전쟁 포로들은 1일을 일하는 대가로 2일의 형이 감량되었다 하며 험난한 공사 중에 수백 명이 희생되었을 것 같은 인상을 처음 보는 이로 하여금 느끼게 하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다 한다. 십여 킬로미터 밖에서도 웅장한 모습을 짐작하게 하는 150m의 십자가는 직경 42m의 예배당 원형 천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원형 천장에는 영웅, 순교자, 스페인 성인들을 주제로 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한편, 예배당내에는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 및 혁명동지 "호세 안토니오"의 묘소가 있으며 묘소 앞에는 언제나 화사한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4) 세고비아(Segovia)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세고비아는 로마 시대의 수도교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고 중세에 지어진 성벽이 지금도 구시가를 에워싸고 있다. 특히 수도교는 유럽 각지에 남아 있는 로마 수도교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로, 전체 길이 728미터에 높이 28미터로서 시멘트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화강암을 쌓아 올려 만들었다 한다.

구시가 끝 쪽의 바위산에 서있는 알카사르(Alcazar)는 13세기에 축성된 성으로 그 우아한 자태로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성의 모델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구시가 중심부 중앙 광장에 서있는 대성당(Catedral)은 1577년에 완공되었는데 그 섬세함과 아름다움으로 “까페드랄의 귀부인”이란 애칭을 갖고 있다. 애저 요리(cochinillo)가 유명하며 수도교 바로 앞 광장에 유명한 식당이 위치하여 있다.

5) 알함브라 궁전(Alhambra)

알함브라 궁전(Alhambra)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유적지의 하나이다.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Granada)에 위치한 이 궁전은 해마다 수십만의 인파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알함브라 궁전은 한때 스페인을 한때 점령하며 유럽을 호령했던 아랍인들이 최후까지 스페인군에 저항했던 곳으로 그 양식과 분위기에 있어 독특한 아랍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는 대형 건축물이다. 궁전 안에는 분수가 있는 유명한 뜰이 있으며 내부에 오래된 건물을 호텔로 사용하여 숙박도 가능하다. 단, 가격이 비싸고 연중 예약이 만원을 이루므로 미리 알아보아야만 한다.

최근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하루 관람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방문 시 관람 가능 시간 및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입장권을 미리 구입하지 않으면 당일 도착하여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여행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사전 구입하는 편이 좋다. 알함브라 궁전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los recuerdos de la Alhambra)”이라는 기타 곡으로도 무척 유명하다.

6) 플라멩코(Flamenco)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집시"에 의해 전승되어 온 춤, 노래, 기타 연주를 총칭하는 종합 예술로써 아랍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본래 "집시족"은 인도의 편잡 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로써 로마 시대에 이집트인으로 오인하여 "이집트인"이라 불리던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형되어 "집시"라는 명칭으로 고정되었다 한다.

1783년 Carlos 3세시 집시의 거주권 인정 후부터 일반 스페인 사회에 전파된 플라멩고는 18세기 말부터 성행되어 현재는 스페인 민속 무용을 대변하게 되었다. 대체로 집시의 애환을 나타내는 어두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플라멩고는 처음 보는 이로 하여금 현란한 발 동작에 눈길을 끌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손동작과 순간순간 변하는 얼굴 표정이라 한다. 플라멩고의 기본 형태는 첫째, 발 구르기(Zapateados), 둘째, 손뼉치기 (Palmadas)이다.

7) 투우 (Corrida de Toros)

귀족이나 기사들의 말을 타고 수소와 싸움을 벌이는 데서 유래된 투우는 18세기 초에 현대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투우는 마따도르, 피까도르, 반데리예로가 한 팀을 구성하여 소와 대결을 한다. 먼저 화려한 의상을 입은 마따도르가 나와 카포테라는 두꺼운 망토로 달려드는 소를 피하면서 성질이나 속력, 버릇 등을 파악하며 그 다음에 피까도르가 등장하여 긴 창으로 소의 견갑골을 찔러 힘을 빼게 만든다. 다음으로 반데리예로가 등장하여 짧은 작살 6개를 소의 등에 찌르며 다시 마따도르가 등장하여 물레타라는 붉고 둥근 천으로 달려드는 소를 피하며 기운을 뺀 다음 마지막 긴 검으로 소의 숨통을 끊는 순서로 진행된다.

투우 시즌은 매년 3월 19일 발렌시아의 “불축제”를 시작으로 10월 12일 사라고사의 “필라르 축제”까지 이어지는데, 마드리드는 5월 15일 “산이시드로 축제”를 전후에 한달여간 거의 매일 개최된다. 투우장은 1급에서 3급까지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1급 투우장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발렌시아 등 7개 도시에 있다. 10월에는 시즌이 끝난다.

하. 기념품 구입

스페인에서 구입할 만한 기념품으로는 발렌시아 지방의 유명 도자기인 야드로(Lladro), 톨레도 (TOLEDO)의 금세공품(Damasquinados 다마스끼나도), 모조진주 악세사리 마호리카 (Majorica), 구두, 의류, 가죽제품 등이 유명하다. 주로 주요관광 명소에서 구입하거나 마드리드 시내 관광 기념품 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의류 상표인 ZARA, MANGO 등과 액세서리 상표 TOUS 제품을 선물용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2013년 주요 전시회 개최 일정

전시회명	AULA 스페인 국제 교육박람회
전시분야	교육기자재, 콘텐츠, 이러닝, 관련 서비스 등
기간	2013/02/17 ~ 2013/02/17
주소	IFEMA 28042 Madrid. Apdo. De correos 67.067. 28080 Madrid, Spain
전화	+34 91 722 57 92
홈페이지	www.aula.ifema.es
e-메일	aula@ifema.es

전시회명	GSMA WORLD MOBILE CONGRESS [GSMA]모바일 국제 전시회
전시분야	무선통신 전분야, 모바일 컴퓨팅 및 인터넷, 모바일콘텐츠
기간	2013/02/25 ~ 2013/02/28
주소	Fira Barcelona, Recinto Ferial de Montjuic, Spain
전화	+44 (0)207 356 0600
홈페이지	http://www.mobileworldcongress.com
e-메일	info@gsmworld.com

전시회명	International Energy and Environment Trade Fair 마드리드 국제 에너지 환경 전시회 GENERA
전시분야	환경기술 및 컨설팅, 폐기물 수거 서비스, 각종 보험 및 프로젝트 재정 기업, 에너지 공급 회사, 쓰레기 및 폐수 처리 기술 및 설비, 운할유 및 각종 첨가제 등
기간	2013/02/26 ~ 2013/02/28
주소	IFEMA Parque Ferial Juan Carlos I, 28042 Madrid, Spain
전화	34 91 722 3000
홈페이지	www.genera.ifema.es
e-메일	genera@ifema.es

전시회명	Salon Internacional de Tecnologias de Seguridad y Defensa 스페인 방위산업 기술 박람회
전시분야	무기, 안보용품, 군수물자, 장비, 기술 등 방위산업 관련 기술 및 제품
기간	2013/03/12 ~ 2013/03/15
주소	IFEMA Parque Ferial Juan Carlos I, 28042 Madrid, Spain
전화	+34 91 5
홈페이지	www.homsec.es
e-메일	homsec@grupoateneasd.es

전시회명	Club de Gourmets International Fair 마드리드 국제 식료품 박람회
전시분야	와인, 샴페인, 올리브유, 치즈 등의 유제품, 견과류, 초코렛 등의 간식류 등
기간	2013/04/08 ~ 2013/04/11
주소	IFEMA Parque Ferial Juan Carlos I, 28042 Madrid, Spain
전화	34 - 91 548 9651
홈페이지	www.salondegourmets.com
e-메일	gourmets@gourmets.net, salon@gourmets.net

전시회명	Feria Habitat Valencia 발렌시아 주거.가구 박람회
전시분야	인테리어 자재, 조명, 가구, 홈패션 등
기간	2013/09/18 ~ 2013/09/22
주소	Avenida de las Ferias, s/no. 46035 Valencia, Spain
전화	34 - 90 274 7330
홈페이지	www.feriahabitatvalencia.com
e-메일	habitat@feriavalencia.com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부: www.minetur.gob.es
-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www.mineco.gob.es
- 스페인 재정공공행정부: www.minhap.gob.es
- 스페인 중앙은행: www.bde.es
- 스페인 정부공식사이트: www.lamoncloa.es
- 스페인 대외무역진흥청(ICEX): www.icex.es
- 스페인 투자진흥청(INVESTINSPAIN): www.investinspain.org
- 스페인 통계청: www.ine.es
- 스페인 세무국(국세청 및 관세청 기능 수행): www.agenciatributaria.es
- 스페인 식약청: www.aemps.es
- 스페인 공공조달 관련 D/B: <http://contrataciondelestado.es/>
- 품목 HS 코드별 관세 검색: www.taric.es
- 스페인 수출입 통계: datacomex.comercio.es
- 스페인 해외투자 통계: datainvex.comercio.es
- 스페인 전자정보통신협회(AMETIC): www.ametic.es
- 스페인 자동차제조사협회(ANFAC): www.anfac.es
- 스페인 의료기기협회(FENIN): www.fenin.es
- 수출기업협회(AMEC): www.amec.es
- 전경련(CEOE): www.ceoe.es
- 전자 및 IT분야 수출기업연합회: www.secartys.org
- 스페인 이커닝 협회: www.apel.es
- 자동차부품 제조사협회 SERNAUTO: www.sernauto.es
- 전자상거래협회: www.adigital.org
- 조명기기 제조사협회: www.anfalum.com
- 전기제품 제조사협회: www.afme.es
- 시멘트 제조사협회: www.oficemen.com
- 섬유산업 정보센터: www.cityc.es
- 플라스틱산업협회: www.cep-inform.es
- 스페인 재생에너지 협회: www.appa.es
- 스페인 태양광산업 협회: www.asif.org
- 스페인 풍력산업 협회: www.aeeolica.org
- 스페인 화장품 협회: www.stanpa.com